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5월 22일 수요일 (주간) 제 370 호



법석 조대 **도문 스님** 장수 죽림정사 조실



"악을 그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선을 닦아 깨달음을 이루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 가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니 일과 이치에 따라서 불교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법이고, 깨끗하면 부처입니다. 교는 부처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지요."

☞ 자세한 내용은 18 · 19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연등행사를 국민축제로

12일 서울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는 말 그대로 축제분위기가 한껏 묻어났다. 연도에는 제등행렬을 보려는 시민들로 넘쳐났고, 불교문화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연신 터트려대는 카메라 플래시가 발하는을 수놓았다.

갖가지 화려하고 새로운 장엄물들과 춤추는 행렬, 경쾌한 음악과 레이저 조명. 이날 행사는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유명 축제와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웅장한 장엄물로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12일 열린 부산의 연등축제에서는 합창제, 연극, 봉사활동 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봉축행사를 연출해냈다. 이밖에도 마산 · 창원, 청주, 원주, 제주 등 각 지역의 연등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올 봉축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졌다. 우선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학생 불자들이 2002개의 축구공등을 들고 행진을 벌이는 등 월드컵과 연계한 아이디어들이 많았다. 또 탑춤, 국악,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가 제등행렬 곳곳에서 흥겹게 펼쳐진 것도, 연등축제에 외국인들이 대거 참여해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갖게 한 것도 예년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불교가 우리 역사의 근간이자 불교문화가 우리의 전통문화와 맞닿아 있고, 한국을 대표할 만한 문화축제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연등축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민축제이자 문화축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만 장엄물과 갖가지 이벤트가 점점 대형화됨에 따라 이를 마련하기 벅차하는 규모 작은 사찰들이 (참여에)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한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사찰 수련

1. 주말이나 휴가 때 사찰에서 운영하는 수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2.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①참선 ②절하기 ③교리강좌 ④예불 등 의식
   ⑤체조나 선무도 ⑥다도, 문화재 알기 ⑦기타

설문 참여: 5월 23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1호 11면에 싣습니다.



◇2546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19일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2만여 사암에서 봉행돼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위해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다. 1만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조계사 봉축법요식에서조계종 원로회의장 도원스님이 총정 법전스님의 법어를 대독하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깨달음 · 상생의 삶을"

19일 전국 2만여 사암서 봉축 법요식

불기 2546년 봉축 법요식이 19일 서울 조계사와 봉원사, 관문사, 탑주 심인당을 비롯 전국의 2만여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은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부처님 오신날을 알리는 28번의 타종을 시작으로 원로회의 의장 도원스님과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전통 관불의식을 봉행한데 이어 헌화, 봉축사, 김대중 대통령 봉축 메시지 낭독, 종정 법전스님 법어, 발원문 봉독 등의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서원과 부처님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며 "우리 모두가 무지와 탐욕을 여의고 깨달음과 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원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종회 의장 지하스님은 통일을 염망하는 남북한 불교도의 염원을 담은 남북 공동 발원문을 봉독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a.com

나라 · 민족발전 버팀목

김대통령 봉축 메시지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254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차별과 사랑의 정신을 일깨워 주신 부처님의 드높은 공덕을 기리고자 한다"며 "불교계가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월드컵 계기 불교세계화 '성큼'

봉축 연등축제 · 템플 스테이 등 외국인 관심 고조

'사찰체험' 지속 등 국제포교 적극 추진

30일부터 개막되는 2002 한일 월드컵 개임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연등축제에 대거 참석하는 등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템플 스테이 사업을 상설화하고, 조계종이 새롭게 영문 표기법을 확정하는 등 국제포교 활성화에 나섰다.

전국 31개 사찰들은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들에게 산문을 열고 예불, 참선, 발우공양, 인경, 다도 체험 등 한국불교를 체험케하는 템플 스테이(Temple Stay) 사업에 들어갔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은 "아시안게임(9월29일~10월14일)이 있는 가을에도 템플 스테이 추진이 어려울 것이 없다"면서 "31개 사찰의 노하우를 살린 템플 스테이의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외국인 포교 및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대책과 관련, 템플 스테이 상설화를 추진키로 하고 '2003년도 템플 스테이 계획안'을 수립, 사찰 개보수 비용(올해 10억원) 이외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홍보 비용 등 모두 3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국제포교를 염두에 둔 포교대책도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기)는 이를 근거로 영문 <사찰문화 안내서>를 발간해 사찰과 관련기관에 배포했으며, 총무원은 이달말까지 종단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해 외국인을 위한 사이버 포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과 총무원 사회부는 월드컵이 국제포교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란 판단 아래, '국가별 불교 현황 및 포교현황' 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130여 해외 사찰과 국제포교 사들에게 현황자료와 관련사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 · 4 · 16면

김재경 기자 jkim@buddhapa.com

모범수형자 1,232명 가석방

부처님 오신날 맞아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9일 김한상 전국의료보험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을 포함, 모범수형자 1천232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수를 비롯, 10년 이상의 형을 복역중인 장기수형자 35명과 기능자격 취득자 및 기능대회 입상자 205명, 검정고시 합격자 44명 등이 포함됐다.

김원우 기자

이번주 봉축특집 36면 발행

기획특집: 한국불교를 말한다.
도법스님 특별대담 '참회 · 진리추구만이 갈길' 3면
한국불교 세계화 '해외포교 미룰 수 없다' 4면
한국불교 달라졌다 '외형신장 신도의식 성숙' 5면
각계 불자 '부처님 오신날에 쓰는 발원문' 7면
타종교인들 '불교가 좋은 이유' 9면
'붓다의 땅' 인도불교가 되살아 난다 13면
새연재:108사찰 생태기행… '숲이 사라지면' 15면
20개국 주한대사 템플 스테이 체험현장 16면
화보 '미소로 오신 부처님' 20면
IT업계 누비는 불자CEO들 23면
봉축동화 '아기 부처님과 도둑' 31면
월드컵 전야제 목어 35개 출현 34면

새 기획연재 108 사찰 생태기행

<사찰생태연구소>와 현대불교가 10년을 기약하고 '사찰생태조사'에 나섭니다. '사람'을 들려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相生'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론 '생태적 이상향'이어야 할 사찰마저 망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해야 하는 가슴 아픈 순간도 맞겠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현재의 사찰 생태를 세심하게 진단하고 '자연스러움'을 회복할 비전을 찾는 데 있습니다.

길잡이 **김재일** 소장은 '두레생태기행'을 이끈 경험과 식견으로 집필을 맡아, 사람의 자연 속으로 독자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여행도반들의 면면도 듬직합니다. 화가 **이호신** 씨가 사찰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을 화폭에 담아줄 것이며, **이병인**(탑앙대 환경공학과), **박원규**(충북대 산림학) 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의 시각도 지면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2001년 12월 YTN 모범업체 선정 방영!!

세계 최대 지장보살 성지

중부권 최대의 미타사 가족납골공원

즉시안치 가능 (토목공사 100%완료)

백룡이 여의주를 안은 백룡희주형(白龍戱珠形) 명당!

매년 정기적인 합동제와 상시독경을 올립니다.
음력 입춘, 사월초파일, 칠월칠석, 백중, 동지날에 스님들이 직접 영혼들을 위해 합동제를 올려 왕생극락의 길로 안내하며 상시 독경으로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빌어 영가들의 천도를 빌어드립니다.

육도(六道)의 배치로 왕생극락을 빌어드립니다.
납골의 배치를 육도에 맞추어 안치함으로써 왕생극락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유명관광지가 소재합니다.
중부 및 내륙, 중앙고속도로와 청주 공항에 인접하여 서울에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충주호, 단양팔경, 월악산, 수안보온천 등의 관광지가 인근에 있습니다.

뒤로는 가섭산의 오색비단장막이 동에는 좌청룡 서에는 우백호가 엎드려 지켜주고 앞에는 탁트인 임수에 여의주가 뚜렷해 옛부터 알려진 최고의 명당으로 현세는 부귀다자(富貴多子)하고 내세는 지상보살의 품안에서 영원히 안식 할 수있는 제일의 성지입니다.



기본형



□오 덮 : A형 - 영합형
□높 이 : 2000 □안치수 : 10位
□바닥석 : 1150×1250×150

고급형



□오 덮 : A형 - 부도형
□높 이 : 2000 □안치수 : 12位
□바닥석 : 1200×1400×180

장묘법의 개정에 따라 더 이상 매장묘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 봉자시행 : 대한불교로 조계종 미타사
□ 신 청 금 : 10만원 선착순
□ 신청계좌 : 농협 327-01-137435
□ 예 금 주 :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사 (미계약시 신청금 전액즉시환불)

분 양 문 의
02)720-7007
02)419-1700
FAX 02)419-6670
Homepage: www.mitasa.co.kr



사 설

사찰 생태환경을 보존하자

사찰은 삼세(三世)의 도량이자 이 시대의 정토(淨土)이다. 단순히 불교라는 종교로서 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후손들에게 떳떳히 물려줄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양호한 사찰의 생태환경이 크고 작은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어 가고 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는 사찰이 가지고 있는 양호한 생태환경을 지키고, 후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본분사가 이시대의 화두로서 대두되고 있다.

본지는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 '사찰생태연구소'의 108사찰 생태기행을 지면에 담기로 했다.

지난 80, 9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모형이 오늘날의 사찰과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산림이다.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사찰은 자연에 대한 개발과 보전에 관한 이상적인 모델로서 제시될수 있다. 그것은 자연에게도 건전하고, 인간에게도 건강한 상생의 공간이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모델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연과 인간의 온전한 조화로운 관계의 만남의 장으로서의 사찰의 양호한 생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교전래이후 1600여년동안 자연환경을 유지해온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생태계 보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사찰내에서도 친자연적인 생활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템플스테이 지속 추진해야

조계종은 내년에도 템플스테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사찰 개보수비 10억원을 포함 프로그램 개발비, 홍보비 등으로 모두 30억원을 정부에 지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 템플스테이가 실시된 것은 올해가 첫 해로서 아직 생소한데다 이에 관한 안내책자나 교본도 없어 이를 추진하고 싶어하는 사찰이나 관계자들도 어려운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개 보수에 지나칠 정도로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스님들의 일상과 수행 모습을 공개 가능한 범주 내에서 보여줌으로써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알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템플스테이를 영구사업화 한다는 전제아래 템플스테이에 관한 교본과 안내책자 및 안내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템플스테이를 시행하는 사찰과 외국인 투숙객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을 소개해 주어 사찰에 머무는 동안 불편이 없도록 해줄 수 있고, 사찰에도 보탬이 되리라고 믿는다.

템플스테이는 국제포교만이 아니라 국내포교에도 자극제가 되는 사업이다.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템플스테이가 사찰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고 우리불교의 참모습을 해외에 전하는 새 방편이 되길 기대한다. 필요한 경우 조계종 주관아래 템플스테이 진행을 위한 신도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전국에 걸쳐 공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봉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신도전문교육기관 42곳 인가

조계종, 47개 불교대학서 신청 실사·결정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

지 역	불교대학명
서울(3)	조계사불교대학, 불광불교대학, 봉은사불교대학
인천·경기(3)	봉선사불교대학, 경기불교대학, 인천불교대학
강원(4)	원주불교대학, 동해불교대학, 신흥사불교대학, 강릉불교대학
충북(2)	광명불교대학, 충북불교대학
대전·충남(3)	각원사불교대학, 광제사불교대학, 백제불교문화대학
부산(3)	부산불교교육대학, 대광불교대학, 범어사금정불교대학
경남(7)	경남불교대학, 영축불교대학, 함양불교대학, 대광불교대학, 불지수다라불교대학, 정토불교대학, 통도사불교대학
대구·경북(6)	대구불교대학, 보리불교대학, 경북불교대학, 구미불교대학, 불국사불교대학, 포항불교대학
전북(3)	화엄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남원불교대학
전남·광주(6)	광주불교대학, 광주불교문화대학, 해남불교대학, 목포불교대학, 강진불교대학, 마라난타불교대학
제주(2)	제주불교대학, 서귀포불교대학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9일 총 42개 불교대학에 대해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했다.

지난 2월 19일 신도전문교육기관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불교(교양)대학 및 신규 불교대학에 대해 포교원이 신도전문교육기관 인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7개 대학에서 인가신청을 해 서류검토와 실사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

이같은 수치는 '불교(교양)대학 등록 및 관리령'에 따라 등록된 이전의 70여 불교교양대학에 비해 20여곳이 적은 수치다. 하지만 교육시설과 내용을 갖춘 일정 수준이상의 불교대학을 인가, 전문교육기관 체계화의 가닥을 잡아 신도교육 체계화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들 42개 조계종등록 불교대학은 과거 불교교양대학과는 달리 반드시 기본교육을 이수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포교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포교원은 내달 초 각 기관에 불교대학 인가증을 전달하고, 불교대학 관계자 정기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추가로 인가를 신청할 불교대학은 신도전문교육령에 의거, 매학기 불교대학 개강후 1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포교원에 제출할 수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자원봉사, 불교대 필수과목으로 포교사고시에 관련문항 포함을"

박용하씨 주장

"불교대학에 자원봉사 관련 과목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설치하고, 포교사 고시에서도 관련 시험문항이 포함돼야 한다."

최근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원장 혜총)이 창간한 학술논문집 <불교사회복지>에서 박용하 씨(개금사회복지관장)가 '포교사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기하고, 포교사를 자원봉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포교사 345명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설문조사를 기초로 연구한 이 논문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88.7%가 포교사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9.8%의 포교사가 자원봉사관리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 84.4%는 자원봉사 활동의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으며, 85.3%의 포교사는 포교사 양성기관인 불교대학에서 자원봉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작 78.2%의 포교사는 포교사 고시의 필기·실기 시험에서 자원봉사 관련 내용의 시험을 치러본 적이 없다고 답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하 씨는 포교사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불교자원봉사센터로서 포교사단 역할 정립 △각 사회복지법인 중심의 불교사회복지연구 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철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내년에도…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사진 오른쪽)과 외환카드 백운철사장이 15일 부다피아-외환카드 제휴협약에 조인했다.

부다피아-외환카드 제휴

포교기금 확충·불자들에 많은 혜택

현대불교신문사는 불자카드인 '부다피아카드' 출시 1주년을 맞아 불자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포교 복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환카드와 제휴하고 사업을 확대했다.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과 외환카드 백운철 사장은 15일 외환카드사 임원실에서 양사 임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다피아-외환카드 제휴 조인식을 갖고 불자들의 편리한 경제활동을 도모하면서 포교기금을 마련해 불교의 생활화를 앞당기는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외환카드와 제휴한 부다피아카드는 후불교통카드 기능, 동국대병원 할인서비스 등 국내 최고수준의 경쟁력과 서비스를 확보하고 수익금은 불교 포교 복지 기금으로 조성된다.

박봉영 기자

정진석 서울 천주교구장 부처님오신날 축하메시지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14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진석 교구장으로부터 2546년 부처님 오신날 축하메시지를 전달 받았다.

정진석 주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한다"며 "그 동안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서로 화합하는 모습은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표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주교는 "우리 종교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더욱 큰 희망의 징표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원우기자

마곡·불국사 주지선출 6월3·5일 산중총회

조계종 6교구 마곡사와 11교구 불국사가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6월 3일, 5일 각각 개최한다.

마곡사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7~28일이며, 28일까지 거주승 신고를 받는다. 또 불국사 주지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6~28일이며, 거주승 신고기간은 25일부터 28일까지다.

김원우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중앙승가대학교 제2회 승가학 학술세미나

근대이후 인문학에 나타난 불교관

모시는 글

귀의삼보하옵고,
국내유일의 승가교육 전문기관인 본교에서는 승가교육의 방향과 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이어 '제2회 승가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近代 以後 人文學에 나타난 佛敎觀」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승가학의 정체성이 상당부분 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6(2002)년 5월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 범 합장

◇ **일시** : 불기 2546년(2002년) 5월 31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중앙승가대학교 본관 4층 대강당
◇ **주최** : 중앙승가대학교
◇ **주관** :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 **후원** : 조계종 교육원, 불교방송, btn,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 만불신문...
문의 : 031-980-7716 (교학처)

◇세미나 일정

제 1부 개 회 식 (10:30-10:50)
· 삼귀의례 · 반야심경봉독
· 인 사 말 · 기 념 사
· 축 사 · 일정안내

제 2부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10:50-16:30)
· 제 1주제 발표(10:50-11:20)
[역사학의 불교관] ---허흥식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제 1주제 토론(11:20-11:40)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
· 점심공양(11:40-13:00)
· 제 2주제 발표(13:00-13:30)
[어문학의 불교관] ---임기중 교수(동국대 국문학과)
· 제 2주제 토론(13:30-13:50) ---이진오 교수(부산대 한문학과)
· 제 3주제 발표(13:50-14:20)
[종교학의 불교관] ---윤이흠 교수(서울대 종교학과)
· 제 3주제 토론(14:20-14:40) ---홍선 스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 제 4주제 발표(14:40-15:10)
[철학의 불교관] ---신오현 교수(경북대 철학과)
· 제 4주제 토론(15:10-15:30) ---안성두 교수(충북대 강사)
· 휴 식(15:30-15:40)
· 제 5주제 발표(15:40-16:10)
[미술사학의 불교관] ---장충식 교수(동국대 박물관장)
· 제 5주제 토론(16:10-16:30) ---홍윤식교수(국악예고 교장, 전 동국대 교수)

제 3부 종합토론 (16:30-18:00)
· 사 회 :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 토론 참가자 :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사홍서원
· 폐 회

중앙승가대학교

한국불교를 말한다

전국 곳곳에 봉축 열기가 뜨겁다. '연꽃 세상'이라도 도래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국 불교의 진면모인가? 이런 때, '한국 불교를 말한다'라는, 다소 선언적이면서도 무거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적절하기는 한가?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역시 '오늘'이다. 과거나 미래와 절연된 오늘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연장선상에서의 오늘.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의 한국 불교를 성찰함은, 한국 불교의 진면모를 한 부분이라도 확인하는 일임과 동시에 내일의 한국 불교를 전망해 보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의 한국 불교를 냉철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가장 본자다운 '부처님 맞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언제나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제1선에서 부딪치면서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도법 스님.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도 표현의 에두름 없이, 구도자적 치열함으로 대답에 응해 주셨다.

도법 스님(실상사 주지)에게 듣는다

(대담:윤제학 취재2부장)

"發露참회 · 진리추구만이 갈 길"

진리 · 진실 · 사실에 입각해야만 '大乘'

복짓기, 세속적인 가치 찾는데 그쳐선 안돼

외형 확장 · 타종교와 경쟁 불교완 무관



◆먼저 한국 불교사를 시대별로 개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고려—조선에 이르는 한국 불교의 시대별 특징을 간단하게라도 짚어 보신다면….

고대, 즉 삼국시대의 불교는 국교적 성격의 왕실 불교로 출발했다고 봐야겠지요. 물론 신라의 경우는 왕실의 불교 수용에 대한 족장 세력의 반발로 이차돈의 순교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진흥왕 때부터는 왕실로부터 극진한 보살핌을 받아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후 통일신라 때는 의상, 원효와 같은 고승이 나오고 화엄종이 대세를 얻는 한편, 말기에는 선종이 대두하지요.

이러한 상황이 고려로 이어지면서 '선'은 교종의 한계를 극복함과 함께 풍부한 사상적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과의 밀착은 더욱 심화되어 불교 자체가 권력 집단이 됩니다. 신라의 불교가 단순히 정치 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지요.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체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도 불교의 본질이 왜곡될 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에 더해 내부가 부패함으로써 쇄락과 탄압을 자초한 겁니다. 이런 현상이 탄압기에도 반복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주체적 고민이 없었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체제 순응적' 왜곡의 핵심입니다.

조선은 그야말로 암흑기였지요. 하지만 조선 불교를 이렇게만 언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만 있었지, 극복의 몸부림은 없었던 때'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서산과 사명의 승병 활동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건 자구의 몸짓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흐른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흔히 이런 물음에 대한 답으로 '호국'을 들먹이는데, 한국 불교는 이것부터 극복해야 합니다. 국가나 조직에 종속된 호국은 불교 입장에서는 성립될 수 없어요. 이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간디의 인도 독립 정신을 원용해 보겠습니다. "비폭력과 평화를 버리라면 독립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해요.

철저하게 불교적인 세계관과 철학으로 국가나 조직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직 법(진리)의 정신, 법의 길만이 불교가 가야할 길이고 '인류의 희망'입니다.

◆많은 논자들이 한국 불교의 고유성을 얘기할 때, '원효'의 '화쟁과 회통 불교'를 듭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한국 불교는 화쟁의 전통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원효'는 오늘의 한국 불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육화' 되어 있는지….

우선, '화쟁과 회통'을 한국 불교만의 특징적 사상으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화쟁과 회통이 뭡니까. 그건 곧 연기론이예요. 연기론적 사유 방식이 원효 스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화쟁과 회통으로 표현됐을 뿐입니다. 화쟁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불법의 진리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원효의 삶을 오늘의 한국 불교는 어떻게 체화하고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원효 스님의 삶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지요. 진리 즉 연기법의 구체적 실천과 세상의 안락, 이것만을 지향한 것입니다. 오직 진리 추구의 정신으로 세상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고민했던 겁니다. 부처님의 삶이 그랬어요. 그리고 원효 스님은 그것을 그대로 따른 거지요.

그러나 오늘의 한국 불교는 그렇지를 못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안락에도 충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원효의 문제 의식과 실천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시대의 삶으로 실현하려는 의식이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한국 불교는 과연 대승적인가 하는 의문과도 상통하는 지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한 마디로, 오늘의 한국 불교는 불교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대승의 '대'를 단순히 크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쉽게, 자리와 이타로 대승과 소승을 구분하는 것도 단세포적이에요.

사상적으로 봤을 때, 소승은 아공(我空)만을 인정해요. 법공(法空)은 인정하지 않지요. 대승은 아공과 법공 둘 다를 인정합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소승이 자기 중심적이라면 대승은 관계 중심이라고 봐야겠지요.

대승의 '대'는 규모나 수치의 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즉 연기의 가르침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대'와 '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연기법의 진리에 일치하는 '대'만이 '크고 작음' 모두를 포용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대승은 대범한 것, 큰 것,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흔히 정치인들이 야합에 불과한 타협을 하고도 대승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진리 · 진실 ·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 대승이예요. 그러나 오늘의 한국 불교는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서 대승을 강조해요. 불교의 근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선(禪)'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날 한국 불교는 정체성의 핵심을 '선 불교'로 보는 경향이 짙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전통 혹은 정통 선은 한국 불교에서만 유지되고 있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선 없는 선 과잉'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만이 모든 것인양 하면서도 결제 대중은 10% 남짓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불교의 근본에 대한 이해에서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불교를 모르고서는 선을 알 수 없습니다. 연기적 세계관과 사유 방식이 아니고서는 공(空)도 중도(中道)도 선(禪)도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스님이 선방에 있건 단 한명의 스님이 있건, 문제의 본질은 수량적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정, 전긍정의 무애자재한 선 정신이 나오려면 연기론적 철학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이러한 입장에 투철하다면 단 한명의 스님이 선방을 지켜도 선은 살아있는 겁니다.

불교와 선을 차별화하는 것이 문제예요. 불교를 모르면 선도 알지 못합니다. 불교를 떠나서는 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라는 허상을 통해서 실체를 유추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한국 불교의 일그러진 모습을 점검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가 중언을 고해야 할 것들'을 짚어 주시죠.

워낙 많아서 원…. (웃음) 흔한 예로 방생을 들어 볼까요. 방생, 중요하죠. 좋은 건데, 많이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릇된' 방법입니다. 대형 불사 문제도 그래요. 높이와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느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한다면 30미터가 아니라 100미터의 부처님도 세워야지요.

이런 현상을 언급하자면 끝도 없을 테니까, 이런 현상을 야기한 태도를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사찰에서마저도 편리를 추구하고 최고의 것을 찾는 풍조가 지배적이에요. 이건 수행자로서 자해 행위와도 같습니다. 신도들이 가져오니까 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있는 거라고 맘대로 쓰고, 가진 권력이라고 맘대로 휘둘러도 좋다는 겁니까?

가치 판단에 있어서 이중 삼중의 잣대도 문제예요. 필요에 따라서, 상대를 공박할 때, 중헌 종법과 율장을 들먹이면서도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지는 않아요. 위선적이라는 거죠. 방생을 안 한다고, 대형 불사를 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비불교적, 반승가적 태도에 있어요.

◆기복에 대한 비판은 오랫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작복(作福)'이라는 말로 해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도, 같은 내용을 표현만 바꿔 정당화하는 듯한 허(虛)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전에서도 복을 얘기합니다. 이런 이런 일을 하면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부처님의 고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 설법을 해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연기법의 심오함 때문이었고, 둘째는 인간이란 욕망에 탐착하는 존재라는 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출·재가를 구분하여 법의 세계로 이끕니다.

출가자에게는 연기와 무아를 강조하고, 재가자에게는 보시와 계율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를 강조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를 통해, 탐욕의 논리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한 것이지요. 보시를 통한 자기 정화가 선행되어야만, 진리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복 짓는 일이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복'의 개념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법을 깨닫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서는 접근 과정으로 행하는 일이 복 짓기라는 것입니다.

기복이든 작복이든 다 좋습니다. 문제는 내용과 지향점입니다. 복 짓기가 세속적 가치의 추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끝으로 결론 삼아 오늘의 한국 불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지향점에 대한 질문으로 대담을 마칠까 합니다.

불교 그 자체, 즉 연기의 가르침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발로참회(發露懺悔)가 선행돼야 합니다. 어떤 허물이건 낱낱이 드러내고 진정으로 공론화해야 합니다. '집안의 추함을 바깥으로 드러내서는 안된다'는 명분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봐주기를 원만으로 여기는 것은 상처를 곪게 할 뿐입니다.

발로참회의 정신은 불교의 역사에 길이 이어져 왔습니다. 초기 불교가 부파의 왜곡으로 치닫자 대승이 일어났고, 대승이 오염되자 선으로 그 극복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외형의 확장이나 타 종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정부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는 것 따위로는 불교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연기법의 진리에 충실하는 것만이 불교가 갈 길입니다.

TrekSta

고마운 분들께 사랑을 선물하세요

불심으로 가는 그 길에
언제나 자비로가 함께 합니다!

자비로 제품특징 남·녀 공용 225~265㎜

- 천연가죽 뉴벅의 사용으로 착화감이 뛰어남
- 하이퍼그립의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및 접지력 탁월
- 특수방수 처리
- 스토퍼를 사용해 워킹시 발의 안정감을 줌
(스토퍼 고정용자석부착으로 착화시 더욱 편리해짐)
- 통기성이 뛰어난 고급삼베 인솔 사용
- 가볍고 편안해서 스님 및 불자들의 신행에 적합

전국 르까프 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본 사:02-320-0602~3 유통지점:02-320-0795 동서울지점:02-320-0622
남서울지점:02-320-0781 대전지점:042-487-9602 호남지점:062-511-8377
영남지점:051-309-7122 대구지점:053-964-5476



성불화-자비로

Only One Number One
(주)트렉스타
www.trekSta.co.kr
TEL: 051-309-3663(代)

한국불교의 세계화

'해외포교 활성화' 더 미룰수 없어

◑ 한국불교 위상

한국불교의 국제포교는 1966년 승산스님(화계사 조실)이 일본 도쿄에 홍법원을 개설하면서 본격화됐다. 교계에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를 비롯 미국, 유럽,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등과 교류를 맺고 있는 20여 국제교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해외 사찰은 조계종에 등록된 1백30여곳 등 모두 190여곳. 25여개국에 3백여 스님들이 진출해 있다. 특히 화계사 조실 승산스님은 러시아, 폴란드 등 동구 국가는 물론 남아공화국, 브라질 등 전세계 20여국 1백60여 곳에 선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원장 대행)도 미국, 아르헨티나, 독일, 태국 등 9곳에 지원을 설치해 현지포교를 펼치고 있는 등 한국불교의 세계화 및 국제포교 일선에 서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제포교는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불교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주류는 티베트 및 남방, 일본 불교다. 많은 대학들이 앞다투어 불교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들 지역의 불교를 연구한 교수여서 한국 불교에 정통한 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한국불교는 현지 외국인 포교보다는 교포대상 포교에 머무르고, 포교효과가 큰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은 저조하다. 미국의 경우, 조계종 진각종 태고종 보문종 법화종 등 2백여 한인 스님과 법사들이 현지 포교사로 활약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현지 개척불교와는 거리가 먼 교포불교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불교는 이제 왜, 미국과 유럽에서 불교 하면 티베트와 남방불교를 얘기하는지 물어야 하고, 그 답을 늦었지만 내놓아야 할 때다.

◑ 국제포교 인프라

해외에 건립된 한국 사찰은 조계종 소속 130여 사찰을 비롯, 25개국에 모두 1백90여 개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미국 110여곳, 일본 30여곳, 캐나다 10여곳 등 대부분 북미지역과 일본에 분포하고 있다.

해외 포교에 매진하는 스님과 국제포교사는 240여명으로 원불교의 307명 보다 적은 것이 현실이다. 개신교계의 선교사 파송이 9천여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신도수가 10만명이 채 안되는 원불교가 3백여명에 달하는 반면, 불교계는 전체의 2.5% 수준인 24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한국 불교 서적 역시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하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1994년을 시작으로 <Son Thought In Korean Buddhism> 4권을, 조계종이 <Korean Buddhism>을, 동국대 두뇌한국(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단(단장 조용길)이 지난 달 국내 첫 영문 불교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istory of Buddhist Thought>을 창간한 정도다. 개별 학자로는 심재룡(서울대) 교수, 원의범(동국대) 교수, 길희성(서울대) 교수가 단행본을 펴냈다. 외국에서는 루이스 랭카스터 미국 버클리대 명예교수와 로버트 버스웰(UCLA) 교수, 콜롬비아대 출판부 등이 한국불교 관련서를 냈다. 영문 잡지로는 국제포교사회가 계간 <Lotus Lantern>을, 미주 현대불교가 계간 <Mok Tak>을 펴내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해외포교의 인프라가 열악한 것은 조계종의 올해 해외포교 관련 예산이 해외포교 1520만원, 외국인 포교 2239만원, 대외교류 및 협력 1억4800만원 등 1억8600만원에 불과한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국제포교사 연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2억650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 사회부가 2000년, 해외 130여개 사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찰의 재정현황도 정상운영되는 경우는 37%에 불과했으며, 전산화 활용(11%)도 미약했다. 해외사찰 스님들은 △영문경전 발간 △포교자료 개발 △총무원차원의 해외순회 포교행사 개최 △포교사 배치 △외국어교육 강화 등을 총무원에 요망했다.

◑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아시아가 서양에 줄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불교다."

어느 저명한 미국 철학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삼우스님(미국 시카고 선련사 선원장)은 "19세기말 한국이 개화를 위해 기독교를 원했듯이, 지금 서양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와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불교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미국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에서 강연을 마치고 귀국한 능인선원장 지광스님들이 해외포교에 나선 동기로는 신도나 스님의 초청(45%), 외국여행중 인연(20%) 등으로 나타났으며, 해외포교에 원을 세우고 개척한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그러다보니 현지 언어능력이 취약(21%)하여 외국인 포교 및 현지 사회와의 교류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신도들의 인구분포는 36~50세(40%)가 가장 높고 청년(13%)과 청소년(9%)층은 낮게 나타났다.

스님에 따르면, 세계 불교의 흐름은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와 베트남 출신 선사인 틱낫한 스님 등이 주도하는 참여불교가 주도하고 있다. 또한 서구인들은 현실적인 갈등을 치유하고 고통을 해소해주는 가르침을 갈구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영역은 과거 신비적 명상에서 참여불교 등 사회적 역할을 찾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광 스님은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알릴 사람은 태부족"이라며, 이제 한국 불교도 '우물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날 때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능인선원에서 강의한 하버드대학 종교대학원의 수미 런던의 말은 한국불교가 해야 할 일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에서 근대 문명을 받아들일 때 신선한 것으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나이든 분들은 교회에 가고 젊은 사람들은 불교가 사회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젊은이들은 서양 문화에 젖어있지만 서양은 지금 동양문화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는 현각 스님의 말도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바를 웅변해 준다.

서구인들은 이제까지의 서구적 합리주의로는 새로운 세계의 인간과 자연을 통합하는 삶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자각한지 오래다. 인간과 자연을 담고 있는 세계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한국불교가 새로운 인류의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한국을 잘 아는 불교학자들의 목소리다.

◑ 해외포교 활성화 과제

월드컵을 전후해 생활 전반의 세계화가 눈앞에 성큼 다가온 지금, 해외포교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국제포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포교의 일선에서 분투해온 한국사찰에 대한 종단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중앙종무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을 통한 해외포교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고, 본사급 사찰에서는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스님들도 종단과 소속 본사에 대한 귀속감을 높여야 한다.

스님과 국제포교사의 체계적인 양성도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해외포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의 언어로써 불교교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인이다. 종립학교인 동국대나 중앙승가대 대학원 과정에 국제포교학과 설치 등도 연구해 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외국어로 된 포교서적의 발간이 선행돼야 한다. 불교에 관심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손쉽게 불교를 접하는 길이 서적이기 때문이다. 선의 본고장을 찾아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벽안의 구도자들을 위해서는 국제 선센터의 건립도 늘어나야 할 것이다.

교포사회의 젊은이들 가운데 신심 깊은 불자를 양성해 지역불교를 이끌어 가게 하는 일도 간과할 수 없다. 국제포교사회 양장운 명예회장은 "해외에서 한국불교를 든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 청소년, 현지인 포교가 시급하다. 훈련된 국제포교사 파견, 지역별 한국불교 사찰연합회 결성, 신도교육 및 포교자료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재경 · 김주일 · 여수령 기자



◇진정한 해외포교는 교포만이 아닌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전법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0월29일 미국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 공원에서 한국, 티베트, 스리랑카, 미국 등 각지의 불자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뉴욕불교협의회(New York Buddhist Comcl) 주최 '9 · 11테러 희생자 49재'.

◇주요 해외 한국사찰 인터넷 사이트

사찰	인터넷 주소
관음선원 미국본원	http://www.kwanumzen.com/
관음선원 유럽본부	http://www.kwanumzen.de/retreats/index.html
관음선원 독일본부	http://www.kwanumzen.de/e_index.htm
관음선원 헝가리본부	http://www.kvanumzen.hu/eng/index/index.htm
관음선원 폴란드본부	http://www.zen.pl/en/index.htm
관음선원 미 서부본부	http://www.emptygatezen.com/kusz/west.htm
홍콩 수봉선원	http://www.subong.org.hk/index_e.htm
슬로바키아 관음선원	http://www.kwanumzen.sk/
보스톤 캠브리지 선원	http://www.cambridgezen.com/
알라스카 냉산 선원	http://www.geocities.com/coldmountainzencenter/
남아프리카 다르마센터	http://home.worldonline.co.za/~dharmken/
폴란드 관음선원	http://www.katowice.zen.pl/
포르투갈 관음선원	http://www.geocities.com/umgm594/
노르웨이 오슬로선원	http://home.no.net/kuzs/index-en.html
스페인 팔마선원	http://www.mallorcaweb.net/zen/
호주 퀸즈랜드선원	http://members.optushome.com.au/qldzen/
오스트리아 비엔나선원	http://www.kwanumzen.at.tt/
리투아니아 비니우스선원	http://www.zen.lt/english.htm
미국 법보선원	http://myhome.naver.com/bupbo/
미국 관음사	http://www.kwanumsa.com/
미국 선련사	http://www.zenbuddhisttemple.org/
네팔 대성석가사	http://www.ds-sukgasa.or.kr/
인도 국제 조계선센터	http://www.cczny.org/
미국 법주사	http://www.vbtemple.org/
미국 삼보사	http://www.sambosa.com/
한마음선원 시카고지원	http://www.buddhapia.com/hmu/chi/
한마음선원 캐나다지원	http://www.hanmaumcanada.org/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http://www.hanmaum-zen.de/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http://www.hanmaumzen.com/
한마음선원 태국지원	http://tree.hanmaum.org/Bangkok/
한마음선원 워싱턴지원	http://wa.hanmaum.org/Washington D.C

歐美대학들 불교학강좌 앞다퉈 개설

왜 남방·티베트 불교 중시하는지 생각해야

국제포교 외국인보다 교포위주 수준

외국어 불교서적 늘리고 인력양성 서둘 때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 해 사

주 지 법 타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전화 054) 335-3318 팩스 054) 335-0293

학교법인 승 가 학 원

이사장 정대스님

외 임직원 일동

중 앙 승 가 대 학 교

총 장 종범스님

외 교직원 일동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전화 : 031)980-7777(대표)

한국불교 달라지고 있다

외형 신장·신도의식 한층 성숙

요 인

한국 불교의 변화에는 '외풍'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가톨릭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2일 주례 강론에서 "인터넷의 바다에 뛰어들어 가톨릭 교회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강조했다. 통신과 정보 기술 진보의 산물인 '인터넷'은 새로운 포교 공간일 뿐 아니라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로서 여론 형성의 도구로도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앞둔 포교 환경의 변화와 각 종교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치열한 포교 경쟁 등에 직면한 한국 불교계는 새로운 활로 찾기를 압박당해 왔다.

한국 불교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부추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바람은 안에서 일고 있다.

정부 인구센서스를 보면, 전체 종교 인구는 늘어나지만 종교 인구 중 불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다. 또 96년 이후 새로 등록하는 신도 수 역시 감소 추세다. 신도 증가율과 유년·청소년 불자의 감소라는 현실 앞에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신도들의 고학력 추세 역시 변화의 주 요인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해 전국 60개 불교교양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도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포교사 고시 합격자의 51.6%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도 고졸(49.7%)과 대졸(45.0%)의 격차가 5% 이내로 줄어들었다.

신도 고학력화는 신도 교육 체제의 변화와 함께 신도 의식의 성숙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변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지난 해 해인사 청동대불 조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의들은 대형 불사, 불사제일주의에 대한 숙고를 통해 '봄사'에 대한 인식부터 변해야함을 각인시켜 주었다.

양 상

94년 조계종 종단개혁이후 한국불교는 조계종 사태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신도의식 수준 향상, 직장직능 불교 확산, 수행 열기 고조, 사회 참여 확대 등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 중 눈에 띄는 변화는 직장 불교의 확산과 사회참여 확대를 들 수 있다. 직장불교의 확산은 직장 내 봄심을 하나로 모으고 신행의 변화를 가져왔다. 금융 위기 이후 일부 단체들이 활동을 중단하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공무원 불자회, 경찰불교회, 철도청 법우회 등을 중심으로 직장 내 불자회 창립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회원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단순한 법회 프로그램, 재정 빈약 등은 직장불교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 보호, NGO활동 강화 등 사회 참여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지리산 관통도로 저지, 해인골프장 저지 등 성과를 얻었으며, 새 만금 간척 반대, 북한산 관통터널 반대, 국·도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 반대 등 현안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신도들의 신행형태 변화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기복 위주의 신행이 감소하고 수행열기 고조, 경전 공부모임 확산, 불교교양대학 활성화 등 신행 형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재가자 안거 동참, 수련회 정착과 비 불자들의 수련회 참여 확산, 포교활동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신도교육 강화, 사이버불교 확산, 사회복지활동 증가 등의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존의 학생회, 청년회 등 젊은 불교의 상징이었던 단체들은 눈에 띄게 세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들 단체들은 회원 감소, 대외활동 약화, 영향력 감소 등 급격히 활동력이 저하돼 미래불교를 이끌 젊은 불자 양성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교 세

한국불교의 외양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10년 전인 1993년과 비교하여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교육 기관인 불교교양대학은 77개에서 260여 개로, 불교NGO 단체를 포함한 신행단체가 436개에서 1,100 여 개로 늘어났다.

전국의 불교교양대학은 지난 2월 19일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한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경기불교대학, 부산불교교육대학, 불국사불교대학, 광주불교대학, 제주불교대학 등 42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6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불교교양대학 현황은 지난 1973년에 불교계 최초로 설립된 대원불교대학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지난 93년 77 개 이었던 것에 비해 3.5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행단체 역시 93년 430여 개에서 1,100여 개로 3배가량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전국불교운동연합,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 등 12개이었던 불교NGO 단체가 우리는 선우,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등의 단체가 새로 생겨나면서 20여 개로 늘어났다. 또한 1996년에 180 여개 이였던 직장직능 신행단체가 350 여개로 두 배가량 늘어 난데다 육해공군군승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조계종전국포교사단, 대한불교경승단 등 22 개 이였던 전국단위 연합단체가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공무원불자연합회 등 60 여개로 늘어났다.

또한 청년회 단체의 경우,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불교대학생연합회, 각 주요 종단 청년회 등의 전국단위 청년회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밖에 없던 청소년연합단체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비로자나청소년연합회 등이 생겨난 것은 주목할 만 점이다.

권형진·박봉영·김철우 기자

주5일 근무 등 포교환경 변화

등록신자, 어린이·청소년불자 감소추세



삽화 · 김영민

기복서 수행·봉사 등으로 다양화

신도 고학력 추세…변화 요구 목소리

한국불교 어떻게 변해야 하나

◎종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을 확보해 내는 것이 근본이다.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그러한 비전에 동참하는 큰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종단들은 각각 추상적인 비전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현대 문명에 대한 소극적인 비판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불국토라는 개념을 우리 현실 속에 가까이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출가자 중심의 종단에서, 사부대중이 여법하게 어우러져 각각의 역할을 하는 좀 더 큰 모습의 종단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불교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계종의 경우 여전히 출가자 중심의 모습을 고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재가자의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는가가 하나의 큰 과제라 하겠다. 또한 출가자 중심의 종단 구조에도 비구니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출가자들의 공동체는 하나의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재가자들이 모델로 삼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종단 비구니위상…재가자 참여·역할 제고

◎사찰

사찰이 수행과 포교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사찰이 있는 위치 등과 관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앞으로 출가 승려 수가 점점 감소할 것을 예상한다면, 사찰의 운영과 관리 체계도 재가자들이 일정 부분을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공동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기적 안목에 의한 사찰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사찰재정 투명화 운동' 등과 연결하여, 사찰의 운영이 좀더 공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일정 부분이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단지 스님과 신도들이 활동공간이라는 개념을 벗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불교의 사회화'에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사찰로 거듭 나야 할 것이다.

사찰 불교사회화 전진기지로 거듭나야

그런 한편으로는 사찰의 수행환경 보호를 통해 수행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수행의 요람으로 남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도들에 대한 교육의 체계를 갖추어 보다 질 높은 신도들을 길러내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도 갖추어야 한다.

◎언론

불교 언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정보화 사회로 진행하면 할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교계의 언론은 타 종교와 비할 때 여전히 너무도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도 그 동안 교계의 신문들이 불교의 근대화를 위해 계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 하다. 보다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프로그램과 보도의 질을 높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언론 인터넷 확충…교계 새흐름 이끌어야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불교 언론이 종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지녀야 한다. 불교 언론이 교계를 위한 건전하고도 객관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독립적 재정구조를 갖기 위한 범종단적 지원과 제도정비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요즈음 정보화 사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망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다 많은 다수와의 양방향 교통이라는 틀을 통해 불교를 바꾸어 나가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의 등불 하나가 온 우주를 밝힌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Chogye sect of korea **HAN-MA-UM-SEON-CENTER**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101-62
전화 : 사무처(031)470-3100 팩스(031)470-3116
홈페이지 :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4구 산 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FAX : 064)721-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번지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55-342-6693~0 FAX : 055)345-9900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6-8163, 744-1321 FAX : 055)746-7825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FAX : 042)526-089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99
TEL : 054-275-3163 FAX : 054)274-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번지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555-8871 FAX : 054) 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 703-560-5166 / FAX : 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outh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6
TEL : 323-766-1316 / FAX : 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 FAX : 847-674-2280
-CANADA (캐나다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 FAX : 416-701-1359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ap. Fed. CP(1406)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921-9286
● Tucuma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Yerba Buena,
CP4107 Prv.Tucuman Rep. Argentina
TEL / FAX : 54381-425-1400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0)2131-969551 / FAX : 49-(0)2131-969552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711-2005 / FAX : 662-391-4378

일주문



한국불교태고원 이사장에

일우 청도 보현사 주지는 7일 한국불교 태고원의 새 이사장에 선출됐다. 부이사장에는 보안스님이 선출됐다.



동국대 교직원 수계법회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은 6일 동국대 강당에서 교직원과 학생 1370명을 대상으로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경북종무원장 취임식

혜공 대구 관암사 주지는 28일 오전 11시 대구 팔공산 갓바위 유스호스텔에서 태고종 경북종무원장 취임식을 갖는다.



감로심장회 신임이사장

승욱 고성 청련암 주지는 7일 진주 불교회관 법당에서 감로심장회 신임이사장에 취임했다.



교도소 재소자 위안법회

진성 선각종 총무국장은 8일 쌍용사 주지 선행 · 칠성사 주지 진제스님 등과 함께 광주교도소 재소자를 위문했다.



전국박물관인대회 개최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20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전국 박물관인 대회를 개최했다.

박형철 참의원장 별세 천태종 종단장 봉행



천태종 박형철 참의원장(사진)이 14일 서울 돈암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1927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박 참의원장은 55년 동국대를 졸업, 천태종에 입문하여 중앙신도회장, 대한불교회 이사, 기획원장, 종회의장,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원로원장, 참의원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 1979년 6월 <천태종보>를 창간하고 타계전까지 주간을 맡았다. 18일 천태종 종단장으로 영결식이 봉행됐으며, 삼척군 근덕면 동막리 선산에 안장됐다.

"포교 · 교육 · 복지 순조롭게 진행"

취임 1돌 맞은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



시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던 어린이 · 청소년 포교 및 지방포교 활성화에 대해 어린이교사 유급제 실시 등 몇 가지 가시적인 조치를 제시하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유능한 지도자를 육성은 물론 다양한

청소년 포교 지도자 양성 등 주력

"포교 교육 복지 등 종단이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각 분야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일로 취임 1년을 맞은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사진)은 14일 통리원에서 가진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을 이렇게 자평하고, 종조탄생 1백주년 사업을 비롯해 모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효암 통리원장은 특히 취임 당

프로그램 개발과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 분권화 역시 각 교구의 예산과 사업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과 서울 외 상대적으로 교단의 손이 덜 미치는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효암 통리원장은 정부인가 교육기관 등을 통한 제도권 교육 외에 인재양성 및 인성교육을 위한 종단내 각급 교육기관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 종도들을 위한 교육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신도조직 · 재정 寺格맞게 조정"

은해사 신임주지 법타 스님



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고 수행으로 자성을 깨치는 수행자의 본분을 되새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아무리 좋은 도량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중생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중생 제도는 요원하다"며 "은해사가 산중 사찰이기는 하지만, 포교에 앞장서는 원찰로 키워나가겠다"고

포교 앞장서는 원찰로 육성할 터

"열린 사찰 운영을 통해 은해사 사격에 맞는 신도조직과 재정구조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으로부터 제10교구 은해사 주지 임명장을 받은 법타스님(사진)은 포교에 역점을 둔 사찰 운영안을 제시했다.

법타스님은 "스님이라는 직분은 중생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낮춰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리"라며 "스님들은 계행에 어긋나지 않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해 불자들의 모범

말했다.

또 사회복지사업과 통일운동 등에 동체대비의 종교인 불교계의 참여 확대가 시급하다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96~99년 은해사 주지를 역임한 바 있는 법타스님은 "한번 더 무거운 짐을 준 데에는 지난 경험과 경륜을 살려 은해사 발전에 기여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면서 "추진력 있게 소임을 다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불법 통해 유학생활 도울 것"

뉴질랜드에 청소년 상담실 연 안종서 법사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한국 불교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종서(사진) 법사가 청소년 상담실을 새롭게 열고 한국 유학생들의 대부가 됐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준비를 위해 일시 귀국한 안 법사는 "유학 열풍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대거 모여들지만 그들이 학업에 충실하며 바르게 살도록 지도하는 시설이 많지 않아, 불교적 조서로 유학 생

집 윗층 법당으로 개조 전법 활동

활을 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상담실을 소개 했다.

6년 전 뉴질랜드로 간 안 법사는 1만 5천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는 오클랜드에 한국 사찰은 2곳인데 비해 한국교회는 100여 곳에 이르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법사와, 10년의 교법사(부산 해동고) 생활 경력이 안 법사를 회사 생활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

안 법사는 최근 문을 연 청소년 상담실을 통해 유학생들의 사생활에 대한 개인 상담과 현지 적응 교육, 영어 교육, 학습지도와 진로 상담, 가디언 쉽(현지 보호자) 및 홈스테이 안내 등의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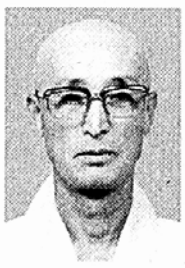
안 법사는 청소년 상담실의 불교적 심성교육이 현지 적응과 학업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화 64-9-419-6922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봉축법어

자비희사로 행복과 화합 이룩

인왕 여래종 종정



광대무변한 법계에 자비의 손길 주고자 오신 부처님 대소 강약 빈부이 평등대해도 일체중생에게 법향기 내려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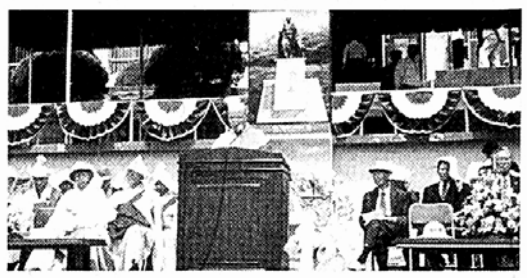
소아 소욕 다 버리고 너와 나 하나되어 공생공영의 법계(여래)의 자비희사로 행복과 화합 이룩하여 통일과 세계평화 이룩합시다.

수행자로 부끄럼없이 정진해야

무찰 일붕선교종 종정



화합으로 단결해야 하고 진리의 본 성품과 청정한 심성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령스런 광채가 현재의 나를 멀리 여의고 율의를 되살려 옛 조사 스님들이 개발한 찬란한 문화의 바탕을 뿌리로 삼고 현대사회에 알맞은 문화를 접목해 이 시대 수행자로서 부끄럼없이 살고 일하며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운허스님 존상조성 발기인 대회

운허스님 존상 건립추진위는 18일 경기도 광동고등학교에서 운허스님 존상 조성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회주 밀운 스님, 주지 일면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과 학생, 학부모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운허스님 동상은 내년 4월 8일 광동고에 세워진다. 일면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월드컵성공 기원탑 점등식

전북불교총연합회는 4일 전주 백제교 로터리에서 월드컵 성공 기원탑 점등식과 탑돌이 행사를 가졌다. 선운사 주지 법현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향산스님 등 6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금산사 주지 평상스님은 "월드컵을 잘 치르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자"고 말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북한이탈 주민돕기 바자회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12일 서울 종로 우정국로에서 북한이탈주민돕기 바자회를 열었다. '우리이웃 작은 평화나누기 2002-봉일씨앗'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바자회에서 나온 수익금 전액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실생활 체험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불자런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범스님 선시명상곡 발표회

'불음포교사' 지범스님(제주 불광사 주지)이 11일 부처님오신날 봉축과 독집음반 제6집 '부처님 마음' 발간을 기념한 선시명상곡 발표회를 제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가졌다.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 법화사 주지 시몽스님 등 1천2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스님은 '먼길' '봄꿈' '청산은 나를 보고' 등 15곡을 노래해 호평을 받았다.



2002년 사주백과 4.0 출시

2002년 5월 개발 출시된 사주백과4.0은 국내 역학프로그램 중 최고의 DATA 내용과 정확도를 자랑하는 전문가용 역학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0년간 전통문화연구원의 역학 팀에서는 수명의 역학전문가가 직접 DATA 작업 및 프로그램작업을 하여 보다 전문적인 역학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직도 만세력을 뒤적이십니까?
사주백과를 만나면
天命 이 보입니다.



사주백과 제품구성

1. 명리학 (원국, 용어, 예문, 학습, 해설)
2. 주 역 (원국, 년 · 월 · 일 · 시국, 해설)
3. 자미두수 (원국, 성격 및 특성해설)
4. 기문둔갑 (원국, 년국, 월국, 일국, 해설)
5. 성명학 (자동 / 수동 작명, 감명, 성명장)
6. 택 일 (결혼, 이사, 여행, 개업)
7. 오운육기 (체질, 일반처방, 처방실례)
8. 귀곡산명술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9. 토정비결 (월별, 금년, 내년의 토정비결)
10. 육효즉석점 (소망, 사업, 시험, 출산등)
11. 궁 합 (납음오행, 주역, 구성, 속궁합)
12. 당사주 (성격, 자녀운, 직업운, 성공운)
13. 해 몽 (사람, 동물, 식물, 죽음, 기타)
14. 부 적 (만사대길, 소원성취, 기타비법)

사주백과 사용환경

운영체제 : 윈도우 98 / ME / 2000 / XP
CPU 팬티엄 150MHz이상RAM 32M 이상
CD-ROM 4배속 이상, 하드 460M 이상
해상도 1024 X 768

사주백과 주요기능

1. 용신수정기능(천간, 지지, 지장간 구분)
2. 격국수정기능(자동 선정된 격국을 변경)
3. 강약수정기능(극신강/신강/극신약/신약)
4. 인쇄기능기능(원국 및 해설 내용 출력)
5. 해설편집기능(수정, 삭제, 추가, 저장)
6. 메 모 장 기 능 (상담내용 정리 및 저장)
7. 용어사전기능(명리관련용어 찾기기능)
8. 미리보기기능(해설 인쇄 전 확인가능)
9. 시간선정기능(조자시,야자시, 일반자시)
10. 사주입력기능(사주로 입력가능합니다)
11. 멀티테스킹기능(동시에 비교 감정 가능)
12. 만세력 기능 (썸어타임, 동경시차적용)
13. 고객관리기능(등록, 고객인쇄가 가능)
14. 가족관리기능(가족도 같이 등록 가능)
15. 검색 기능(이름, 성씨로 찾기가 가능)
16. 환경설정기능(상호, 작성자 설정가능)
17. 도 움 말 기 능 (사주백과 사용방법)
18. 작명자동기능(자동/수동 가능합니다)
19. 명리학습기능(동영상 역학학습기능)
20. 부적 기능(처방법, 출력가능합니다)

사주백과 활용분야

1. 전국 철학원에서 고객 상담시 상담화면으로 활용
2. 역학 동호회등 역학공부 하시는 분에게 연구자료 활용
3. 사회교육원, 역학학원, 역술협회에서 역학교육시 활용
4. ARS 1:1 전화운세 상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사찰, 포교원에서 신도관리 서비스용으로 활용
6. 출장 상담시 고객상담 화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문화센타 역학강좌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백화점, 결혼 정보회사에서 이벤트 행사시 활용
9. 사주카페에서 역학 상담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 인장 관련업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11. 한의업에서 사주와 사상체질 연구 분석시 활용
12. 생활상담 및 학생상담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경마, 경륜, 경정의 승부운 예측에 활용
14. 증권, 개인 투자시 매매투자 분석에 활용
15. 무속협회에서 신도관리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연구소, 역학학회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 합니다.
17. 보험, 여행사등 서비스업에서 고객관리시 활용
18. 풍수 및 장의관련 업종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9. 인터넷 화상 상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 부동산 중개업에서 이사 택일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연구원 www.dosa.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8-3 한컴벤쳐타워 7층 ● 구입문의 : (02)548-2527 / (02)826-2700 [구내번호 : 103] 018-325-8800 (각종 카드결제 가능!)

"'큰 뜻' 새기며 참회… 大悲의 문 여소서"

각계각층 불자들의 부처님오신날 발원문

깨끗한 기운 가득한 사회를

노옥섭(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사생의 자부이시며 우리의 큰 스승이신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저희 공무원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2년전 연합회 출범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환희심으로 받들고, 부처님의 대자대비함을 몸으로 실천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한 그 서원을 더 굳게 하고, 이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하옵니다. 저희들이 욕심내는 마음을 잘 다스려 이 땅에서 모든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밝고 깨끗한 기운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분별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 이땅에서 모든 대립과 반목을 없애고 서로를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고 따스한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내는 마음을 잘 다스려 이땅에서 모든 폭력과 다툼을 없애고 자비와 평화가 가득한 사회를 만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부처님의 크신 위력으로 우리 공무원 불자들이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국가와 사회발전의 큰 일군이 되게 하시며, 불국정토 건설의 역군이 되게 하소서. 자비하고 지혜로운 부처님, 저희의 서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비 완성위해 더욱 정진

김재성(고려대장경연구소 선임연구원)



존귀한 분, 공양받을 만한 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경배합니다.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맞이하며 몇 가지 마음의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삶을 바로 보고, 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 주신 부처님께 경배합니다.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좋은 결실을 가져다 준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법에 경배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꿋꿋이 정진하여 깨달음을 이루신 고귀한 스님들께 경배합니다. 스스로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라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계정혜(戒定慧)를 닦아 이 세상 그 어느 것에서도 자유로운 해탈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남을 지키는 것이며, 남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수행을 하고, 남을 지키기 위해 자비의 마음을 지니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되새기며,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 본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임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의 완성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편견없이 살 수 있게

조석영(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부장)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사찰을 쉽게 접근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여 집착과 번뇌가 없는 대자유인이 될 수 있게 사찰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우리 모두가 부처님 품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없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정진할 수 있는 굳은 의지를 주옵소서.

이제는 사회복지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 실천과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종사자들의 복지와 권익옹호를 위해 모두가 노력할 수 있게 살펴주옵소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공동체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뜻을 모든 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되길 부처님께 간절히 서원하오니 이 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살펴 주옵소서.

용기·꿈 갖게 하는 포교 확대

김대중(조계종 포교사단장)



인류의 스승으로 오신 부처님께 등불을 밝히고 향을 사르오며, 부처님과 인연되어 바른 진리를 알게 됨을 무한히 기뻐합니다. 포교사의 사명은 정법 포교에 있으며 포교는 바로 불교의 생명이며 오늘 우리 포교사의 서원입니다.

우리 포교사도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심을 근본으로 하는 연기의 세계관을 통해 이제 구원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어렵고, 잊혀지고, 고통받고 있으며, 힘들어하는 이웃의 곁에 포교사는 그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논산 훈련소에서 불교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한 구절의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합장하는 모습, 작은 '자비의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얼굴에서 우리는 불교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불교를 통해 바른 삶을 설계하여 용기와 꿈을 갖게 하는 아름다운 포교를 우리 포교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2546년 부처님 오심을 맞아 당신의 가르침을 축복하고, 늘 수행하면서 부처님 정법을 널리 펴는 포교에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하나라도 줄이는 자비행

배동호(법륜교수불자회장 · 영남대 교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도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과 더불어 하나인 나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정 무정 모든 중생은 하나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며 진리임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전하고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사바세계에 나투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오신 뜻을 받들고 마음에 새기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들의 세계인 생태계는 자연 순환 원리에 따라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게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진리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 우리 생태계에 많은 침해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진·치 삼독의 결과로 자연 순환계가 그 궤도를 벗어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땅이 죽어가고, 대기와 물이 오염되고 생물종의 수가 줄어들고, 기후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이 지은 업보로 생각하고 크게 참회하고 쓰레기 하나라도 줄이고 줍는 것이 우리 불제자들의 자비이고 보시이며 이것이 진정 신행이라고 부처님 전에 서원합니다.

부처님 정법따라 청소년 교육

엄범순(전국교사불자연합회 홍보부장)



부처님 오신날 맞이하여 전국의 교사불자와 파라미타 지도교사들은 부처님께서 사바에 나투신 큰 뜻을 다시 새기며 이 시대 이 땅에 부처님의 뜻을 꽃피우길 다짐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참회하고 발원하오니 대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초·중·고교의 교육취학률은 상승하여 현재의 100%에 가까우나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 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니, 교육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된 이 때 교사불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르겠나이다.

이 시대는 서구적 물질문명의 발전 속에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서구적인 가치관과 이념이 판을 치고 있나이다. 미천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잘못된 사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불자들의 수행과 정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사불자들은 학교현장에서 맑고 깨끗한 청소년들의 심성을 계발하여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자 불퇴전의 신심과 정진의 힘을 더욱 갈고 닦아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수호하려 하오니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재난·질병없이 나라 태평하길

이영자(신수회장)



자비심으로 중생을 이끄시고 지혜와 복덕으로 모든 장애 없애 주시는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

하늘과 땅 위에 나홀로 존귀하니 온 세상이 모두 고통에 휩싸여도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는 외치심이 온 우주에 울려 퍼졌으니 참으로 거룩하신 부처님의 공덕 미래세가 다하도록 법계에 두루 하오리다.

바라옵건데 시방세계가 두루 평화롭고, 조국의 국운이 날로 번창하고, 국민 화합과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슬픈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남북통일이 되길 발원하옵니다.

10여일 후에는 한·일 월드컵 대회가 열립니다. 온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일체의 국민적 서원이 모두 이뤄져 범국민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감응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와 햇빛, 바람이 순조로워 온 국민의 생업이 풍요롭고, 재난과 질병 없이 나라가 태평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모든 죄업 참회하옵고 정진하여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수호하려 하옵니다. 부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위신력으로 지켜 주시옵기를 발원하옵니다.

이 공덕 온누리에 회향하오니 모든 중생 바른길, 정법에 머물러 모두 해탈하게 하옵소서.

서로서로에게 좋은 벗 되도록

이지형(조계사 중고등학생회장 · 마포고2)



항상 자식들로 인해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즐겁게 웃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르치시는 노고보다 저희들의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시는 스님들과 선생님들께도 부처님의 가피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문제로, 부모님과의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학업문제로 인해 마음의 짐이 가중되기도 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도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은 성스러운 길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또래의 친구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게 하시고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벗을 찾기 보다는 좋은 벗이 되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제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볼 수 있는 사람, 화합을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물러나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불자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조실 석주
주지 원혜
신도회장 우보 안승기

사부대중 일동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가족과 함께 하는 도량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우135-090) 전화 : 종무소 02)511-6070~4

송암한방병원
Korea Medical Center

부설 수중체조교실

성장클리닉, 비만클리닉, 마비·척추 클리닉, 한방안과클리닉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이천만 불자님의 가정에 지혜와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두손모아 축원드립니다.

의료진 : 오덕수, 김승수, 조남훈, 오기남, 이동수

임직원 일동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5-2 TEL : 02-530-8200 FAX : 02-592-8244
www.songamclinic.co.kr

신행 캘린더

5월 22일 (수)

■자비신행회 '초청법회'=자비신행회는 법전스님의 상좌인 영주 대승사 주지 원인스님 초청법회를 오전 11시 인사동 홍사단 3층에서 봉행한다.

<피안으로 가는 노래>, <관세음보살 대비심다리니경> 등의 저자인 스님은 이번 법회에서 '신심명'을 강의할 계획이다.(011)776-3545

■극단 '학전블루' '그것은 목탁…' 공연=서울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이 연극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를 공연한다.

폭력배에게 가족을 잃은 한 조각가가 불교에 귀의, 불상을 조각하면서 진실한 삶과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며 번뇌와 해탈의 의미를 전한다.(02)766-8679



◇시각장애인들이 점자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은평도서관 '점자교육'='안 보이는 괴로움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서울은평도서관이 오전 10시 1층 문화교실에서 '점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9월 13일까지 매주 수·금요일에 진행되는 이 점자교육 프로그램은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증진과 시각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02)385-1671

5월 24일 (금)

■서울판화미술제=한국판화미술진흥회는 28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 전관에서 '서울판화미술제'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는 15년 동안 지하철 '풍경소리' 포스터 판화를 제작해온 강행북 씨의 '달마도', '다선일여', '나무석가모니불' 등 작품 15점과 원로 판화가 황규백 씨를 비롯해 임병증, 박선주 씨 등의 작품 200여 점이 선보일 예정이다.(02)518-6323

5월 25일 (토)

■수원포교당 산악회 '등산대회'=전라북도 부안 내변산 내소사, 직소폭포, 옥녀담을 찾아 떠난다. 아름다운 변산반도의 절경 속에 위치한 창건한 천년고찰 내소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혜구스님이 창건한 천년고찰. 이번 여행의 출발은 오전 7시 수원 북문 농협 앞이고 참가자 제한은 없다. 동참비는 2만원.(017)239-0471

■안상수 '한글디자인전'=홍익대 안상수 교수의 한글 디자인전이 서울 로댕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한글 주련', '한글 만다라', '한국의 이미지-관음의 얼굴'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한글 주련'은 성철스님과 광덕스님의 법문을 발췌, 불교의 깨달음을 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02)750-7818

5월 26일 (일)

■용진신행회 '청량사철야기도'=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를 찾아, 철야정진 기도를 봉행하는 사찰순례 여행.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종이로 만든 지불(紙佛)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청량사에는, 공민왕이 직접 쓴 '유리보전'이라는 현판이 있다.

이번 성지순례의 출발은 오전 7시 을지로 6가 국립병원 앞. 참가비는 4만 5천원(02)2279-1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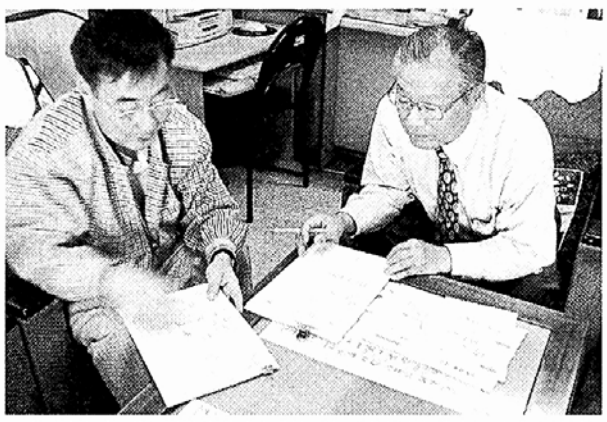
■광주 불교대학 '불교문화 유적답사'=부산 불교의 대가람 범어사와 수로왕릉비, 허황후릉, 파사석탑, 조선대 마애불….

부산·경남 지역 불교유적을 둘러볼 이번 답사 여행의 출발은 오전 8시 광주불교교육원 앞. 참가비는 성인 2만 3천원.(062)228-9098

10년 기도…3000일 회향 눈앞에

우리 절 우리 신도

남양주 봉선사 김순경 신도회장



◇봉선사 신도회는 회장이 아니라 임원들이 중심이 돼 운영된다. 김순경 회장(사진 오른쪽)이 부처님오신날 봉축대법회 준비와 관련한 임원 회의 결정사항을 총무부장에게 들으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4월 30일 오전 11시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설법전. 제24기 불교교양대학 수업 시간에 뜻밖의 손님이 강사로 나섰다. 바로 이 절 김순경 신도회장의 특강이 있는 날이다. 교양대학 1기생이기도 한 김순경 회장은 80년대 초 포교사 시험을 통과하고 수락산 내원암에서 18년간 법회를 주관하기도 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봉선사 신도회장을 10년째 맡고 있는 돈오 김순경(74) 회장을 처음 보는 사람은 두 번 놀란다.

우선 '일흔 넷'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젊다는 데 놀란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나이를 뛰어넘은 왕성한 활동력이다. 교구본사라는 큰 사찰의 신도회장을 맡아 사중의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고, 임원 수련회까지 직접 챙긴다. 더구나 아직도 조그만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구리문화원장 일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젊은 사람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이 날의 '대화' 주제는 '연화장 세계로 가는 길이 어디인가?'

김순경 회장은 "먼저 살아 본 늙은이의 경험으로 볼 때 성내거나 욕심내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사는 길이 연화장 세계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나이에도 지칠 줄 모르고 사는 것도 집착하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젊게 사는 비결을 터득한 것은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온 기도 덕분이다. 사람들을 진짜 놀라게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성낸 가족 그날 저녁 굶기' 가정규칙
"생활불교 집집의 가풍으로 이어졌으면"

1992년부터 시작한 기도가 500일, 1000일을 지나 1500일, 2000일을 훌쩍 넘었다. 이제 3000일 회향을 앞두고 있다. 이 날도 김순경 회장은 새벽 3시에 일어나 경전 독송과 참회 기도로 하루를 열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한 것은 회사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간신히 부도 위기를 넘긴 후 세계적인 메이커로 성장해가자 '부처님 가피'에 감사드리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나섰다. 불법은 혼자 익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000일을 이어가는 동안 김 회장 집에는 독특한 규칙이 하나 생겼다. 어떤 이유에서든 화를 낸 사람은 무조건 그 날 저녁을 굶기로 한 것이다. 성내거나 화를 내는 것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취지에서였다. 온가족이 독경과 사경으로 1000일 기도를 회향한 일은 봉선사 스님들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2000일을 넘기면서부터는 마음가짐도 변했다. "의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나와 인연 맺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제대로 전했는가를 반성하게 된다"며 "이런 생각이 들고나서부터는 회사 일도, 신도회 일도, 문화원장 일도 욕심부리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신도회 일에도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기 보다 임원들이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회장 역할임을 강조한다. 유명무실하던 신도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도회를 조직하고, 운영에 필요한 회칙이나 규정을 만들고, 임원 수련회 등을 통해 임원 스스로 열의와 덕목을 갖춰 나가도록 도와준 것도 김 회장이다.

요즘 김순경 회장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신도회가 앞장서서 생활 불교, 가정 불교를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에 있다. 김 회장은 "가정 불교, 생활 불교가 확산돼 가야 하는데, 기복신앙에 치우치니까 그게 잘 안 된다. 생활불교로 가기 위해서는 혼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풍(家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권형진 기자

추천의 말

일면스님 봉선사 주지



교종본찰 봉선사는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익힘은 물론 익힌 것을 실제생활에서 올곧게 실천해 가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구본사의 신도회장이란 어려운 소임을 마다하지 않고 힘을 써오신 돈오 김순경 불자는 그러한 신행을 본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가족, 나아가 이웃들과 함께 실천하는 데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계십니다. 특히 온가족이 독경과 사경으로 천일기도를 회향한 일화는 사중의 스님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했던 신도회를 활성화하는 데 노역을 마다하지 않고, 임원 수련회 등을 직접 관장하며 전가족 불자화에 혼신의 애를 쓰는 모습에서 몸에 밴 신앙의 힘이 사람을 얼마나 젊게 살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누구나 전법사

5월-전법의 달

- 전법의 공덕
- 포교도 수행이다
- 온 가족이 '포교사'
- 누구나 전법사



◇김태제씨는 전법을 위한 공간인 경기불교문화원을 4월13일 개원했다. 사진은 현판식 모습.

"포교는 불자의 기본의무"

전법은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적 실천이며, 수행의 한 과정이다. 불자들은 누구나 전법사가 될 수 있다. 아니, 마땅히 되어야 한다. 보시 바라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수없이 법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김태제(45) 경기불교문화원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불자다. 그의 신심이 부인과 1남 2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당연하다. 20여년의 직장생활 동안에도 그는 동료나 부하직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수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로써 또는 묵언의 행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들에게 포교는 권리가 아니라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난 4월 13일 경기불교문화원을 개원했다. 경전, 전통문화 등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큰스님 초청법회 등 불교 대중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불교연합회를 비롯한 20여 재가 신행단체들도 이 곳에 입주시켰다.

그가 오랜 숙원이었던 경기불교문화원 봄사를 주도한 이유는 직장생활로 인해 사찰에 찾아가지 못하는 재가불자와 불교에 관심을 갖고도 사찰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다. 평소 전법활동을 실천했던 자신의 삶을 경기불교문화원을 통해 확장시킨 것이다.

"부처님 법을 이 사회에 올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출가자 뿐만 아니라 재가 불자들이 올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경기불교문화원을 개원했습니다."

부처님은 전법 선언을 통해 전법의 목적과 방법, 법을 전하는 자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전법의 길을 떠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뜻과 문장이 훌륭한 법을 설하라. 오로지 깨끗한 청정한 범행을 설하라. 눈에 티끌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지고 있다. 그들을 위해 가르침을 펴라."〈전법륜경〉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은 이같은 부처님의 전법선언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이 투철한 인식과 불자다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박봉영 기자

자연의 맛 229가지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한국인의 건강식 사찰음식

"음식을 약으로 대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때에 맞는 음식을 먹어라. 제철의 음식을 먹어라. 골고루 섭생하라. 과식은 금하고 육식은 절제하라. 2천5백년 전 이미 최고의 영양사였던 부처님이 경전을 통해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사찰음식은 단순한 식도락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식, 자연식인 동시에 정신까지 맑게 해주는 선식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가득한집 가정생활문화지
designhouse INC.
www.design.co.kr • www.homeliving.co.kr
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6-210 tel. 02-2275-6151 fax. 02-2275-7885

올컬러 양장본 | 240쪽 | 값 13,500원

눈물이 찔끔 가슴이 두근 010권
운주사의 하얀도깨비



"부처님, 제발 못생긴 은희의 얼굴을 고쳐 주세요."

제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세상 사람들 때문에
꼼짝 않고 천년을 누워 계셨던 부처님이
어느 날 벌떡 일어난 사연, 궁금하지 않나요?
도깨비 마을에서 쫓겨난 구박덩어리 하얀도깨비가
참된 우정으로 부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에
이 책을 선물하세요.

디자인하우스 세상에 꼭 필요한 좋은 책을 만듭니다
designhouse INC.
www.design.co.kr • www.dhbook.com
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6-210 tel. 02-2275-6151 fax. 02-2275-7885

지은이 김자환 | 그린이 김태환 | 올 컬러 | 값 7,500원

타종교인들의 '내가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

개신교계에서도 상당한 지명도를 갖고 있는 이현주 목사는 지난해 〈금강경〉 해설서를 펴내 불교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삭발하고 스님들과 함께 앉거에 드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공부하는 신부, 수녀도 있다. 이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내밀한 고백은 우리가 모르던, 혹은 알고도 지나치기 쉬웠던 불교의 또 다른 진면목을 일깨워 줄 것이다. 또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에서 갈등 많은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갈 해법도 엿볼수있을 듯 하다.



이현주
목사

절로 고개 끄덕여지고 마음편해져

나는 국수를 좋아한다. 국수라면, 어떤 국수라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냥 좋다. 이유야 어찌 없을까만 본인이 잘 모르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가끔 불경을 읽고,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내세울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그냥 좋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사실, 이 나라에 태어나 살면서 자기는 불교와 아무 인연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 아니면 무지다. 나는 1944년에 태어났지만 그 전에도 이 땅에 살았다. 내 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천지 같은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한테서 나온 것인 줄을 알기에 하는 말이다. 내 부모가 산 곳은 내가 산 곳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절에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 지냈으면서 인연이 없다고 말하면 그게 억지 아니고, 무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내가 혹시 먼 옛날 산 속에서 불도를 닦던 수도승이 아니었을까 가끔 생각한다. 불경에서 읽는 단어나 개념들이 어색하지 않는 까닭이 그래서일까? 모를 일이다. 하지만 우리 조상이 겪었던 모든 일이 내 몸에 유전자 형태로 간직되어 있음은 과학이 입증해 주고 있지 않은가.

아무튼 나는 이번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 운명이라면 운명인데, 이 운명을 나는 사랑한다.

그 예수 스승님이 내게 석가모니 스승님을 소개해 주셨다. 덕분에 요즘 나는 석가모니든 예수든 그건 '이름'일 뿐이고,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한 분이(하나가) 존귀할 뿐임을 조금씩 감(感)으로 알아 가는 중이다.

스승께서야 당신 일을 하신 것이겠지만 나로서는 고맙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영석SJ
예수회 수사

나를 해방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서 불교는 열린 사유의 장이다. 부처님 재세시 이래 불교는 늘 열린 마음으로 외도들과도 법의 정수를 나누어 왔으니,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학 시절 읽었던 〈묘법연화경〉은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속에 신비하리 만큼 유사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제4품 '신해품(信解品)'의 '장자궁자(長者窮子)'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잃었던 아들(탕자의 비유)'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두 이야기 속에 상이한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 밑바탕에 흐르는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종교의 종교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점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나는, 불교나 그리스도교나 영적 각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적 해방도 지향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란 물음에 두 종교 모두 '자기 인식'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라고 선언하고 있다. 불교는 '일승묘법(一乘妙法)'과 '무상(無常)의 진리', 즉 공(空)이라는 법(法)이 자아를 부정하고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리스도교 역시 '사랑 받는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과 '하느님의 사랑'이 자기 부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 가르친다.

내가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나를 해방시키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때문이다.



최현민
사랑의 씨튼 수녀회

방황하는 현대인에 참 갈길 제시

나는 학문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불교학도이지만, 불교학도이기 전에 수도자로서 수행전통을 지닌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내가 불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자 마음먹었던 것은, 단순히 학문적 접근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보다 수도자로 살아가는 나 자신의 삶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쪽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

수행 전통을 중심으로 한 불교는 수도자로서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되묻게 만드는 또 하나의 화두로 다가온다.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묻고 또 묻는 수행자들이 있는 불교는 그래서 내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불교는 참선수행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를 존재의 진리로 초대하고 있다. 세상풍파에 시달려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방향감각을 잃은 채 떠밀려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참선은 자신의 존재성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한다.

이러한 수행의 길이야말로 불교가 참종교로서 그 맥을 이어오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교적 진리가 나로 하여금 불교를 단순히 내 밖의 타종교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초대하여 그 세계에 깊이 심취하게 만든 이유며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이유다.

혼탁한 사회에서 종교가 해야 할 일은 그 혼탁함이 남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임을 자각케 하는 일이다. 이를 자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고요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일일 것이다. 현대인들이 불교의 선수행에 관심을 갖는 것도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금 정화해 보려는 내적 갈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 많은 이들이 그 길에 동참할수 있도록 보다많은 참선수행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해 본다.



박차귀
천도교 부산시 교구 여성회장

마음에 위안, 은근·강한 설득력

불교는 마음 공부를 하는 종교라고 알고 있다.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켜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종교인 불교는 그래서 아주 은근하면서도 강한 설득력을 가졌다.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산사가 인간에게 주는 마음의 위안 같은 편안함, 불교는 그런 은근한 공감을 가능케 하는 큰 장점을 가졌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에서 활동하면서 나는 여러 종교인들을 만나는데 특히 불자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불자들을 만날 기회가 잦은 편이다. 내가 자주 만나게 되는 불자들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매력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것은 나보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자비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불자들의 그러한 실천행은 자신의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나 스스로의 마음 공부에는 철저한 불교의 저력이라고 여겨진다.

불교에서 한가지 인상적인 것은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대외적인 활동면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종교로서의 불교 저변에는 항상 어머니가 있었다고 느껴진다. 며칠 전 만났던 택시기사는 자신이 운전불자기사회 회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원래 기독교 신자였던 자신은 어머니와 아내 덕분에 불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역할과 비중은 매우 크면서도 인상적인 것이다. 여성분과의 일을 맡아 여성종교인들의 힘을 결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나에게는 불교의 최대장점이 여성불자들의 활동으로 보인다. 앞으로 불교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조직화, 체계화되면 불교는 보다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한다.



김대벽
사진가

"불교 보려면 선방에"…스님말 못잊어

나는 사진가로서 그 동안 많은 출판 매체를 통해 불교 관련 사진들을 발표한 관계로 이들 사진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가로 알려져 있다.

내 사진이 채택되는 이유는 자료가 많기도 하지만 순수한, 불교적 친근감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사진은 마음의 기록이다. 특히 불교적인 내용의 피사체들은 그 자체의 오랜 역사성과 깊은 내면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느낌을 영상화해야 한다.

60년대 초 학생 잡지 〈학원〉 사진부장으로 일할 때 해인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일주문 앞 마당에서 탑돌이 하는 여인들이 있기에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삿갓을 깊숙이 쓰신 노스님이 다가오시더니 "무엇을 찍소?" 물으신다. 얼추 탑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어서(그때는 '탑돌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불교를 찍으려고 합니다"고 대답했더니 스님께서 "그건 불교가 아니오" 하신다. 순간 그 한 마디가 나를 크게 자극했다. "스님, 불상도 아닙니까?"

"그렇소. 불상도 아니오. 불교를 보려거든 선방에 들어가 보시오."

이후 나는 절에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스님과의 대화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모태로부터 기독교인으로, 신학도 공부했고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직임도 맡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불교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접하면서 촬영하는지도 모른다. 불교뿐 아니라 우리 민중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무속이나 민간신앙에도 깊은 관심으로 접근해 촬영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수천년 이어온 한국인의 심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진홍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산사에서 듣는 '고요의 소리' 좋아

'부처님 오신 날'이면 늘 절을 찾는다. 불자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사람은 잘 채워진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 빈 구석이 어딘지는 있게 마련이다. 나도 때로 소리에 지칠 때가 있다. 평생 낫지 않는 이명증(耳鳴症)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노라면 당연히 번거로운 일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귀가 잠잠하지 않으면 괴롭다. 마음이 번거로워지고 가슴이 답답하다.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가끔 귀를 막아보지만 소용없다. 고요와 적막에의 그리움, 혹은 목마름이 이렇게 간절할 수 없다. 고요가 없는 텅 빈 삶을 소음이 채우고 있다는 것은 휑 빈 구석의 역설적 현존이다.

그래서 가끔 산사(山寺)를 찾는다. 어쩌랴. 어차피 나 스스로는 되지 않는데, 그렇게 산사를 방편 삼아보는 무엄함을 저지를 밖에.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이면 더 좋다. 거기서 고요를 듣는다. 그러면 조금은 이명증이 가시는 것 같다. 그렇다고 소리가 없지는 않다.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소음이 없을 까닭이 없다. 적막이란 마음이 빚는 것이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짐작 못하는 바 아니다. 그래서 거기 그 소음에 짜증낼 만큼 어리진 않다.

분명한 것은 쇳소리와 나무소리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내 이명증은 나무소리에는 착하다. 설법의 소리가, 목탁의 소리가, 독경의 소리가, 그리고 범종의 소리마저 쇳소리이기를 그만 둔 소리일 때, 그 고요의 소리가 나는 좋다. 불교가 그래서 좋은지, 아니면 그러기를 바라는 마지막 자리라고 믿어 좋은지 모르지만.

아미타불을 친견, 직접 극락을 다녀오다!

중국 관정 큰스님의 6년 5개월 극락체험기

화제의 신간



극락은 있다

석관정 지음 | 대주 옮김 | 신국판 | 정가 8,000원

실화 체험기



"실제로 내가 서방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은 대략 스무시간 정도라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6년 5개월 지나있었다"

본문 중에서-

극락세계 체험의 내력 / 도솔천에서 스승 허운화상과 상봉

미륵보살의 설법 / 아미타불을 친견 / 하품·중품·상품연화

아미타불의 부촉 / 인간세계로 돌아오다 ……

관정 큰스님은 현재 중국 복건성 선유현 적수암사에 주석하시면서 미국·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을 순회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좋은 佛書 좋은 佛子를 만드는- 붓다의마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9 갤러리상 405호 ☎ 02)722-0292~3

아함경 ①

설산 스님의 그림 에세이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알몸으로 와서 일구고 살다
수의 한 벌 얻어 입고
어느 곳으로 가느냐?

신국판 / 208쪽 / 값 9,000원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圖書出版 三善 전화 02)762-5166~7 · 팩스 02)762-3973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용 운 사

주 지 일 우

신 도 일 동

■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596번지
☎051)327-7109

보 덕 사

주 지 정법인

대 중 일 동

■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산 96
☎ 051)518-7790

홍 제 사
황 령 선 원

선원장 혜 국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 3동 산 51-2번지
☎ 051)802-0130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포교당
원 광 사

주 지 석 우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74-12
☎ 051)501-6025

대한불교 조계종
범어사 **금 강 암**

주 지 정 만

신 도 회 합 장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
☎ 051)508-4509 FAX 051)508-4870

대한불교 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홍 덕암
주 지 지원
원 장 설곡
신도회장 홍관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61
☎ 051)624-3754 / 623-3648

대한불교 조계종
청 량 사

주 지 현 엽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445
☎ 051)271-2774

우담바라 핀 아미타불 성지
운봉산 **백 운 사**

주 지 마 나
신도회장 강공덕화
성불회장 신부기
부 회 장 김숙정 이윤선 이금월
총 무 김경덕화

신 도 일 동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2동 산 136
☎ 051)542-4630

대한불교 원효종
아미산 **대 성 사**

(무형문화재 상쇠제6호 기능보유자)

주 지 효 담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2가 233번지
☎ 051)256-3174 / 051)242-3460

대한불교 해탈종
대왕산 **대 원 사**

주 지 석성문
신도회장 김 순 자
부회장 송 숙 이
총 무 전 영 자

사 부 대 중 일 동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99-1
☎ 051)583-5792

영 주 암

〈부설〉 양정 청소년 회관
영주암 유치원
관음 어린이집

회 주 불국 정관
주 지 법산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950번지
종무소 ☎051)754-2210 유치원 ☎051)754-6120
어린이집 ☎051)755-2888 회관 ☎051)868-0750

봉래산 **미 룡 사**

부산불교자비원 (자비의 전화)
불교사회문제연구소 (무료법률상담소)

주 지
원 장 김정각
이사장 김성길

■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번지
미 룡 사 ☎051)404-2100, 4300
자 비 원 ☎051)403-4848, 4841
자비의전화 ☎051)403-4861
FAX 051)403-4860

(사)한국불교 미륵종
금 강 사

(부산교구 종무원장 주석사찰)

고 문 혜 경
약사회장 정자광심
관음회장 문청정화

신 도 일 동

■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976번지
전화 054)293-0137

통도사 마산중앙포교당
정 법 사

부설 대자유치원
도솔유치원

주 지 지 태

사부대중 일동

■ 경남 마산시 추산동 65-1
TEL : 055)246-8393 / 055)245-6544

삼천불 봉안 불사도량
정 토 사

부설 정토불교대학
정토간병회

주 지 덕 진

사부대중 일동

■ 울산시 남구 옥동 803-5번지
TEL : 052)274-3800

옥 련 선 원

(부설)옥련유치원

회 주 현 진
주 지 상 훈
신도회장 김상식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27-2
☎ 종무소 051)757-9066~7
유치원 051)754-2223

대한불교
조계종 **문수사**

부 설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 홍
주 지 지 원
원 장 설 곡
신도회장 김홍관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61-3
TEL : 051)624-3754 / 623-3648

사단법인 법연원
법 연 사

회 주 조 연

■ 부산시 연제구 연산 4동 588-6번지
TEL : 051)868-7733

봉래산 **미 룡 사**

불교사회문제연구소(무료법률상담소)

원장
주지 김정각

■ 부산시 영도구 동삼 1동 323-194 번지
TEL : 미룡사 051)404-2100/4300
자비원 051)403-4848/4841
자비의 전화 051)403-4861
FAX : 051)403-4860

대한불교조계종
동 명 불 원

주 지 장 산
신도회장 이자성심

대중일동 신도일동

■부산시 남구 용당동 507번지
☎ 051)624-7667

대한불교 조계종
영 광 사

주 지 우 담

신 도 일 동

■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2가 131의136
☎ 051)416-7068

부 산 광 역 시
동구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최경담
수석부회장 김지산
상임부회장 이용담

감 사 혜인 기획 주청봉

회 원 일 동

■부산시 동구 초량 6동 754번지 (구봉사 內)
☎ 051)468-4937

대한불교조계종
금강불교아카데미

원 장 석지형

동 문 일 동
회 원 일 동

■부산시 남구 대연동 172-5
☎ 051)621-8548, 051)621-8549

부 산 광 역 시
금정구사암연합회

회 장 계 전

회 원 일 동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397번지 (국청사)
☎ 051)517-5003

부산여성불자회

회 장 왕선자
부 회 장 이윤목 허명애 심신애
총 무 류경자 재우 김지언 강사 이경월 이소연
교 화 이복선 심춘자 운영 하영조 박정연 조정숙 김경자
장학위원장 홍말연

이 사 각구지회장회원일동

■ 부산 진구 부전 1동 370-34 화엄회관 2층
전화 051)809-3166, 817-3166 / 팩스 051)806-4766

부산 백합 꽃 도매센타

전국으로 세계로 –
비씨카드(꽃) 통신판매

대 표 장복녀

■ 부산시 서구 초장동 79-6 9/1
TEL : 051)246-2461 / 246-2971
FAX : 051)247-2103

푸른 산사의 풍경소리에 젖는 청년들
부산청년불자산악회

회 장 김종성

회원 일동

매월 둘째 일요일 부산불교회관앞 출발

■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 1320-49번지 2층
TEL : 051)851-5209 FAX : 051)851-5210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합 창 단

단 장 최명학
총 무 김종희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1
TEL : 051)403-7077
홈페이지:www.hanmaum.org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

◆1인예금 5천만원 정부 보장
◆비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예금취급
◆담보, 신용대출 신속 처리
◆공제(보험) 판매
(자동차보험,암,자녀안심 등)

■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 1동 847-18
(건축사회관 1층)
TEL : 051)633-9120~3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법 형 제 회

회 장 박해일
부 회 장 이인상
교화부장 손문재
총 무 김종희

회 원 일 동

■ 부산시 영도구 동삼 1동 중리 522-1번지
TEL : 051)403-7077
홈페이지 WWW.hanmaum.org

학교법인 영축학원
해 동 고 등 학 교

이사장 조 성 파
교 장 김 명 배

교 직 원 일 동

■ 부산시 사하구 괴정 1동 613번지
교장실 051)204-4441 교무실 051)204-4443
행정실 051)204-4442 FAX 051)203-8399

학교법인 금정학원
금 정 중 학 교

이사장 백준기(성오)
교 장 유기윤

교 직 원 일 동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85
법인실 051)517-3981 교장실 051)517-3983
교무실 051)517-3984 행정실 051)517-3986

불교총지종 종립학교원
동 해 중 학 교

이사장 수성 최봉해
교 장 강경증

교 직 원 일 동

■부산시 동래구 명륜 2동 8-25번지
교장실 051)552-0011 교무실 051)555-4456~8
행정실 051)556-0281~3
FAX 051)553-9234

재단법인 **보 현 장 학 회**

이 사 장 정 여
상임이사 각 우
이 사 정현 심금조 김석조
감 사 여현 정만
사무국장 이욱태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산 57
☎ 051)403-7096 FAX(051)403-9810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청년회**

불성의 근본자리에는
나와 너의 나눔이 없습니다.
일체가 하나입니다.

청년회원 일동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1
TEL : 051)403-7077
홈페이지:www.hanmaum.org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우담바라개화 4.8친견법회
달음산 **대 도 사**
주 지 범 천
신도회장 이임상 오정순 전임자
사 무 장 황재택
신 도 일 동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200
☎ 051)721-7580

통도사부산포교원
大廣佛敎大學
(사)한나래문화재단
부설 : 시민선원, 문화관, 부산연꽃
울산보리수, 김해연꽃어린이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051)816-2241,816-2245 FAX 806-2430
Home Page : http//www.BusanBuddhism.org

고속철도노선변경요구!
청성산 **내 원 사**
동국제일선원
주 지 혜 등
사 부 대 중 일 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291
☎ (055)374-6467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올바른 신행생활의 길잡이
감로사 불교대학
- 제2기 기본교리반 모집 중 -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동 33
전화 051)809-0926 / 803-0188 (팩스 겸용)
부처님의 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3동 36-7
전화 051)628-6737 / 팩스 628-6562

삼천불 봉안 불사 도량
정 토 사
〈부설〉 정토불교대학
주 지 덕 진
신 도 일 동
■ 울산시광역시 남구 옥동 803-5번지
☎ (052)274-3800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부산분원
관 음 사
사 부 대 중 일 동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9-2 ☎ 294-9300~1, 9305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두 송 종 합 사 회 복 지 관
재 가 복 지 봉 사 센 타
다정한어린이집 · 두송경로당
■부산시 사하구 다대 2동 96-1(도개공4지구 아파트內)
☎ 051)265-9471 FAX 051)265-9475

대한불교 조계종
대운산 내원암
울산남구노인복지관
주 지 관장 종선
사부대중일동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12
전화 052)238-5088
팩스 052)239-0388

사회복지법인
보 현 도 량
이사장 정 여 부이사장 심금조
이 사 여현, 청평, 김석조, 정만, 묵화
감 사 정오, 정암
사무국장 정득보
■ 부산 금정구 서 1동 302-1885
전화 051)531-9887 팩스 051)531-9888

보 타 원
고 암 장 학 회
〈부설〉부산선불교교육원
회 주 보 광
원 장 동 수
신 도 일 동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578
☎ 051)243-0048~9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학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대한불교 조계종 **동 산 반 야 회**
회 장 김재일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한국불교합창단연합회
회 장 백대일심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협회장 허정화 (서울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총 무 맹용회 (인천, 경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감 사 박성자 (대전, 충남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위 원 백대광 (대구, 경북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류은희 (울산, 경남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주용직 (광주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전 국 합 창 단 원 일 동

부산여성불자회
회 장 왕선자
부 회 장 이윤옥 허명애 심신애
총 무 류경자 재무 김지언 감사 이경월 이소연
교 화 이복선 심춘자 운영 하영조 박정연
조정숙 김경자
장학위원장 홍말연
이 사 각 구 지 회 장 회 원 일 동
■ 부산 진구 부전 1동 370-34 화엄회관 2층
전화 051)809-3166, 817-3166 / 팩스 051)806-4766

(사)파 라 미 타
부 산 청 소 년 협 회
총 재 성 오 사무총장 지 종
협회장 김석조 고등부지회장 김창오
중등부지회장 정종근 사무국장 이욱태
총무과장 윤나영
■ 부산 진구 양정 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전화 051)853-2445

대한불교조계종(신도교육전문기관 갑종)
부산불교교육대학
운영위원장 혜 총
학 장 이하우
직 원 일 동
■ 부산 진구 양정 2동 157-1 부산불교회관4-5층
전화 051)867-9944

부산 조방 연등회
고 문 정 각
지도법사 혜 륜
회 장 조정헌
하판도
수석부회장 장일선
보현의 집 가족 일동
자유시장, 평화시장, 보석상가, 디자이너 클럽,
녹십초알로에부산본부, 부산불교방송,
부산불교신협,한빛은행, 반야원, 약불사

부산불교거사림
회 장 김 정 도
회 원 일 동
■부산시 진구 부전1동 390-34 통도사포교원 內
☎ 051)805-1280

부산광역시 불교법우회
회 장 최익두
부회장 배수태 천인복 박영세
총 무 박이봉
회 원 일 동
■ 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1000번지
☎ 051)888-2772, 3300

부경대학교 불교교수회
지도법사 혜 총
회 장 하만경
부 회 장 배재덕 김성빈
이 사 구철회 김인철
감 사 이원재 최정윤
■ 부산시 남구 용당동 산 100
☎ 051)620-1597, 1493

(사)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
회 장 황 국 근
수석부회장 유 상 영
외무부회장 손 정 현
내무부회장 오 세 회
사 무 국 장 하 재 훈
상 무 위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2-1 서강빌딩 402호
☎ 051)467-5241 FAX 051)467-5181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 장 백대일심
총 무 정무설경
재 무 박만월심
운영위원 김선희 김소례 민보마
오보원행 정분이 이향순
■ 부산시 진구 양정 1동 불교회관 301호
☎ 051)867-0501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부산불교실업인회
회 장 박수복
고 문 강병증 서춘석 최용원
상임부회장 김윤환
부 회 장 김종태 박영근 이근철
이상태 하문원
감 사 박수관 배영호
회원 마야부인회일동
■부산시 진구 부전1동 397-44
☎ 051)818-9914 FAX051) 818-9916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 부산지역회
회 장 조홍인 사무국장 윤영삼
총무부장 이부기 조직부장 배기홍 기획부장 강신철
반야지부장 김태영 부지부장 손경수 총무 강길용
버스지부장 김창범
회 원 일 동
■ 부산시 남구 용당동 507 동명불원내(운불련)
전화 051)627-1869 팩스 051)626-7498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 산 보 현 의 집
"나누는 기쁨 넘치는 자비"
원 장 이기표(眞空)
과 장 정홍희
보현의 집 가족 일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 3동 1421-6
전화 051)506-0146 / 051)501-9444
전송 051)501-9443
http://www.bohyun-home.or.kr

"척은 보시와 정성으로 큰공덕 이루소서"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설 환희지 복지원
원 장 박주천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전화 051)867-9944
부 산 은 행 : 098-12-034926-8
농협중앙회 : 1066-02-016677
예 금 주 : 박주천

"인간존중의 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 양방 협진의원
부산불교한의원
부산불교의원
원 장 정 중
■ 부산불교회관내 3층
전화 051)758-8157

자비실천 봉사회
자비실천 찬불가회
회 장 한영옥 지도강사 금정미
찬불가, 가요, 가곡등을 무료지도합니다.
부처님 법향 가득한 찬불가 속에서 불심을
키울 분들을 기다립니다.
또한 자비실천봉사회에서는 양로원, 교도
소 등을 방문 부처님 법을 전하는 봉사활동
을 펼치고 있으니 대자대비를실천하는
길에 무루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TEL : 051)898-1547 · 011)859-1547

역대조사 채취탐방기도
정법포교자비봉사 보살행실천하는
부산불교불심회
지도법사 장인단
회 장 김소희 성지순례회장 전인애
부회장 권명수 정정순 김선희 전숙영 손순영
감 사 최경자 권화옥
이 사 장연희 유순심 임영숙 김수인 오영애
오귀덕
총 무 임화자 재 무 이복희
■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67-58 ☎ 051)504-4006

황 실 의 상 실
대 표 황순조
■ 전화 051)248-0269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세상"
무궁화 하이테크(주)
무궁화 전기(주)
대 표 조희철

대한통운 주유소
대 표 박상엽
■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305-1
전화 033)645-2304

무량수 불교용품 기획 · 차 전문점
불교전문기획출판회사 보안기획
대 표 주영배(普眼)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1가
151-3(거상빌딩 4층)
TEL : 051-255-5675, 0502-255-5675
FAX : 051-255-5676, 0502-4242-0048
21C 불교문화를 열어 가는
Buddha21
Home page:www.buddha21.co.kr
E-mail:boan21@korea.com

LG 하이샤시
아 리 산 업
대 표 이해천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436-4
TEL : 051)416-6029
FAX : 051)413-1282

해 일 산 업
노즐 · 연료펌프
재생수리
대 표 김 종 희
■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가 23-3
TEL : 051)418-6263
FAX : 051)418-6264

동 명 석 재
[석등, 불상, 탑, 납골탑 등 석물일체]
대 표 신완순
■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430-13 번지
전화 055)353-9598
핸드폰 011-9334-7641

머 구 리 회 집
대 표 최만집
■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182-2번지
전화 033)652-2591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㉘

우주 그물망과 법계

우주 · 인간 그물망 유기적 역동

불안정 · 혼돈 내재
조용한 듯하나 늘 새모습
불법도 항상 새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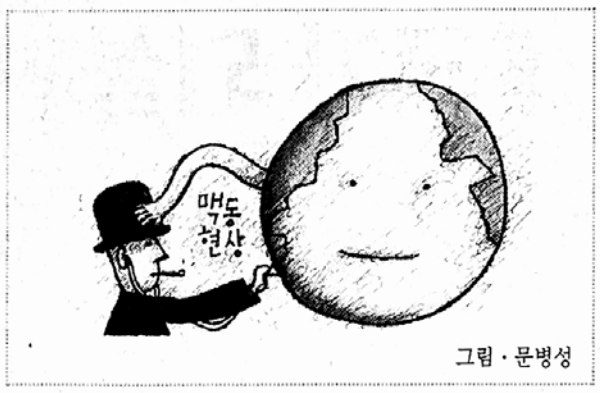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별과 별 사이에는 중력이란 힘의 고리가 연결되어 거대한 그물망을 이루고 있으며 별들은 그물망의 연결 매듭에 놓여 있다. 각 별은 사방에 흩어진 다른 별들과 중력적 고리에 연결되어 공간적으로 3차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별들은 각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물망의 구조와 형태는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중력적 그물망은 4차원적 구조를 가진다. 한편 은하와 은하들 사이에도 인력을 미치는 중력적 고리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은하들로 이루어진 우주는 거대한 4차원적 그물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셈이다. 이러한 그물망의 매듭에 놓여있는 은하들은 별들의 운행과 진화에 따른 국부적인 안정과 불안정에 의해 그물망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우주적 그물망은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며 그리고 그물망의 진화는 이들에 의해 규정되어진다.

한편 인간 세계에서도 인연이란 고리로 이루어진 그물망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가족이란 그물망이 존재하고, 이것을 토대로 사회적 그물망이 생기며, 이것은 다시 국가적 그물망으로 확장되면서 지구 전체에 걸친 인간 세계의 그물망을 형성하여 자연과 대립하고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무기적 존재들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그물망을 이루고, 식물과 동물은 유기적 생명유지를 위한 단순하고 보편적인 그물망을 이루고 있다. 별들의 세계와 달리 지상에 존재하는 그물망은 존재양식과 진화 방법에 따라 복잡한 그물망을 형성하는 것 같지만, 우주적 시공간의 척도로 보면 시간 축에 따라 진행해 나가는 지상의 그물망의 변화는 무시될 정도로 미약하며 전체적으론 별들의 그물망이나 우주적 그물망의 기본적 구조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우주 그물망이 곧 법계이며, 우리는 이러한 법계의 불법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2500여 년 전에 알고 있던 세계와는 전연 다른 세계이다. 이에 따라 인간들 사이에 맺어진 그물망도 옛날의 것과는 매우 달라졌다. 그러나 그 동안에 인간이란 본질이 바뀌지지 않았고, 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 근본적으로 바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물망의 근본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즉 그물망의 매듭에 걸려있는 인간들이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살아가는 형태와 생각은 변화되어 왔지만, 먹어야 산다는 근본은 바뀌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삶은 먼 옛날과 달리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혼돈의 상태가 더욱 빈번히 닥치며 또 그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불안이 더욱 증폭되면서 삶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적인 그물망인 법계의 불법을 따르고 있지만 이 그물망을 더욱 국지화시켜 인간의 그물망으로 좁혀 들어오면, 각 그물망에 걸려있는 인간들의 인연 고리가 먼 옛날과는 달리 심하게 꼬이고 뒤틀려져 있으며, 또 인연의 고리를 너무 강하게 끌어당겨 오히려 인연의 고리가 끊어지기도 하는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생명체의 탄생이란 무엇인가? 유형의 탄생이 진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유형이 무형으로 진행해 가는 불안정 상태를 나타낸다. 즉 생(生)이란 불안정과 혼돈의 연속적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올바른 생의 이해는 안정성보다는 불안정과 혼돈의 올바른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별의 진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수축, 팽창의 맥동현상이다. 여러 종류의 별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맥동현상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별의 내부구조와 진화상태를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불안정이나 혼돈의 이해는 곧 안정의 이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그물망이나 우주의 그물망에서도 불안정과 혼돈의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주이멸이 자연현상이며 이것은 불안정과 안정이 서로를 합축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바른 불법의 이해도 불안정과 혼돈의 이해, 자아보다 타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즐거움과 행복추구에 앞서 고뇌와 불행의 올바른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12연기에서 고(苦)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주 그물망이나 인간 세계의 그물망은 고립된 정지 상태가 아니라, 상호간에 유기적이며 역동적인 것으로 국지적으로는 항상 불안정과 혼돈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용해 보이는 듯한 그물망이 언제나 새로운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불법도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 그물망의 변화에 따라 초월 상태로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법계로 계속 태어난다. 이것이 곧 제행무상으로 만유의 유전변천의 섭리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선생님 존경한다" 39%

심각한 교권추락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두 가지 통계가 발표됐다. 먼저 한 대학교수가 최근 초 · 중 · 고생 25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39%였으며, '그저 그렇다'가 37%, '존경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추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서울협의회가 서울지역 중 · 고교 생활지도부 교사 474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에 의한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응답자의 26.7%가 '욕설 등 폭언을 들었다'고 답했고, '폭행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들었봤다'는 교사도 17.8%나 됐다. 또 '교내에 세워둔 자동차나 집기가 학생들에 의해 파손된 적이 있다'는 교사는 40.7%나 됐고, '학교 홈페이지에 인신공격성 글을 올려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3%에 달했다. 특히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8%나 됐다.

이쯤 되면 스승도, 제자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권추락이 곧 교육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스승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제자가 스승을 섬김에는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공경해 존중함이요, 둘째는 은혜를 생각해 잊지 않음이요, 셋째는 가르침을 받은 것을 따름이요, 넷째는 싫증내지 않음이요, 다섯 째는 그 덕을 찬탄함이다.

〈육방예경〉

▧제자는 스승을 없신여기는 마음을 내서는 안된다. 마치 막 시집간 새댁이 시부모를 섬기듯, 응당 부끄러움을 지녀 그 가르침을 받들어야 한다. 〈해탈도론〉

禪과 21세기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⑪

경계 허망한 것 … 진실한 실재는 마음

오직 하나일 뿐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온 우주를 관통하니,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귀에서는 듣는다 하며, 코에서는 냄새 맡는다 하고, 입에서는 말한다 하며, 손에서는 쥔다 하고, 발에서는 걷는다 한다. 본래 한 개의 깨끗하고 밝은 것이 나누어져 18계의 경험세계를 이루므로, 하나의 마음도 이미 없다면 이르는 곳마다 모두 해탈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이 항상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저 옛 사람의 부질없는 인연과 경계를 숭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견처에서는 보신불과 화신불의 머리를 자르며, 십지보살은 천박한 놈과 같고, 등각보살과 묘각보살도 족쇄 찬 놈이며, 아라한과 벽지불은 변소 간의 똥과 같고, 깨달음과 열반은 나귀 매는 말뚝과 같다. 어지하여 이와 같은가? 그대들이 3아승지 겁 동안 공(空)에 통달치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만약 참된 도인이라면 결코 이와 같지 않아서, 인연 따라 오래된 업을 녹여 없애고 자재하게 옷을 입으며, 가고자 하면 가고, 앉고자 하면 앉을 뿐 한 생각이라도 부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 왜 그러한가? 옛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부처가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고 하였다.

오직 이 한 개 마음이 있을 뿐, 달리 아무 것도 없다.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경계는 이 마음이 나타내는 변화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없다. 이 한 개 마음은 이름만 있고 정해진 모양이 없으니 마음이라는 이름은 허망한 것이다. 마음에 정해진 모양은 없으나 모든 인연법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마음이 허망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진실한 실재는 마음뿐이다.

우리가 무엇을 파악하고 알아차리는 방법은 눈으로 색깔과 모양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듣거나 코로 냄새를 맡거나 혀로 맛을 보거나 피부로 감촉하거나 감각과 관념과 욕망을 의식하거나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알아차리는 것들은 전부 서로서로 구별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각각 다른 이름이 붙어 있다. 우리의 경험을 이루는 것은 모두 이러한 이름과 모양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름과 모양을 가장 실재적이라 여기고, 이름과 모양을 벗어난 그 무엇을 말하면 그것은 관념적이고 허망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름과 모양이야말로 이름 없고 모양 없는 것의 활동으로 매 순간 순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늘 변화의 와중에 있는 유동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름과 모양의 경계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유동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이름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없다면 이름과 모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실재적인 것은 이 활동뿐이고, 이 활동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이름과 모양은 비실재적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물과 물결의 관계와 같다. 물결은 오직 물의 움직임일 뿐이고 달리 어떤 존재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결을 본다. 물결들은 다양한 모양을 따라 구분되고 이름 붙여진다. 그러나 물결은 물의 움직임일 뿐으로서 허망한 것이다. 실재를 알려면 물결이 아니라 물을 알아야 하듯이, 공부인은 이름과 모양으로 구분되는 경계가 아니라, 지금 바로 그러한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움직임을 알아야 한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연등축제 Lotus Lantern Festival

Every year there are many small local parades of lantern to celebrate the Buddha's Birthday in May. As the birthday of Buddha(on the 8th day of the 4th lunar month every year) approaches, temples in each district combine their efforts to organize the annual lantern parade. Buddhists march through the streets with their lantems in hand. The standard lantern would be shaped like a lotus flower, but Buddhists also making the 'Soccer Ball Lantern' to commemorate the 2002 FIFA World Cup.

해마다 5월이면 각 지역별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등축제가 열린다. 부처님의 탄신일(매년 음력 4월 8일)이 다가옴에 따라 사찰들은 매년 각 지역별로 역량을 모아 등축제를 준비한다. 불자들은 손에 등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한다. 전통적인 등은 연꽃모양이지만 2002년 월드컵을 맞아 '축구공 등'을 만들기도 했다.

The lotus, a common symbol in Buddhism, represents the process of shedding ignorance to attain wisdom.

연꽃은 무지를 벗고 지혜를 얻는 과정을 상징하는 일반적인 불교의 상징물이다.

내 한생 성불을 늦추더라도 이 생애는 포교하리라!



제33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미래 불교를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제33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속리산유스타운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기본과정은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문과정은 레크리에이션, 상담, 아트풍선으로 나누어 전문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내 한생 성불을 늦추더라도 이 생애는 포교하리라!"
불국토를 향한 초석을 다지는 불사에 지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기 2546년 5월 좋은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정여 합장



총재 / 정관, 부총재 / 혜총, 철오, 회장 / 정여, 상임부회장 / 운성, 부회장 / 각만, 덕신, 덕진, 심산, 원행, 원혜, 인성, 지광, 지현(가나다순), 감사 / 성형, 박창식

행사개요

1. 일 시 : 불기 2546년 6월 1일(토) 오후 5시 ~ 6월 2일(일) 오후 3시
2. 장 소 : 속리산유스타운
3.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4. 주 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5. 슬로건 : 내 한생 성불을 늦추더라도 이 생애는 포교하리라!
6. 예상인원 : 600여명
7. 연수참가비 :

구 분	기본과정	전문과정		비 고
		레크리에이션 상 담	아트풍선	
미리 접수	35,000원	45,000원	55,000원	· 아트풍선은 재료비 포함 · (사)한국수공예협회 풍선공예 강사 자격증 (신청을 원하는 연수생에 한함.) · 연회비 30,000원, · 자격검정비 150,000원
당일 접수	40,000원	50,000원	60,000원	
제주도, 울릉도, 군종병	20,000원	30,000원	40,000원	

※해외거주자는 무료

8. 지급품 : 연수자료집, 기념품, 여름불교학교 교재 지급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www.sesag.or.kr

9. 접수 방법
가. 접수
(1) 홈페이지 - www.sesag.or.kr에서 연수회 참가 신청서 클릭하여 접수
(2) FAX : 신청서 작성 후 FAX로 접수 (051)808-4571
(3) 연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서를 미리 받고자 합니다.
▶본회 사무국 (051)808-4570
나. 참가비 납부
(1) 접수 후 입금
(2)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연락바랍니다.
(3) 송금계좌 : 우체국 601310-01-002215 [예금주 : 대불어]
다. 접수마감 5월 25일 까지

10. 연수 주요 내용

구분	기본과정	전문과정		
		레크리에이션(1과정)	상 담	아트풍선
대상	연수회 2회 이내 참가자	· 연수회 3회이상 참가자 · 연수회 2회 이내 참가자 중 스님 · 대한불교교사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특전		(사)한국여가교육협회에서 1과정 수료증을 수여하며 겨울연수(2과정)시 자격검정을 거친 후 2급 자격증을 드립니다.	본회에서 드리는 상담과정 수료증을 드립니다.	본회에서 드리는 아트풍선 과정 수료증을 드립니다. (사)한국수공예협회 풍선공예 강사 자격증 지급 (원하는 연수생에 한함-연회비,자격검정비 별도)
모집인원	제한없음	100명(선착순)	20명(선착순)	70명(선착순)

붓다의 땅…불교가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불교 귀의와 전법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불교는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 선우 등 불교단체와 공동으로 인도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달까지 4개월여 동안 인도 현지 조사활동을 펼친 노인자 참여불교재가연대 규제코디네이터가 파악한 정보와 본지 이지은 인도통신원의 보고를 바탕으로 인도 불교의 현황을 소개한다. '붓다의 땅, 인도에 전법의 등을' 캠페인에 불자들의 성원을 기대한다.



◇인도불교청년회의(YBS)가 지난 4월 7일 인도 비하르주 가야시에서 개최한 수계법회에서 석가족 청년이 수계증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수레스 YBS회장, 프라가야딥 스님.

중북부 비하르주 등 5곳 운동 활발
서부지역에선 집단 개종 '제2부흥기'
스님 8천명 추산…불교교육기관 '全無'

인도불교의 현황

인도에서 불교가 되살아나고 있는 지역은 크게 다섯 군데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부처님의 성지가 밀집되어 있는 중북부 지역(UP주, 비하르 주)은 석가족의 주요 활동지역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비하르주 보드가야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이 10여년전부터 수자타아카데미를 설립해 교육, 의료, 빈민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파트나시의 재가불자들은 '아쇼카 보드 비하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UP주의 수도 럭나우에서는 스리랑카 출신의 프라자난다 스님이 'Mahabodi Society of India'를 이끌고 있다. 비하르주에서는 인도청년불교회의(YBS)가 석가족 중심의 불교운동을 이끌고 있다. 인도 전체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억여명의 석가족은 중하위 카스트에 해당하며, 5개의 성(姓)으로 분화되었다. 최근 자신들이 석가족이란 사실을 자각하고, 불교 중흥의 주역을 자임하고 나섰다.

동북부 테라바다 지역(아쌈주, 서벵갈주, 시킴주)은 인도의 전통 불교가 전해내려 오는 곳이다. 부탄 및 방글라데시가 인접한 이 곳은 방글라데시의 불교탄압으로 30여만명이 이주해 온 것을 비롯해 모두 2백여만명의 불교신도가 있다.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 부파불교 국가들이 인접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지원도 일정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 인도 불교의 주류를 이루는 곳은 마하라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인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신불교도(Neo-Buddhist)'들이다. 중세와 근대를 거치며 거의 그 명맥이 끊어지다시피 했던 인도 불교는 암베드까르 박사에 의해 주도된 집단 개종에 의해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6년 이래 수백만의 사람들이 힌두교로부터 불교에 귀의했으며 현재는 마하라슈트라 주 인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영국 등의 불교단체들이 오랫동안 포교한 이 지역은 암베드까르 박사를 부처님처럼 신봉하고, 카스트계급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티베트 망명정부가 위치한 다람살라와 라다크로 잘 알려진 북부산악지역은 티베트 불교의 전통이 강한 밀교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들 인도 불교도들의 대다수는 과거 불가촉천민 출신들로서 힌두교도의 억압에 대항하며,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높이는데 힘써왔다. 처음 개종운동이 시작된 계기도 카스트 제도라는 악습을 포기하지 않고 불가촉천민들을 수탈해 온 힌두교에 대항, 지고(至高)의 법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그들 자신들의 결속을 강화하자는데 있었다. 또한 현재의 인도 불교는 상당부분 재가(在家) 중심의 불교라 할 수 있다.

인도에는 약 8,000명의 스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스님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전무하다. 단지 스님의 법복을 입고 있을 뿐, 불교 의식도 사라지고 없는 실정이다.

정리=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주요 불교 단체들의 활동

⊙인도불교청년회의(YBS)

'Youth Buddist Society of India'의 회장은 수레스 찬드라이다. 비하르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YBS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석가족에게 부처님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리고, 석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불교를 전파해 개종 시킨다. △시골 마을마다 법당과 학교를 짓고 법당에는 마을 약국, 도서관, 박물관을 만든다. △마을 지도자교육을 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의 학교를 세운다. △스님만을 위한 학교를 도시와는 떨어진 곳에 만든다. 지난 3월 17일 일요일 인도 비하르주 카르쿠라 베라기 마을에 있는 O'쇼카 고등학교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개종식을 가진 바 있는 YBS 수레스 회장은 이달말부터 10월까지 연이어 개종식을 가질 예정이다. 5월 30일 Etawah에서 개종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6월 1일 Mainpuri 절 개원식겸 수계식, 6월3 일 Kannoj, 6월 5일 Eatha, 6월 7일 Farukhobad, 6월 9일 Firojabad, 10월 10일 Sangkasia에서 개종식을 갖는다.

⊙붓다 비카시 페리샤드 소사이어티

'Buddha Vikash Parishad Society'의 회장은 의사인 Munshi Lal Shakya 박사이며, 1980년부터 불교운동 시작했다. 상카시아에서 길과 우물을 만들고,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었다. 1998년 상카시아 법당 이름으로 땅을 샀다. 스리랑카 절에서부터 탑까지 길을 만들 준비 중인데, 50만 루피를 정부에서 투자할 예정이다. 상카시아에 부처님이 천상에서 내려오신 것을 기리기 위해 1980년부터 보름날 전후로 약 20만명이 모인다. 그중 약10%는 신불교도, 90%는 석가족이다.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면서 불교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

⊙부다얀 마하싱가

마하슈트라주에 있는 인도에서 몇 안되는 승가단체 중의 하나. 라즈라딴이라는 젊은 스님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은사인 난다보디 스님은 그나마 이 곳에서는 상좌부 불교전통에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있는 스님으로 통한다. 현재 뿌네대학교 안에 있는 절에서 십여명의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출가자들이 드물긴 해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드물게 암베드까르 보다는 불설을 강조하며, 신도들 사이에서도 명망이 높다.

⊙아쇼카 보드 비하르 센터

'Ashoka Bouddh Bihar Centre'의 회장인 Upandrabasram는 45세의 재가불자로서 비하르 주의 수도 파트나의 법당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1995년 자신의 땅에 법당을 짓고, 정부협조로 학교도 운영중이다. 5월 28일 비하르주의 Nawada에서 학교 기공식을 가질 예정인데,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도 참석할 예정이다.

⊙로드 붓다 클럽

'Lord Buddha Club'의 대표는 Udit Raj이다. 전국규모의 조직망이 있으며, 본부는 델리에 소재하고 있다. 지정카스트, 지정부족에 대한 정치적 이슈를 크게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북인도 지역에서 향후 1년간 집중적인 개종운동을 펼치고 개종식을 가질 계획이다. 정치색을 많이 띤 단체로서 아직까지는 사회복지 활동은 없다.

⊙델리 재가불자협회

'Buddhist Upasaka Sangh, Delhi'의 대표는 Bhagwan Das이다. 델리에 소재하는 재가 신도들의 모임으로, 대표인 바그완 다스씨는 인도 불교협회(Indian Buddhist Council)의 회장도 역임한 바 있으며, 북인도 지역 다른 불교 그룹들과도 연계가 있다. 비교적 정치색을 띄지 않은 단체이며, 실질적인 사회개혁운동과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암베드까르 기념위원회

'Dr. Babasaheb Ambedkar Smarak Samiti'의 대표는 R. S. Gavai다. 주로 마하라슈트라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부는 나그뿌르에 있다. 암베드까르 박사 사후 즉시 발족된 단체로, 딕샤부미, 암베드까르 대학 등을 관장하며 마하라슈트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의원인 가바이씨의 활약으로 인도 정부로부터 후원금도 어느 정도 얻어내고 있으며 딕샤부미 대법당, 불교병원 등 비교적 큰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삼계의 불자들을 돕는 모임(TBMSG)

'Trailokiya Bauddha Mahasangha Sahayak Gana'는 영국에 소재하는 'Friends of the Western Buddhist Order'의 인도지부이며, 대표는 영국인인 Lokamitra이다. 이 모임의 창립자는 암베드까르 생전부터 인연을 맺었던 사람으로, 계속해서 영국에서 인도 불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파견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은 인도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단체에서는 참선 교실을 열고, 수행법을 강의하는 등 실질적인 신행생활을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순수한 사회복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기금은 영국과 대만에서의 모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스님·지도자 배출 위해 체계적 불교교육 절실"

인도불교 현장조사 노인자 씨



"스님과 불교 지도자를 배출할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합니다."

지난 지난 4월 28일까지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마치고 최근 귀국한 노인자(45) 참여불교재가연대 국제코디네이터는 "인도 사람들의 생리와 현지 사정이 한국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한국 불자들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는 곳마다 포교 여건이 열악했다"는 노 씨는 "석가족을 비롯한 인도 불자들의 의지가 불교 중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0년 조계종 원각회와 인연이 되어 신행을 시작한 노 씨는 96년 아프리카 종단, 98년부터 '밝은 세상 명상 아카데미'에서 명상 공부, 2000년 아프리카 기아 난민 현지조사(JTS 파견), 2001년 여름 JTS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국제캠프 참가 등 25년간 자원봉사를 펼쳐오고 있다.

인도에 傳法의 燈을

부처님 나라, 인도에 전법의 등이 희미해진 지 2천여년이 넘은 최근, 불가촉 천민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불교 귀의와 전법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불교는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선우 등 불교단체와 공동으로 인도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관련 단체들은 올해 인도불교지원사업을 크게 6개 분야로 나눠 모금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인도불교 복원에 크게 보탬이 될 이번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사부대중의 동참 바랍니다

■인도불교 6대 지원사업
- -1인 수계비용 1달러 지원 '개종운동 지원 사업'
- -불교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
- -법당 건립 및 불상 봉안 지원
- -재가불교지도자 양성 사업
- -불가촉 천민을 위한 자활 지원
- -불가촉 천민지역에 티베트 난민 정착 메밀지원

■기간: 2002년 5월~2004년 5월(3년간, 총 15만불)
인도불교 전법지원운동 사무국 : 02-745-7799(참여불교재가연대)
■통장번호: 조흥은행(계좌명=인도등기) 741-04-3659-50

●주최 :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선우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

스리랑카에서의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의 운명을 건 대논쟁!

과연 스리랑카는 불교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파아나두라 대논쟁

130여 년전 스리랑카의 작은 마을 '파아나두라'에서 일 만여 명의 청중을 앞에 놓고 벌인 논쟁의 실제 기록.
제국주의 영국의 불교에 대한 유무형의 엄청난 탄압과 기독교에 대한 지원,
여기에 도전장을 던진 한 스님과 기독교를 대표한 목사와의 치열한 교리 논쟁.
시공을 뛰어넘는 현실성과 생동감, 그리고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드러나는 허와 실.
과연 논쟁의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승리의 내용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석오진 편저/사륙판 양장/250쪽/8,500원

은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 빌딩 3층
전화 02)3672-7181~5 팩스 3672-7186 (출판부) 926-8361, 팩스 926-8362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써서 정성이 들어간 붓글씨 사경

사경은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경전의 뜻풀이는 물론,
한자(漢字)의 매 글자마다 뜻과 음을 새기고,
특히 그 획순을 풀어놓아
올바르게 한자를 따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오랫동안 붓글씨로 불경을 써온
윤석우 선생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



금강경 사경 사륙배판 150쪽 5,000원
반야심경 사경 사륙배판 80쪽 3,000원
부모은중경 사경 사륙배판 56쪽 2,300원
천수경 사경 사륙배판 128쪽 4,500원

은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타운힐 빌딩 3층
전화 02)3672-7181~5 (출판부) 926-8361,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건 봉 사
주 지 정영도
대중일동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
전화 033)682-8100
팩스 033)682-5994

사자산 적멸보궁
법 흥 사
주 지 도 완
대중일동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
전화 033)374-9178
팩스 033)374-9176

내설악산
백 담 사
주 지 일 문
대중일동
산내암자 봉정암 감원 무산
오세암 감원 일음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0번지
전화 033)462-6969
팩스 033)462-3224

낙 산 사
주 지 지 홍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전화 033)672-2448
팩스 033)671-1445

대한불교조계종 14교구
백양산 선 암 사
법 주중 원
주 지사 명
신도회장 신제철
봉사단장 왕선자
신도회 · 청년회 · 어린이숲속학교 거사회 ·
불교교양대학 일동
■ 부산시 진구 부암 3동 628번지
전화 051)803-7522 팩스 051)803-7521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하사
주 지 대 성
신도회장 문수용
보현회 관음회 금옥회
회 원 일 동
사부대중일동
■ 경남 김해시 삼방동 882번지
☎ 종무소 055)337-0101

해운정사
금 모 선 원
조 실 진 제
주 지 지 해
신도회장 서 석 인
부 회 장 김 오 홍
강미화월
홍무진성
임보광화
박묘각월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2번지
☎ 746-2256, 4812 FAX 741-8882

대한불교 조계종
원 효 종
종정 법 홍
종단임원일동
총본산금수사
해동원효불교대학
〈부설〉해동원효어산의식교육원
주 지 구 산
총 무 혜 선
교육원장 정 화
불교대학장 전 용 만
사무국장 안 종 명
신 도 회 원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4동 843번지
종무소 ☎ 051)467-3316
FAX 051)464-3355

대한불교조계종
묘봉산 혜원정사
조 실 고 산 혜 원
주 지 원 허 효 명
고 산 장 학 회
선 지 식 회
자 비 회
만 불 회
지 장 회
관 음 회
연 꽃 부 부 회
포 교 사 회
선 원 대 중
혜 원 합 창 단
청 년 회
대 학 생 회
중 · 고등학생회
어 린 이 회
■ 부산시 연제구 연산 4동 1113-1번지
☎ 051)866-7771 ~ 3
FAX 051)866-7777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부산지원
신도회장 박 성 빈
부 회 장 채 선 일
총 무 임 종 희
사 부 대 중 일 동
■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중리 522-1
☎ 051)403-7077 FAX 051)403-1077
홈페이지 www.hanmaum.org

부 산 불 교 회 관
범어사 부산포교원
여 여 선 원
여 여 정 사
(부설)신 행 학 교
선 원 장 정 여
신도회장 김영웅
사무총장 이석구
신 도 일 동
여여선원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 2동 157-1
☎ 051)853-5486 ~ 7
FAX 051)863-6422
여여정사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 055)355-9290 ~ 1

사회복지법인 범 어 사
(부설)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마야어린이집
선혜마을(실직자쉼터)
범어사 사회복지센타
대표이사 백성오
관 장 오정여
임 직 원 일 동
금정구사회복지관 051)532-0115 ~ 8
마야어린이집 051)532-0118
선혜마을 051)852-0813
범어사사회복지센타 051)516-3045
051)516-6898

부산여성불자회
회 장 왕선자
부회장 이윤목 허명애 심신애
총 무 류경자
재 무 김지언
감 사 이경월 이소연
교 화 이복선 심춘자
운 영 하영조 박정연
조정숙 김경자
장학위원장 홍말연
이사 각구 지회장 회원일동
■ 부산시 진구 부전 1동 390-34
화엄회관 2층
전화 051)809-3166 / 051)817-3166
팩스 051)806-4766

부 산 광 역 시
서구불교사암연합회
고 문 법장 포광
위 원 경보 능지 도천 동영 보문
보산 보암 성부 성현 영공
팔봉 한순 혜광
회 장 보 광
운영위원장 정 련
부 회 장 금 종
감 사 월 봉
총 무 보 현
교 무 성 각
재 무 보 성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578번지
전화 051)243-0048
전송 051)242-4109

"몸과맘을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도량"
어림산 복원사
주 지 영 운
신도회일동
■ 경북 경주시 내태1리 875
전화 054)745-3646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1) 칠장산 칠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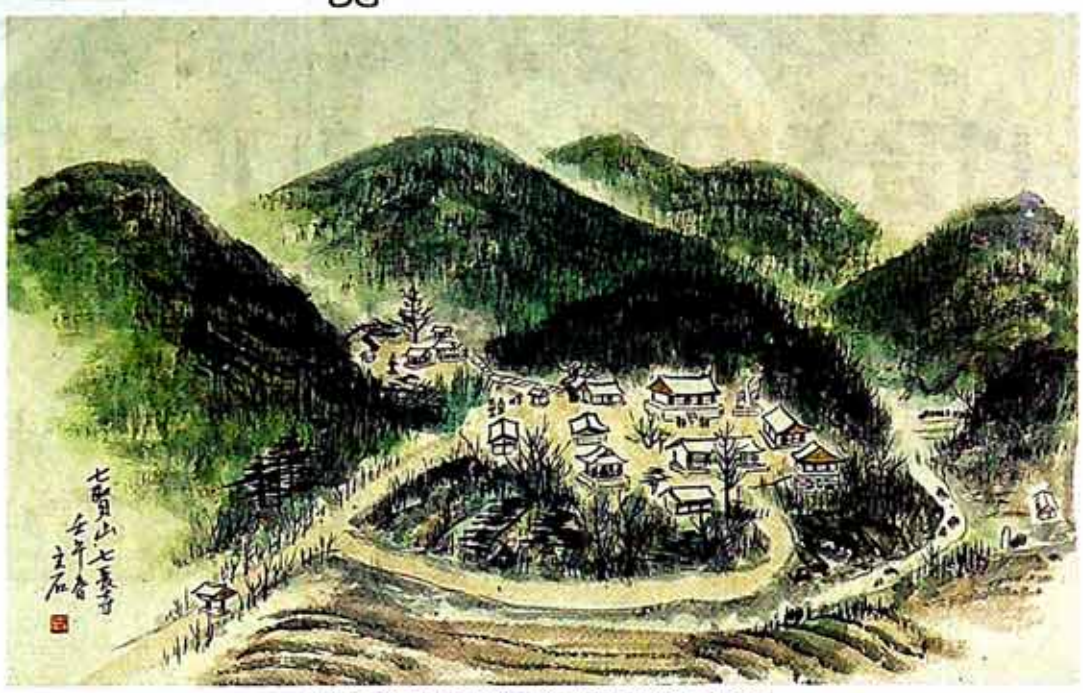
글 · 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 최대의 화두가 되었다. 환경의 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위기는 자연을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인간 중심적 사고의 필연적 귀결이다. 따라서 '생태'라는 말은 이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쓰이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생태란, '생명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생태계는 '생명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계'를 말한다. 인간도 그 생명 세계의 한 구성원이다.

사찰 생태란 수행자들을 포함하여 사찰과 사찰 주변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많은 생명체들의 삶의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이 기획은 '사찰생태연구소'가 10년을 기약하고 원력을 세운 '전국 108 사찰 생태기록'을 불자들과 공유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편집자



◇'칠장산 칠장사' 이호신 作, 한지에 수묵담채(60×91cm), 2002년.



◇숲거리의 전나무. 숲거리는 칠장사의 기운을 보호하는 풍수적 숲이다.



◇홀아비꽃대. 전국에 분포하는 여러해살이 봄꽃으로, 사찰 조경화로 길러도 좋을 것이다.

숲이 사라지면 절도…

상운암 주변 귀룽 · 굴참나무 장대밭 홀아비꽃대 · 원추리 · 동굴레 등 군락

절숲 잡목 무성 · 300년 노송 영양제 의존 대웅전까지 뻗친 시멘트길도 눈에 밟혀

◑세파에 시달리는 반야선

칠장사의 자연적 배경을 이루는 칠장산. 칠장사 창건 당시에는 '아미산(蛾嵋山)'으로 불렸다. 창건주인 자장율사가 오대사상에 입각해서 보현보살이 상주한다는 중국의 아미산 이름을 빌려와 지었겠지만, 흙이 두터운 육산(肉山)에다 미인의 눈썹처럼 부드럽게 넘어가는 산세를 보면 더욱 실감나는 이름이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에서 광혜원 가다가 오른쪽으로 난 검미고개를 넘으면 심릿길에 칠장사가 앉아있다. 이 절의 들머리는 숲거리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숲거리는 소쩍포의 물소리까지 어우러져 냉기가 돌 정도였으나, 지금은 많이 허술해져서 그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다. 풍수적으로, 이 숲거리가 살아야 칠장사와 사하촌도 살 수 있다.

칠장사가 풍수사찰인 것은 숲거리를 지나 우뚝 솟아있는 철당간(鐵幢竿)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칠장사는 전형적인 행주형국(行舟形局)이다. 세파에 시달리는 중생을 싣고 극락으로 갈 반야선이기에 이같은 돛[당간]을 세웠을 것이다.

칠장사는 조선중기, 당시의 세도가문이었던 ㅁ씨들에 의해 절이 방화되고 스님이 분살되는 참극을 당한다. 그런 비극사의 잔재가 '산직(山直)'이라는 사하촌 이름과 ㅁ씨네 묘소들이다. 산직이라는 마을 이름은 ㅁ씨들이 빼앗은 땅과 산을 관리하기 위해 산지기를 두면서 생긴 것이다.

ㅁ씨들의 묘소가 있는 문중산 기슭은 소나무와 전나무 숲이 제법 그윽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굳이 식생조사를 하지 않아도 칠장산이나 칠현산에 비해 소나무들이 월등히 많음은 육안으로도 확인된다.

일찍이 우리의 문중산은 주인 없는 공산(空山)이 아니라 함께 소유하고 가꾸는 공산(公山)의 전통이 있었다. 조상의 묘소가 있는 산들이 비교적 잘 가꾸어지고 있는 이유도 그런 공산 인식 때문이다. 그래서 산은 죽은 사람이 가꾼다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중산 기슭에서 내려다보는 칠장사의 숲은 잡목과 조릿대로 뒤범벅이 되어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동선(動線)을 벗어난 일주문, 턱없이 넓게 닦은 주차장, 담장을 허물고 대웅전 마당까지 논스톱으로 낸 시멘트길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옛 속담에 세숫물을 헤프게 쓰면 쓴 만큼의 물을 저승에 가서 다 마셔야 한다고 했다. 무계획한 불사로 정재를 낭비하면 저승에 가서 그 돈을 다 물어야 할 것이다. 철학이 깃든 불사가 아쉽다.

그리고, 대웅전 마당의 잔디와 판석, 불사 때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부도, 시스템이 불안한 수세식 해우소, 폐자재 잡동사니에 가려져버린 대웅전 꽃창살 뒷문 등도 눈에 밟힌다.

주엽나무와 은행나무를 끼고 비전에 오르면 혜소국사 비각이 있다. 혜소국사는 안성 죽산 출신의 고려시대 고승으로 칠장사의 중흥조이다.

비각에서 저만큼 떨어진 자리에 나한전이 있다. 폐사된 산내 암자에서 모셔온 일곱분의 나한님이 좌정하고 있다. 나한전을 우산처럼 받쳐주고 있는 노송은 고려 말 나옹화상이 심었다는 전설이 있으나, 수령은 3백년 안팎으로 추정된다. 칠장사에서는 법랍이 가장 오랜 노장나무이다. 근래들어 노쇠가 역력해서 얼마 전부터 영양제를 맞고 있다. 따로 공간(묘판)을 만들어 후계목을 번식시켜 노송의 고사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나무도 태교를 한다

나한전 옆 은행나무를 끼고 칠장산으로 등산로가 나 있다. 초입 숲 그늘에 피나물이 군락을 이루며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피나물은 양귀비과에 속하는 봄꽃으로, 일명 노랑매미꽃 이라고도 하며, 줄기를 자르면 붉은색 즙이 나온다 하여 피나물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적절히 손을 봐 줘야 할 때다.

조릿대군락 사이로 난 등산로를 지나면 상운암 옛 터이다. 암자터 주변으로 귀룽나무를 비롯해 굴참나무 등의 굵은 활엽수들이 장대밭을 이루고 있다. 1백년은 족히 묵었을 큰 밤나무도 한 그루 자리하고 있다.

능선에 이르면 칠장산과 칠현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갈라진다. 칠장산과 칠현산의 주된 수종은 참나무류와 서어나무 등 활엽수들이다. 한때 전성시대를 구가했던 소나무들은 산꼭대기와 능선으로 뚫겨올라와 있다. 그나마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솔방울들도 눈깔사탕보다 작고, 후계목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칠장산의 소나무시대는 끝이 날 것이다.

능선 아래로 드넓은 안성 C.C 골프장이 보인다. 최근 '엘도설판' 등과 같은 고독성 농약이 골프장 잔디에 잔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골프장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농약은 빗물에 씻겨 아래로 내려가지만, 일부는 바람을 타고 능선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생명들이 체내에 축적된 상태에서 짝짓기 등을 통해 다른 개체에 독성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칠장사의 경우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정밀검사도 필요할 것이다.

어디선가 꾀꼬리 한 쌍이 날아와 태교(胎敎) 노래를 불러준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후손을 위해 태교를 한다. 나무들도 예외는 아니다. 보다 튼실한 후손을 위해 청아한 바람소리와 맑은 물소리와 아름다운 풀벌레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향기로운 꽃내음으로 태교를 한다.

숲속에 홀아비꽃대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자태의 꽃 모양을 보여준다. 홀아비꽃대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여러해살이 봄꽃이다. 포기나누기나 씨앗으로도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경내로 옮겨심으면 썩 좋은 조경화가 될 것이다.

원추리와 둥굴레도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원추리가 능선까지 올라와 군락을 이루는 예는 그리 흔치 않기 때문에 칠장산과 칠현산의 대표적인 여름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원추리는 배고픈 시절 한때 사하촌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 구황식물이기도 했다.



◇피나물 군락. 줄기를 자르면 붉은색 즙이 나온다고 해서 피나물로 불린다.



◇나한전 소나무. 고려말 나옹화상이 심었다는 전설을 간직한 나무로, 칠장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

문헌에 따르면, 혜소국사가 칠장사를 중창하기 전까지는 절 이름이 '칠장사(柒長寺)'로 나와 있다. 아마 산에 옻나무[漆]가 많아서 그런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직지사 새벽예불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처음 해보는 독송이지만 한자 한자 따라서 읽었다. 또 정진기도 시간에도 서툰 자세로 나마 부처님 전에 30배를 올렸다.



◇연등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주한 외교관들.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가장 친환경적인 식사법"이라고 극찬하며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새벽예불·참선·발우공양 감동적 체험"



◇폴란드 호미츠키 대사가 정성을 들여 용문양 탁본을 뜨고 있다.

20개국 외교사절 직지사서 템플 스테이

"앞에 지름 2m크기의 동그란 원이 있는데 원인에 들어가도, 밖에 있어도 한데 맞는다. 맞지 않을 수 있는 답을 제시해 보세요"

12일 새벽 4시 30분, 직지사에서 새벽예불을 마치고 간단한 선체조로 몸을 푼 가부좌를 튼 20개국 주한외국대사와 그 가족 40명 앞에 이같은 화두가 주어졌다.

알쏭달쏭하기 그지없는 화두를 받고 그 해답을 찾기위해 주황색 수련복을 차려입은 외국인들은 ㅁ자 모양으로 둘러앉아 흐트러짐 없이 참선에 들었다.

30분의 참선이 끝난 후 나온 대답.

"들어갈 필요가 없으면 나올 필요도 없다"(폴란드 타데우시 호미츠키 대사)

"선위에 서 있으면 되지 않느냐"(헝가리 대사 부인 졸리아 라슬로)

지도법사 정진스님은 "그 말도 옳지만 답은 아니다"며 "자나 깨나 의심을 1111일 동안 하다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는 모두 잠꼬대이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을 하며 더욱 알쏭달쏭한 말로 참선을 끝내게 했다. 참선이 끝난후 통역을 맡은 미산스님은 "이같은 어려운 질문은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니 참선을 통해 논리가 아닌 직관의 세계를 경험해 보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대사들과 그 가족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구식 사상에 젖어 살아온 외국대사들은 도저히 공안을 이해 못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역시 한국불교를 알려면 화두참선을 해야겠다고 느꼈는지 외국대사들과 가족들은 참선프로그램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지자 정진스님에게 몰려가 화두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노르웨이 아림드 브라스타드, 핀란드 라우리 코피넨, 아일랜드 폴 머레이 대사가 "참선하는 동안 사고를 멈추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질문하자, 정진스님은 "참선은 사고 멈추기 연습이며, 정신의 깊은 응집이 필요하다"며 "화두를 끊임없이 의심하면 자신의 성품이 모아져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과 한국방문의 해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여 11~12일 김천 직지사에서 개최한 주한외교사절 템플 스테이 체험행사에 참가한 캐나다 호주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멕시코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20개국 40여명의 주한 외국대사와 가족들은 다도, 예불, 연등만들기, 울력, 탁본, 발우공양, 야외명상 등을 통해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주한대사들과 그 가족은 탁본체험에도 관심을 가졌다. 외국인 대사들은 수탁(종이를 물에 젖게 하는)탁본을 하며,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열중했다. 가장 어려운 용 문양을 정성스럽게 탁본하여 다른 대사들로부터 박수까지 받은 폴란드 호미츠키 대사는 "1500여년전 방식그대로 탁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과 보존성에 찬사를 보낸다"며 먹물이 묻은 얼굴로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신라 백제시대의 문양을 탁본한 외국인들은 직접 탁본한 한지를 조심스럽게 말아서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고이 간직했다.



◇주한 외국대사들과 그 가족들은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중 화두참선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참선을 배우고 싶다는 열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자유시간때 화두에 대한 질문 쏟아져

"템플 스테이 매력적 … 홍보 잘하면 성공"

사찰에서의 마지막 공양은 사찰의 전통식사법인 발우공양으로 준비됐다. 습의스님이 "한톨의 찌꺼기도 남김없이 물로 씻어 마셔야 한다"고 하자 겁을 집어먹다 환경친화적인 식사법이라는 설명에 외국대사와 가족들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아일랜드 폴 머레이 대사는 "한국불교문화를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산사에 들어와 수련복을 입고 친환경적인 발우공양 등을 경험해보니 인상 깊다"고 말했다.

한국에 온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노르웨이 아림드 브라스타드 대사는 "템플 스테이가 외국인들에게는 한국문화를 빨리 이해하도록 하는데 많은 드움이 되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다.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글= 김원우 / 사진= 고명배 기자



◇송광사 교무 정일스님의 안내로 승보전 심우도 벽화를 감상하고 있는 파리문인협 회원들.

프랑스 파리문인협 회원 7명

송광사서 한국수행가풍 체험

프랑스문인협회 회원들이 사찰에서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하는 '템플 스테이' 행사를 가졌다.

프랑스 파리문인협회 회장 끌로드 에스테방(claude esteban)씨를 비롯한 7명의 프랑스 문인협회 회원들은 4일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를 둘러보고 한국의 수행가풍을 체험했다.

프랑스 문인협회 회원들은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과 차를 마시며 한국불교에 대해 담소를 나눴고, 담소 후에는 저녁예불에 직접 참석했다.

송광사 교무 정일스님의 안내로 승보전 벽면에 새겨진 심우도를 감상하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와 참나를 찾는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 본 에스테방 회장은 "한국불교의 깊은 사상과 전통미를 통해 한국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용직 광주지사장

1 2002 월드컵을 맞이하여 6

만 국 역 리 학

보덕 지음

세계인이 함께 보는

9종운세풀이서



신국판
112쪽
값 6,3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우) 339-834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T. 041)867-4000
F. 041)867-4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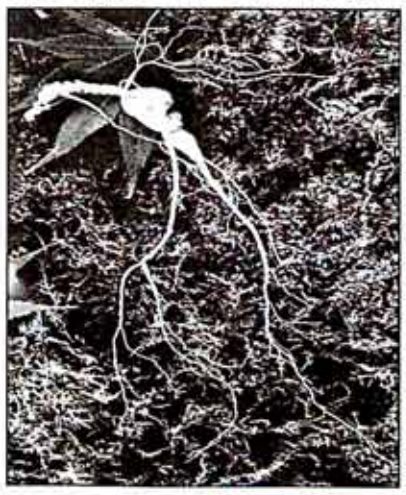
3 돌실 정화사 8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놓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존경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德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세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심마당 長腦山蔘

사찰 냉골탑,
이제 무한 21이 함께하겠습니다
불교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주)무한 21.
143-823 서울 광진구 구의 1동 223-65호 동명빌딩 3층
전화 : 02)447-8847~8 팩스 : 02)447-7071
www.muhan21.com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미사여구 집착 버리고 詩心佛心 일궈가지요"

고요, 그대로의 고요
고요를 흔드는
누각(樓閣)의 종소리…
여운은 내 가슴에 와서
또 하나의 종(鐘)을 빚는다
누각을 세운다

산문밖의 禪

韓·印문화연구회장·시인 김양식씨



김양식 시인(72·韓印문화연구회장)의 눈에 비친 오대산 월정사의 새벽 산사. 코발트 빛이 묻어나는 새벽 예불 종소리를 들으며 김 회장은 종소리에 침잠되기도하고 깨침의 누각을 세우기도 한다. 이처럼 김씨의 시에는 서울의 봉은사를 비롯해 해인사, 월정사, 상원사, 선운사 등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며 산사의 모습과 자연에서 느낀 감흥이 담겨 있다.



◇미사여구에 집착하기 보다는 시심을 그대로 원고지 위에 옮겨 놓을때 좋은시가 나온다는 김양식시인이 작시(作詩) 삼매경에 빠져있다.



◇60여년의 문학여정속에서 출간된 시집, 수필집, 번역서만도 30여권이 넘는다.

현실 참여시를 주로 써 온 김양식 회장에게 이처럼 산사를 찾아 헤매는 역마의 늦바람이 분 것은 왜일까. 바로 타고르에게서 전염된 인도병(?) 때문이다. 김 회장은 아홉살 때 처음으로 인도얘기를 듣고 매혹됐다. 당시 문학 소년이었던 오빠가 건네준 타고르 시집 <초승달>을 읽고 시의 세계에 대한 무한한 동경이 일기 시작했던 것. 이런 김 회장에게 있어 인도는 언젠가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모성의 대지였다. 그러나 기회는 그로부터 35년이 지난후에야 비로소 찾아왔다. 1975년 인도 마드라스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인대회'에 참석차 인도를 방문하게 된 것. 설레임과 기대를 안고 도착한 김 회장의 눈에 비친 인도는 타고르의 시를 통해 본 모습 그대로 였다. 김 회장은 인도에서 "여기가 바로 진정 인간이 사는 곳이구나, 사람이 본래의 가진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인간 냄새가 나는 인도의 무한한 에너지와 인도땅이 내뿜는 열기를 맨살로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나니 종교와 삶이 하나가 돼 무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왜 재물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쓸까', '시를 쓴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확 밀려오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 보게 됐습니다"라고 당시의 심정을 털어놨다.

인도에서 안고 온 충격의 실타래를 금방 풀고 싶었을까. 귀국하자마자 김 회장은 45세의 늦깍이로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에 입학했다. 부처님의 나라 인도를 공부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도와 불교에 대해 품었던 화두를 하나씩 글로 펼쳐보이기 시작했다. 또 학교 졸업 후인 81년에는 한·인 문화연구회를 창설해 한국속에서 인도 문화를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23일에는 인도정부로부터 시민상인 '파드마 슈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파드마 슈리상'은 인도정부가 인도 문화의 전파 및 인도를 위한 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한 내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1967년에는 故 마더테레사 수녀가 받기도 한 권위있는 상이다.

김 회장이 인도를 알리는 데는 역시 그동안 펴낸 책들이 한몫했다. 시집을 비롯해 인도 기행문 <갠지즈 강물 따라> 등 수필집과 <타고르의 생애와 사상>, <기딴자리> 등 번역서, 번역시집 등을 합해 펴낸 30여권의 책중에는 타고르와 인도관련 글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김 회장은 50여년의 문학여정을 결산하는 시전집 <석양이 눈부시어> 상·하권과 친구들과의 우정을 담은 글모음집 <만남의 향기>를 최근 펴냈다.

타고르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인도의 고전 우파니샤드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큰 줄기를 차지한다. "부처님은 우주 전체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본래 마음, 청정하고 삼독에 물들지 않은 마음을 찾는 일은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예요. 자기자신을 돌아보는데 자연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계절 변화에 따라 옷을 갈아 입는 자연의 모습을 세세히 관찰하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는 김 회장은 "펜을 쥐고 있는 내 마음이 시어들과 동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한낱 의미없는 문자에 불과하지요. 한글자 한글자 겉으로 드러난 미사여구에 집착하기 보다는 시심을 그대로 원고지 위에 옮겨 놓을 때 좋은 시가 나옵니다"고 강조한다.



◇한국과 인도 문화교류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 3월23일 나라야난 인도 대통령으로부터 '파드마 슈리상'을 받고 있는 김양식 회장.

인도인 무욕의 삶에 강렬한 충격

81년 韓·印문화연구회 창설 인도알리기 주력

'타고르와 인도' 화두로 30년, 30여권 책 펴내

그래서 김 회장은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기보다는 인도는 물론, 산사나 그림 등 다양한 소재를 보고 떠오르는 감흥을 곧바로 시로 쓴 즉흥시가 많다. 인도를 13번이나 다녀오고, 전국 각지의 산사를 두루 돌아다닌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20여년간 한·인 문화연구회를 이끌어 오면서 해마다 강연회를 열어왔다. 한국을 방문하는 인도의 석학이나 문화인사,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좌담회도 가졌다. 또 90년에는 조계사 문화대학에서 '타고르 작품에 나타난 우파니샤드와 불교'를 주제로 3개월간 강의하기도 했다. 집안이 3대째 성공회 신자였다고 소개하는 김 회장은 "대부분 내 나이 또래 불자들은 어머니 손에 이끌려 사찰에 나가기 시작한 모태 신앙자들이 대부분이다"며 "하지만 나는 부처님을 위대한 철학자라고 칭송하며 존경해 온 타고르의 시에 끌려 불교를 공부하고 사숙하게 됐다"고 불교에 귀의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그래서 김 회장은 기회가 닿는다면 사찰을 돌아다니며 타고르와 자신의 시를 통해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강연회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찰과 자연, 불교사상 등을 소재로 한 시심불심(詩心佛心)을 독자들에게 펼쳐 '마음찾기'에도 한몫 거들겠다는 의욕도 내비쳤다. 우선 내년에는 동시대에 존재했던 인도와 우리나라 가야국의 연관성을 철저히 연구해 가야국 황후였던 허황후를 소재로 한 장편서사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타고르와 인도라는 화두를 참구한지 30여년, 고희를 넘은 김양식 회장의 눈은 비록 침침해 졌지만 심안(心眼)은 더욱더 빛나는 듯 보였다.

글=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취재수첩

인도정부서 '파드마 슈리상' 받아…24일 자축연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나 54년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김양식 시인은 69년 월간문학제정 '제1회 신인상 시부문'에 당선되면서 故 미당 서정주 시인의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이어 70년 제1시집 <정읍후사>를 출간 한데 이어 <초이시집>('74), <숫고양이 한 마리>('80), <새들의 해돋이>('84), <서초동 참새>('90), 장편서사시<은장도여, 은장도여>('99) 등 8개의 시집을 펴냈다. 또 수필집으로는 <세계시인과의 만남>('78), <갠지즈 강물따라>('90),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2000) 등이 있다. 인도 관련 번역서도 많이 출간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R.타고르 著 <초승달>('91)을 비롯해 <나는 바다가 되리라>('95), K.크리팔라니 著 <타고르의 생애와 사상>('96), D.라메시 著 시집 <새들의 결혼>('97), <기딴자리><현대인도문학>('99) 등이 있다. 이외에도 김양식 시인은 자신의 시(詩)들을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한 개인번역 시집을 펴내기도 했다. 김양식 시인은 24일 오후 5시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출판기념회 겸 파드마 슈리상' 수상 기념 자축연을 연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봄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㉑ 제바달다품 제12

용녀의 성불(일명 女人成佛)

이 '제바달다품'은 먼저 악인(惡人)인 데바닷다(提婆達多)의 성불을 밝히고 다음에 용녀(龍女)의 성불을 밝히는데, 여기서는 용녀의 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선 줄거리를 말하자면, 데바닷다에게 석존께서 수기를 마치시자 다보여래를 따라온 지적(智積)이라는 보살이 다보불에게 본래의 국토로 되돌아가자고 종용했다. 그러자 석존께서는 지적보살에게 만주슈리(文殊師利)라는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과 묘법(妙法)을 서로 논한 후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큰 바다의 사가라(娑竭羅) 용궁(龍宮)에 사는 만주슈리 보살이 수레바퀴만한 1천 잎의 연꽃에 앉아 나타났다. 그는 다보불과 석존을 경배한 후 지적보살과 인사를 나누었으니, 여기서부터 두 보살의 문답이 시작된다.

지적보살은 큰 바다 속의 용궁에서 만주슈리의 교화 상태를 묻고 만주슈리는 항상 <법화경>을 설해 왔고 그 교화한 사람의 수가 수없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에 대해 지적보살은 "<법화경>은 심심미묘(甚深微妙)하여 모든 경전의 보배인데 이 <법화경>을 수행하여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어떤가" 하고 묻는다. 여기서 만주슈리가 대답하기를 "사가라 용왕의 딸은 나이는 여덟 살이지만 지혜가 예리하고 여러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잊지 않고 간직하여 정(定)·혜(慧)를 갖추어 불퇴전(不退轉)의 경지를 얻어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지적보살은 석존마저도 무량겁에 난행고행(難行苦行)하여 겨우 깨달음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용녀가 아주 쉽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는 믿기 어렵다며 의혹을 표명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지도 않은 사이에 용녀가 홀연히 용궁에서부터 부처님 앞에 출현하여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偈)를 읊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그것을 본 사리푸트라(舍利弗)가 용녀에게 질문한다.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다섯 가지의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자의 몸으로 성불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자 용녀는 한 개의 보배 구슬을 끄집어내어 부처님께 바쳤다. 부처님은 즉시 이것을 받으셨다.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푸트라 두 사람을 향해 "나의 성불은 부처님께서 보배 구슬을 받으신 것보다 더 빠르다"고 말하자 금방 여자의 몸이 남자로 변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덕을 갖추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묘법을 설하자 그것에 의해 모두 깨달음의 예언을 얻고, 그 불국토인 무구세계(無垢世界)는 여섯 가지로 진동했다. 이를 본 지적보살과 사리푸트라의 두 사람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납득하고 믿게 되었다.

이상이 용녀 성불을 설하는 부분의 개괄적인 요점이다.

그런데 용녀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다. 그 몸은 축생의 몸이어서 앞의 데바닷다보다도 성불에 관해서는 한층 불리한 조건에 있다.

그 용녀의 성불이 설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역시 성불하기 어려운 존재의 성불이 설해졌다고 하는 데에 있다. 이것에 의해서 그 이상의 존재들에게 불도의 성취로 향하도록 마음을 일으키게 권함과 아울러 분발토록 격려함이 교시되어 있는 것이다.

사리푸트라의 말로 설해진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법을 담을 그릇이 아니다" "여인의 몸은 다섯 가지의 장애가 있다"하는 말들은 모두 당시의 인도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남존여비라는 여성관의 소산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열반경>에서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이라고 설함과 같이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성불할 수 있다는 개성사상(皆成思想)을 표방하고 있다. 그것은 본래 출생이나 지위, 남녀의 성차별마저 넘어선 이상인 셈이다.

여성성불을 설하는 경전에 <불설초일명삼매경(佛說超日明三昧經)>, <무소유보살경(無所有菩薩經)>, <불설무구현여경(佛說無垢賢女經)>, <불설전여신경(佛說轉女身經)>, <해룡왕경(海龍王經)>, <승만경> 등이 있는데 그 수(數)는 매우 적으나 모두 대승불교의 이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무설정사 조실

보배 바치고 곧 남자로 변신·성불

불도성취 권고 분발의 뜻 담겨

우리생활이 부처님 법



가까이

도문스

불교가 탄생한 인도와 선종을 낳은 중국, 꽃을 피운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조사의 수는 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 별 중 한국의 근대불교사에 빛을 발하는 스님은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으로 독립운동가이며, 한국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헌신했던 용성 진성 대종사이다.

용성스님의 탄생지인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에 들어선 죽림정사는 한창 불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14일 죽림정사에서 친견한 불심 도문스님은 건립중인 용성스님 유품전시관과 108평 조사전을 둘러보고 계셨다.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을 친견한 뒤 조사전 옆을 산책중인 스님께 다가가 인사드리니 대뜸 "지금 보이는 조사전에 서역인도의 제1세 마하가섭존자부터 제28세 보리달마 존자, 중국의 제56세 석옥청공대사, 한국의 제57세 태고보우국사부터 제67세 환성지안대사까지 모셔, 불자들과 승려, 민족의 교육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다.

스님은 기도시간이니, 요사로 가서 차 공양하라고 말씀하시고는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여 33평으로 지었다는 법당으로 들어가셨다.

요사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우렁찬 법문소리가 들린다. 스님은 옆 마을에서 처음 절에 왔다는 한 촌로에게 김시습이 지은 금오신화 1편에 나오는 <만복사저포기>를 들려주고 계셨다.

"남원 고을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항상 외롭게 살아온 노총각 양생(梁生)이 있었어요. 양생은 아름다운 배필을 짝지어 달라고 만복사 부처님에게 발원했어요. 어느 날 부처님은 양생의 정성에 감복하여 화현했어요. 양생은 저포(樗蒲, 윷놀이로 내기를 하여 자신이 이기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해요. 부처님은 양생이 이기도록 해주지요. 내기 약속대로 양생은 한 여인을 만나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3일후 만복사에 갔다가 자신과 사랑한 여인이 3년전 죽은 처자임을 알게 됩니다. 양생은 천도기도를 하여 그 여인이 천상으로 편안하게 돌아가도록 해주지요. 이렇듯 불교는 발원(發願) 사상입니다. 발원을 하면 뭐든 이뤄질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정진하세요."

스님은 법문을 마친 뒤 촌로에게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발원했는지 물었다. 촌로는 "아들이 구로구에서 서울시의원에 출마했다고 해서 부처님 전에 아들 당선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부처님께 원하는 게 있으면 양생이처럼 지극정성으로 간절하게 졸라야 해요. 그러면 됩니다. 집에 가지 말고 절에서 공양한 뒤 기도 좀 더하고 가세요"라고 하자 촌로는 스님에게 "당선이 되든 안되든 꼭 아들을 스님께 데려 오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스님은 "마음가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니(心處存佛), 그 일과 이치에 불공하라(理事佛供)"는 용성 진종 조사님의 교훈을 읊조리며 염주를 돌리셨다.

스님께 현재 불교계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고,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쭈어 보았다.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지성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생활이 곧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곧 생활입니다. 공양할 때도 발우공양을 생활화 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움을 여의고 낳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수행생활과 어리석음을 굽려 깨달음을 여는 전미개오(轉迷開悟)의 수행생활로 돌려져야 함을 강조하시며 다음과 같은 게송을 들여 주셨다.

불사수행(佛事修行) 하여, 복덕구족(福德具足)하여지고

염불수행(念佛修行)하여 삼매현전(三

도문스님은?

백용성 조사의 10가지 유훈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도문스님은 1935년 전북 남원에서 출생했다.

46년 장성 백양사에서 동헌스님를 은사로 득도하여, 만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0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경주 분황사, 공주 마곡사, 장성 백양사, 정읍 내장사, 서울 대각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장수 죽림정사, 경주 천룡사 조실이며, 대각회 회장을 맡고 있다.

도문스님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전법'과 '엄격함'이다. 스님은 지위고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법에 나선다. 불경과 조사어록을 100만권 이상 배포하고, 100만명에게 수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스님은 또 상좌스님들에게 항상 예의와 엄격한 계율을 강조한다. 예의와 계율에 한 치의 어긋남이라도 있을 경우 과문을 면치 못할 정도이다.

대성사 신도회 한명옥 회장은 "평소 큰스님께서는 계행 등 어떤 부분에 있어서나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다"며 "상좌스님들에 대한 지원과 사랑은 엄격함 만큼이나 깊다"고 말했다.

'전법·엄격함=도문스님'

불경·어록 100만권 배포



◇도문스님은 용성조사의 탄생지에 창건된 죽림정사 주변을 산책하며 10가지 유훈을 되새긴다.

용성스님 유훈 10사목 받아

60년간 노력 2004년 불사끝나

또 대중들이 불사를 통하여 온 겨레, 전 인류가 다함께 성불인연 짓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지혜의 눈을 얻을 수 있도록 불교 오대수행인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불사 수행에 진력해야 합니다."

스님은 용성대종사의 3대 생활 교훈에 바탕하여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 지악수선(止惡修善)의 보통생활과 낳고 죽는 괴로움을 여의고 낳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수행생활과 어리석음을 굽려 깨달음을 여는 전미개오(轉迷開悟)의 수행생활로 돌려져야 함을 강조하시며 다음과 같은 게송을 들여 주셨다.

불사수행(佛事修行) 하여, 복덕구족(福德具足)하여지고

염불수행(念佛修行)하여 삼매현전(三昧現前)하여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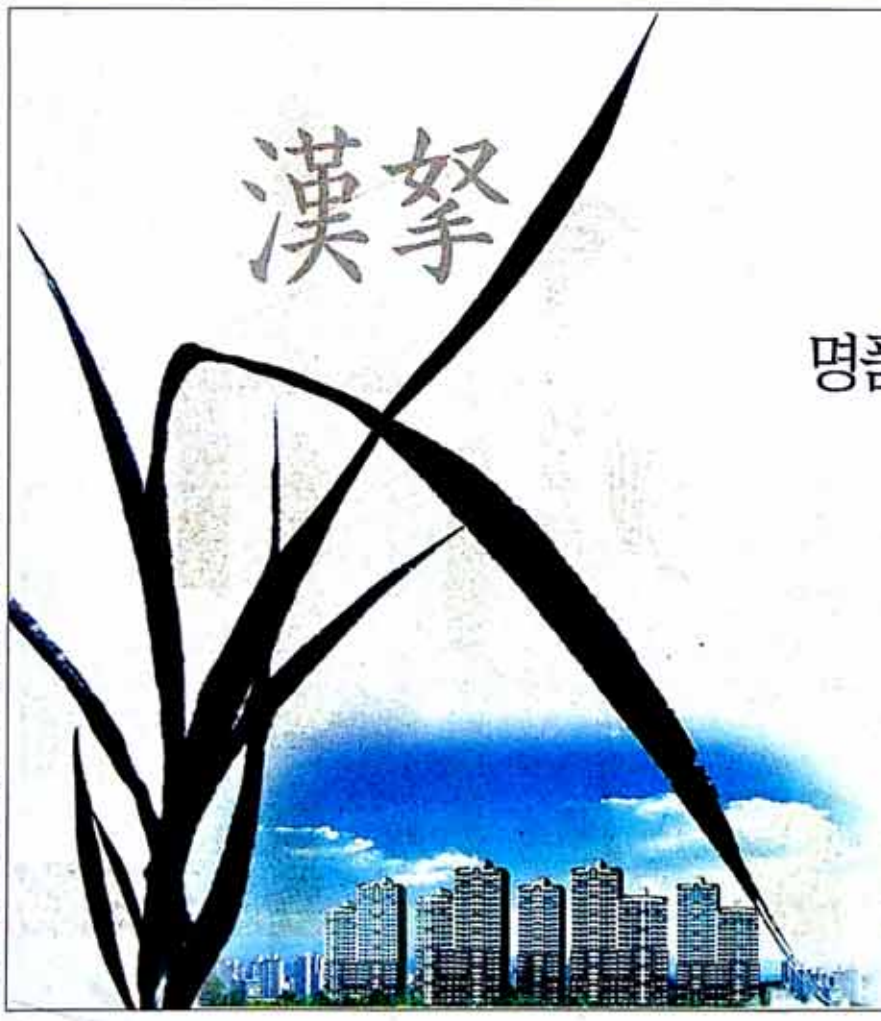
간경수행(看經修行)하여 혜안통투(慧眼通透)하여지고

주력수행(呪力修行)하여 업장소멸(業障消滅)하여지며

참선수행(參禪修行)하여 의단독로(疑團獨露)하여지이다.

"경전결집 육사성취 정신을 확실히 믿고 받들어 행하는 것이 불자의 할 일입니다. 각자 근기에 맞는 불교 5대 수행을 회향해야 하는 것이지요. 불사수행은 성불인연(成佛因緣)을 짓는 일이라 습니다. 인연법이든 근본법이든 간 중한 것이 있다면 복덕과 지혜입니다 사는 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에 경전(經典), 부모나 은사, 어른과 의 은혜를 갚는 은전(恩田), 불쌍한 을 돕는 비전(悲田)등 삼복전(三福 주력해야 합니다. 주력수행은 진실 인 진언과 선법(善法)을 모두 지녀서 져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다라니를 모든 악한 법을 버리고 한량없는 착 을 가지는 것입니다.

간경수행은 경을 보는 것을 말하 입니다. 경문을 소리없이 눈으로 보 어 나아가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명품에는 '격'이 있습니다

아름답되 속되지 않고
부드럽되 흔들리지 않는다!
정직하고 깨끗한 기업 한라건설이
아파트를 짓는 철학입니다.
우아한 기품 속에
변함없는 가치가 빛나는
대한민국 명품 아파트-
한라 비발디

한라건설
www.hallaapt.co.kr

vivaldi river 한라비발디

최고 경쟁률 16.4 : 1
능곡 한라 비발디 리버

능곡 한라 비발디 리버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한라건설은 책임을 다하는 성실시공으로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문의:031-901-9600

SIGMA TOWER

부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이름-
서면 한라 시그마타워

한라건설이 자신있게 선보이는
고수익형 원룸 한라 시그마타워 -
부산의 중심, 서면에서 지금 만나보십시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051-866-4900

발우공양 생활화 해야

큰스님

(장수 죽림정사 조실)



◇예의와 엄격한 계율수지를 강조하는 도문스님. 스님은 전법을 위해 불경과 어록을 100만권 배포하고 100만명에게 수계했다.



◇스님은 항상 상좌스님들에게 금강경의 요체를 설하신다.

음을 이루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 가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니 일과 이치에 따라서 불교를 믿으십시오"라고 힘주어 당부하셨다.

스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염심히 하는 것도 수행이라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중생들은 자신에게 부처님의 성품과 같은 불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밖에서 찾지 않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불사통해 전인류가 성불인연

5대수행으로 지혜의 눈 떠야

수행입니다. 염불수행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올바른 마음의 첫걸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나의 본심은 허상이 아니고 불생불멸의 실상임을 관해 들어가면 부처님 국토에 나는 것입니다. 참선수행은 부처님의 성품과 같은 불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자신 속에 곧 견실심堅實心을 보는 수행입니다."

스님은 백 사람이 모이면 백 사람의 기호와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붓다들이 자기의 근기에 맞춰 한가지의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어떤 경우라도 부처님의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해야 하며, 그 마음을 청정히 받들어야 합니다. 악을 그치고 마음을 청정히 해서 선을 닦아 깨달음을 이루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 가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니 일과 이치에 따라서 불교를 믿으십시오"라고 힘주어 당부하셨다.

스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염심히 하는 것도 수행이라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중생들은 자신에게 부처님의 성품과 같은 불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밖에서 찾지 않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예의와 엄격한 계율수지를 강조하는 도문스님. 스님은 전법을 위해 불경과 어록을 100만권 배포하고 100만명에게 수계했다.

◇스님은 항상 상좌스님들에게 금강경의 요체를 설하신다.

스님은 <불설월상녀경>에 나오는 '월상(月上) 화두'에 대해 설하셨다.

"부처님이 비야라국의 대수림(大樹林)의 초모(草茅)정사에 머무를 때, 성안의 이차(難車) 가(家)에 비마라힐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태어날 때에 몸에서 묘한 광명이 솟아 온 집안을 비추었기 때문에 월상(月上)이라고 이름 하였습니다.

처녀가 예쁘고 단정하다는 소문을 들은 권세 있고 부유한 1천여 집안의 자제들은 월상을 탐하였습니다. 월상은 1천여 명의 총각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 얼굴이 쭈그러들고 볼품없이 될 것이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진정 내 본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보아라' 월상은 이렇게 말하고는 탐욕에 찬 대중들에게 자신이 전생에 욕심을 일으키지 않아서 미묘한 몸을 지니게 되었음을 알리고, 욕심을 여의고 해탈하고자 하는 자는 함께 여래에게 가자고 설하였습니다. 월상의 설법을 들은 대중들은 기뻐하면서 월상을 따라 부처님의 처소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사리불은 500명의 비구와 함께 탁발을 하기 위하여 성으로 오면 중에 월상의 무리와 만났습니다. 사리불은 월상이 부처님을 찾아가는 것을 알고 그녀를 시험하기 위하여 '어디를 가는가?'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월상녀 대답하되 '나는 사리불님처럼 그렇게 갑니다.' 합니다.

사리불 존자가 다시 묻되 '나는 성으로 들어가고 그대는 성에서 나오는데 어찌해서 나처럼 간다고 하는고?' 하니, 월상녀가 도리어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되물어요. 사리불 존자가 대답하되 '부처님의 제자들은 큰 열반에 머무른다.' 하였습니다.

이에 월상녀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열반에 머물고 있으므로 나도 사리불님처럼 그렇게 갑니다.' 하고 답합니다."

스님이 월상과 사리불의 문답을 들려주신 뜻은 무엇까. 가야할 길은 오직 하나뿐인데 사람들은 어느 곳을 기점으로 정해가고 오는 현재의 위치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일 것이다. 모든 법은 분별할 수 없으며, 보리란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명(假名)에 불과할 뿐이고, 법의 모든 상(相)에 머무를 수도 없으므로 열반은 멸(滅)이 없음을 설하는 듯했다. 과연 진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스님은 나직히 "부처님과 부처님이 서로 보지 아니하고 조사님과 조사님이 서로 전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부처님과 조사님의 혜명법은 곧 정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태평양 가서 물마시고, 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내 마음 고요하면 법이며 깨끗하면 부처입니다. 8만4천 무진법문의 교리는 부처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한생각 어디서 일어나는고?' 일어나는 당처가 없는 도리를 깨달으면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것이 극에 달하면 마침내 밝아져 버립니다. 보고 듣는 그 모든 것은 허깨비 환상입니다. 꿈은 허상이지 실상이 아니라고 알아버림으로써 집착하지 않습니다. 삼라만상이 환상임을 깨닫게 되면 집착을 여의고 자성이 밝아집니다." 라고 들려주셨다.

중생심의 표현이겠지만 항상 스님을 뵈면 궁금한 점이, 왜 그렇게 바쁘시냐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스님께 '가야·고구려·백제·신라 초전법륜성지와 경주 남산·불교 5대성지·죽림정사 등 10가지 넘는 불사를 왜 동시에 하시고, 언제까지 불사를 진행하실지 묻었다. 대답은 오히려 간결했다.

"용성 대종사님이 1940년 열반에 드시면서 은사이신 동헌 완규 대선사에게 49일 후에 들어보라며 유훈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10가지 불사를 하라고 지시한 '십사목(十事目)'입니다. 1961년 부산 범어사에서 은사스님께 수법과 동시에 유훈 10사목을 받았지요. 20년간 10사목을 실현하기 위해 은사스님과 노력을 경주했어요. 은사스님이 입적한 83년 이후부터는 상좌, 신도들과 불사해왔는데 2004년이면 모든 불사가 완전히 실현됩니다. 그때까지는 오로지 이 일에 매진해야지요."라고 말씀하셨다.

"내마음 고요하면 법 깨끗하면 부처"

스님은 5대 성지불사는 부처님이 탄생하신 녹야원과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가야 보리수원에만 한국사찰을 짓는 불사를 하시겠다고 말하셨다. 스님은 불사를 직접 하지 않는 대신 불사경비 일체를 인도 현지에서 힌두교도들에 대항해 성지 반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스님들에게 보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모두가 가짜이니 진짜로 돌려라.

몸이여!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生老病死)로구나….

마음이여! 한생각 나오고 잠시 이어지고 달라지고 없어지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이구나….

우주여 이루어지고 존속되고 무너지고 공이되는 성주괴공(成住壞空) 이구나…, 이것이 인연의 가합상 가짜로구나….

불성! 주인공아…!

이 뭣고?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홍법스님

(전호에 이어) 스님께서는 지금 중앙승가대 총장인 종범스님에게 전강하여 강사를 시키고 주지 소임을 맡으셨다. 그 때 나는 해인사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 부르셨다.

"통도사에 와서 중강(仲講)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 강사할 준비를 해요. 통도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얼마 동안 중강을 맡아보면서 공부하게 되었다.

"내가 스님에게 이 방을 줄 터이니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오세요. 이 방은 한용운스님과 운허스님께서 쓰셨던 곳입니다. 여기서 스님도 그분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서원하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화장찰해(華藏刹海)'라는 편액이 붙어있는 마루가 달려있던 방이었다. 스님은 그 방에서 옛날 그 방을 썼던 훌륭한 분들과 같은 스님이 다시 출현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방이 헐려 없어지고 나 또한 스님의 당부대로 되지 못했으니 제행이 무상한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내가 통도사를 떠나 대구 부근 고찰에서 주지 소임을 맡고 있을 때 스님은 깊은 병이 드셨다. 간경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은 대중에서는 서로 피해가 된다며 내가 머물던 조용한 곳으로 오셨다. 내가 쓰던 방을 비워드렸지만 한사코 비워둔 방에 자신의 거처를 만들고 머무셨다. 시내에 나가 간경회에 좋다는 바지락을 사다 국을 끓여 드렸지만 스님은 드시지 않았다.

"왜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합니까? 한 평생을 먹지 않던 것을 이제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더이상 습프게 하지 말아요."

스님의 고집은 완강했다. 그러한 고집이 한평생 수행자로서의 생활을 유지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 스님이 너무 계율에 집착한다고 생각했다. "스님! 스님만 생각지 마십시오. 중생을 위해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스님자신을 위해서보단 중생을 위해 더 사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약입니다."

"그렇다면 알았어요. 내가 혼자 먹을 터이니 스님은 그만 나가 스님일을 보도록 해요."

내가 방을 나온 뒤 스님은 그것을 냄비 채로 들고 나가 텃밭에 붓어버리고 말았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말없이 떠나버리시고 말았다. 지금 생각하면 끝까지 계율을 지키시고자 했던 스님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혀 드렸다는 자책이 든다.

그로부터 얼마 뒤 스님은 입적하셨다. 이제 내가 병을 알고 있다. 이 약 저 약을 먹어보려 생각해보지만 내키지 않는다. 수행자가 병이 들면 대체로 두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참담하다는 생각과 진실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생각하는 것이다. 홍법스님은 그렇게 가셨지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본다. 수행자로서의 삶에 더욱 투철해야겠다는 결론이다.

인욕을 실현하며 사는 수행인에게 어째서 병이 생기는 것일까. 인욕하는 생활이 곧 수행이라면 수행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마도 억지로 참는 행위가 마음에 병이 될 것이다. 인욕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화나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자신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주장하는 순간 아무리 참는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무치게 인식할 때, 화는 사라지는 것이며 매사를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진정 만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겐 언제나 희열이 있을 뿐 성남은 사라지는 것이

약으로 바지락국 드리자

몰래 버리고 말없이 떠나

아닐까. 죄에는 자성이 없다.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자신을 주장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디에 죄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면 매사에 경솔한 생각이 들게 되니 병으로 스승을 삼아라' 고 하지 않았는가. 스님은 병중에도 훌륭한 수행인으로 살다가 가셨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렇게 서둘러 돌아가신 스님이 우리에겐 아쉽지만 당신 자신은 행복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 삼화령 가는 입구를 지나왔다. 여러 해를 해외에서 사느라 한국의 봄을 제대로 느낄 기회가 없었는데 모처럼 한가하게 한국의 봄길을 달려보니 한국의 신록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화령을 지나며 충담스님을 생각했다.

"임금은 지아비요, 신하는 지어미니 백성은 아해라.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우면 백성은 태평하리니."

요즈음 온 나라가 '답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가의 수반이 수반답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다. 정치인이 그 답지 못하고 국민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서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홍법스님이 그리운 것은 비록 짧은 생을 수행자로 살다 가셨지만 '스님다운 스님'이셨기 때문이다. 홍법스님 같은 스님을 다시 뵙고 싶다.

■ 구미 영명사 주지



자비·광명의 미소로 부처님 오셨네!

부처님은 우리에게 미소로 다가 오신다. 부처님이 자비와 광명의 미소로 중생계를 장엄하심에 고해의 중생은 사랑과 희망의 미소로 살아 간다. 부처님이 한 번도 미소를 거두어 들인 적이 없기에 간다라에서도, 사막의 동굴에서도, 중국 대륙에서도, 한반도 온 산과 들에서도 부처님의 미소는 시간을 초월해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가 '열반의 미소를 찾아 천년의 길을 기다(CD)'를 제작하며 모은, 인도·서역·중국·한국의 대표적인 불상 사진을 골라 지면으로 전한다. 잔잔한 미소를 통해 천지가 진동하는 감동을 느껴 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인도 카라사르망오이 지역에서 출토된 소조불입상. 도톰한 얼굴에서 묻어나는 미소가 따뜻하다.



◇인도 마투라 지역 통견불입상. 2세기말 작품. 누구를 반기는 듯한 모습이 친근함을 더한다.



◇한국 서산의 마애삼존불. 6세기말~7세기초. 빛의 방향과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미소를 연출한다. 백제의 미소로 불린다.



◇인도 조우리안 사원지의 소조불두. 4~5세기. 굽타미술의 난숙함이 엷은 미소에 녹아있다.



◇한국 경주의 석굴암. 8세기중엽.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신라의 걸작. 근엄한 표정 그 자체가 깨침의 미소를 상징하고 있다.



◇한국 금동일월식삼산관사유상. 6세기말~9세기초. 턱을 괸 손가락이 은은한 미소를 한결 더 돋보이게 한다. 깊은 사유의 세계에서 피어나는 미소의 잔잔함이 압권이다.



◇중국 운강석굴 제6굴의 삼존불입상 중 본존상. 다소 수줍은 듯하면서도 풍성한 웃음이 일품이다.



◇중국 돈황 257굴의 보살반가상. 아래를 내려다 보는 자애로운 미소가 둥근 얼굴선과 조화를 이룬다.



◇중국 맥적산 석굴 제122호 굴. 북주시대 작품. 긴 눈매와 살짝 미소짓는 얼굴은 자비 그 자체다.



◇한국 금동미륵반가사유상. 7세기. 신비한 미소를 머금은 채 억겁의 사유에 잠겨 보는이의 가슴에 신령한 소식을 전하는 듯 하다.



◇한국 감산사 아미타여래입상. 8세기. 방금 세수를 한 동자처럼 맑은 얼굴이 편안함을 준다.

"부처님의 미소를 드립니다"

인도·서역·중국·한국의 불상사진과 상세한 해설이 담긴 '열반의 미소를 찾아 천년의 길을 기다' CD를 드립니다. **점선을 오려서** 관제 엽서에 붙여 아래주소로 보내주세요. 선착순 100명. 6월 10일까지.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뉴미디어부
· http://www.buddhanews.com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색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읍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璡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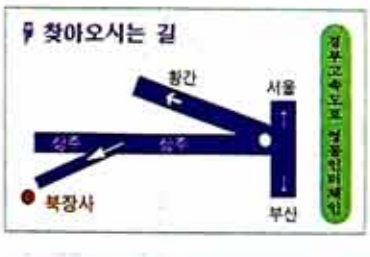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 장 사**
주지 효 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교 통 편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서면 됩니다.



◇경기도당굿을 소재로 한 창작 무용 '신무III'를 선보이는 임이조 남원시립국악단장.

한·일 전통춤 한무대 선다

월드컵 성공기원 '神舞III' 공연 28~29일

전자건반악기 일렉톤의 아름다운 화음이 곁들여진 한 · 일 전통춤이 한 무대에서 만난다.

한국전통춤연구회와 일본의 헤이세이 음대는 '2002 한 · 일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무용 기획공연 '신무(神舞)III'를 28 ~29일 한전 아츠플센터에서 마련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무용가 임이조(남원시립국악단장)씨가 경기도당굿을 소재로 창작한 무용을, 일본에서는 국민무용가 후지마 토요타로가 일본 전통춤을 함께 선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 임이조 단장이 경기도당굿의 화려한 장단을 쳐올려 신당과 같이 무대를 정화시키고, 북소리로 뜻(義)을 알리는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문을 연다. 이어 가부끼를 입은 일본 국민 무용가 후지마 토요타로가 답무로 일본 전통춤을 춘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피날레다. 일본인 작곡가 이데타 케이조(헤이세이 음대 학장)의 웅장하고 감미로운 '일백본' 연주곡 '연무(連舞)'에 맞춰 한국전통민요 '아리랑'과 일본 전통민요 '사쿠라'를 주제로 한 양국의 전통춤이 서로 만나 춤사위를 겨루며 무대의 대미를 장식한다.



◇일본의 국민무용가 후지마 토요타로.

아리랑 · 사쿠라 주제 양국 춤사위 겨뤄

이번 임이조 단장의 공연처럼 5박, 15박 같은 어려운 장단이 특징인 전통 경기도당굿이 전통춤으로 무대화된 역사는 30여년. 서울 · 경기 전통춤의 명인이었던 故 이동안 선생이 조선시대 재인청의 교과 과정을 통해 이 춤을 원형에 가깝게 후대에 전했다. 바로 임 단장의 작품은 대형무대에 맞게 이를 기초로 한 창작물이다.

특히 임이조 단장은 '신무III'에 앞서 스승인 이매방 선생으로부터 전수 받은 춤들로 1부 무대를 꾸민다. 스승으로부터 배운 승무와 자신의 오랜 트레이드 마크인 '한량무'는 직접 자신이 춤사위를 흩날리며, 살풀이춤은 제자들을 통해 선보인다. (02)3461-5825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충체음악극 '고려의 아침'

월드컵기념, 88마당에서



서울예술단이 2002 월드컵을 기념해 야외 총체음악극 '고려의 아침'(사진)을 25일부터 30일까지 올림픽공원 88마당 야외무대에서 공연한다. 총 출연진 141명, 수억원대의 제작비를 들여 3년간 준비한 '고려의 아침'은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외적의 침략을 이겨내려 했던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뗏목이 다닐 수 있는 물길을 조성하는가 하면 인공달과 불타는 장경각 등 첨단 무대 장치를 마련했다. 또 공연중에 배우들과 시민들이 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연등 띄우기 행사도 준비했다. 진짜 불화살이 객석위로 날고 때깨한 연기가 관객들 눈까지 찌르는 전쟁 장면은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02)523-0981



◇목조문수보살 및 시자상(1273년作,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

日 국보급 문화재 300점 한국에

7월 14일까지 중앙박물관

월드컵 한 · 일 공동 개최를 맞아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 300여 점이 한국을 찾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이 7월 14일까지 개최하는 '일본 미술 명품전'은 일본의 국보 24점과 중요문화재(한국의 '보물'에 해당) 104점 등 모두 189건 298점이 전시되는 자리다. 일본의 문화재 해외 전시 사상 최대 규모로, 전시품 대부분이 한국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것들이다.

회화, 조각, 공예품, 고문헌, 고고자료 등 5개 분야로 나눠 전시되는 특별전은 우리 문화와 일본 문화가 어떤 점에서 닮고,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주요 출품작은 기원전 1세기 한반도에서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방울(국보), 12세기 초반 일본의 귀족적 미의식을 잘 드러낸 제석천상(중요문화재), 일본적 미의식이 잘 드러난 13세기 후반 목조문수보살 및 시자상(중요문화재), 일본서기 22 · 24권(국보) 등이다. 권형진 기자

새 형태 사자문 수막새 기와 출토

태백 본적사지서, 경주 외 지역선 처음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본적사 터에서 출토된 사자문 수막새 기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본적사 터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자 문양 수막새 기와가 출토됐다.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 사자문 기와가 출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굴조사를 맡고 있는 강원문화재연구소 측은 12일 밝혔다.

이번에 출토된 사자문 수막새 기와는 두께 1.1~1.9cm에 큰지름이 각각 14.7cm, 14.3cm인 2점이다. 2점 모두 사자가 앉아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사자의 특징인 갈기와 다리, 발톱과 얼굴이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출토된 사자문 기와는 사천왕사, 황룡사, 골굴사 등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것들로 연화문 와당(瓦當) 중앙에 정면을 보고 있는 사자의 머리와 몸통, 갈기를 양각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머리를 간략하게 표현하고, 건장한 다리와 몸통의 볼륨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번에 출토된 2점은 머리가를 뿐 아니라 얼굴 형상이 세부적으로 묘사돼 있어 전혀 새로운 형태다.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본적사 터에서는 이와 함께 통일신라시대 때 경주에서 유행했던 귀면와와 보상당초문 암막새 기와, 연화문 연목와 등 다양한 문양의 기와가 출토됐다.

지난 4월부터 시굴조사를 벌여온 강원문화재연구소 지현병 학이연구실장은 "사자문과 귀면와, 연화문 연목와 등 희귀한 문양의 기와가 출토되는 것으로 봐 통일신라시대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자문 수막새에 대해서는 얼굴이나 다리의 묘사가 1937년 부여 규암면 외리에서 출토된 문양전(보물 343호)의 귀면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日 용안사의 '石庭園'

완벽한 고요와 정지 낯선곳서 나 만난 것처럼 정원을 처음 만든 스님 심성 느껴져

일본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본 것은 교토 선종(禪宗) 사찰의 정원들이다. 그 중에서 특히 료안지(龍安寺)의 가레산스이(枯山水)식 정원이 인상적이었다. 이 양식은 주로 선종 사찰 내 방장실의 앞뜰을 꾸미는 것으로, 선적 세계관을 압축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정원과는 달리 물과 나무를 배제하고 돌과 가는 자갈로 되어 있는데 모래처럼 고운 흰 자갈밭은 바다(우주)를, 이끼 덮인 돌은 섬(존재)을 상징한다.

방장실 마루 바닥에 앉아 앞에 펼쳐진 석정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흰 자갈밭이 서서히 비에 젖어 들어가는 모습은 모든 선입견을 배제한 절대적인 즉물(卽物)로 다가왔다. 완벽한 고요와 정지. 그 순간 마치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난 것처럼, 정원을 처음 만든 스님의 심성이 얼핏 느껴지고 이것이 곧 일본 문화의 원형적 이미지라는 느낌이 들었다.

흰 자갈밭은 가로로 길게 가래질이 되어 있다. 그리고 돌이 놓인 주변에는 마치 수면에 돌팽이가 떨어져 물결이 퍼져 가는 것처럼 둥글게 이랑이 나 있다. 내게는 그 돌이 곧 이 정원이며, 그 물결은 이곳의 양식이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이해되었다. 여행 중에 들린 각 지방의 다실이나 식당의 정원들은 암암리에 선(禪)적 미학의 원형인 이곳을 모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이다. 교육이나 사회제도나 할 것 없이 하나의 시스템이 정착되면 곧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용안사의 석정원은 일본 정원뿐 아니라 기타 일본 문화의 원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일본 도시락의 모양이 그대로 이 정원의 축소판이며, 그 이미지는 꽃꽂이나 하이쿠(짧은 시형식) 등의 다른 일본 문화에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어느 고승에 의해 창안된 하나의 양식이 전 국민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다.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아기자기하게 꾸며나가는 지극히 일본적인 생활양식에서 '하나 속에 전체가 담기는(一中一切)' 화엄적 세계관을 엿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일까? 정원 속에 우주를 축소해놓은 석정원을 본떠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이 아무리 작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하여 우주를 담아보려 노력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흔히 한국불교는 조사선이 강하고, 일본불교는 범부선이 강하다고 말한다. 뛰어난 조사가 많이 배출되어 온 것은 분명 자랑스런 전통이다. 하지만 일반 신도나 국민들이, 조사들이 도달한 구경각의 경지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차라리 선(禪)의 정신이 하나의 구체적인 생활문화로 전파되어, 일반인들도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범부선이 현대사회에는 더 필요한 것 같다. 요즘 일반인들 사이에도 수행 열기가 뜨겁게 불고 있고, 월드컵을 맞이하여 템플 스테이 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사찰을 찾아오는 일반인들에게 조사선의 지고한 경지보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풍의 생활문화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문학평론가

봉

불교계 최초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개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불교와 사회복지 · 상담심리 등 관련분야의 학문을 연구하고 교수하는 전문대학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로서 개인적으로는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 국가적으로는 불국토를 건설하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본교는 지혜의 계발과 자비심의 함양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 · 연구과정 학생모집

국내 유일의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9월 1일 개교합니다.

I. 모집 학과 및 인원
1. 모집학과 : 불교학과 · 상담심리학과 · 사회복지학과
2. 모집인원 : 석사과정 - 50명, 연구과정 - 약간명

II.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출신학과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III.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 5. 20 (월) ~ 6. 05 (수) (www.sgsb.ac.kr)
2. 전형일시 : 6. 8 (토) 10:00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 입학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IV. 특 전
1. 성적우수자 및 모범학생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 장학금 지급
2. 상임연구원 선발 각종 혜택 부여 3. 우수 졸업생 해외유학지원 가능
4. 성적이 우수하고 인품이 훌륭한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학교법인 보문학원 산하 각급 학교 교사 또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산하 각 사찰 법사로 채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거나 본교 홈페이지(www.sgsb.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석사과정 · 연구과정 외에 특별과정, 사회교육원도 운영 함.





대학 행정직원 채용 공고

우리나라 최초 유일의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서울 불교대학원대학교가 2002년 9월 1일 개교합니다. 본교와 함께 도약의 꿈을 펼쳐갈 유능한 인재를 모십니다.

I. 모집 부문 및 인원 1) 학사담당 : 0명 2) 회계담당 : 0명 3) 비서(여) : 1명
II. 지 원 자 격 1) 서류대학 직원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품자르서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을 갖춘자
3)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컴퓨터 사용 능숙한 자
III. 제 출 서 류 1)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통 (이력서 상단 지망부문 명기)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각 1통
3)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1통
IV. 모 집 기 간 2002. 5. 20 (월) ~ 5. 25 (토) 09:00 ~ 17:00
V. 전 형 방 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서류제출 및 문의 ◆ 전 화 : (02) 808-3321, 6582, 6584, 6585 Fax (02) 808-6581 ◆ 주 소 : 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회 원 모 집

축

안양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고 최고의 시설과 높은 신뢰를 자랑하는 재단법인 불교안영원 보장사가 납골당을 존공하여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



(장례에서 납골 · 49재까지 완벽한 서비스)

재단법인 불교안영원 보장사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 인가 전문대학원) · 보문중, 고등학교(대전) ·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자체주차장과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031-471-3322, 02-808-3321

www.bojangsa.co.kr

* 영각당(납골당)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전액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보문중 · 고등학교(대전), 안양시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FIFA 월드컵™에서 선보일 KT의 첨단 종합 정보통신 서비스

- ▶초고속 인터넷을 무선으로 즐긴다 – 무선 메가패스 NESPOT
- ▶사이버 드림타운에서 FIFA 월드컵을 즐긴다 – Ntopia 서비스
-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만난다 – IMT-2000/ CDMA 2000 1x EV-DO
- ▶보고싶은 경기장면을 이동하면서 본다 – 휴대용 동영상 서비스(MP4)

KT
FIFA 월드컵™공식파트너

KT는 한국통신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KT는 불교정보화 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종합안내 서비스 - Hello Korea "1330" ☎ 국번없이 1330

"기회 오면 불교계위해 큰 일 하고 싶다"

정보화 사회의 핵심은 기술기반과 콘텐츠다. 정보화의 기술기반은 인류가 살아가는 새로운 패턴의 토양이며 콘텐츠는 바로 그 토양에서 재배되는 '중생의 먹거리'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사회도 정보화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IT 업계가 있고 이를 움직이는 CEO들의 눈부신 활약이 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근간으로 하는, 마치 '전쟁'과도 같다는 IT 업계를 누비는 수많은 CEO들 가운데는 불심 돈독한 불자도 많다.

현대불교가 부처님 오신날에 만난 IT 업계의 불자 CEO들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불교계를 위해 '큰 일'을 해 보고 싶다는 회향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최종욱


◇김근태


◇조상문


◇조재환


◇임건우


◇김대광

IT업계 누비는 불자 CEO들

최종욱 마크애니 대표

"직원들에게 늘 과욕하지 말고, 과신하지 말자는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욕심부리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열심히 정열적으로 살지만 늘 죽음을 앞에 둔 심정으로 고요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적멸의 가르침을 경영철학 속에 녹여 디지털 문서 보안 전문 벤처기업 마크애니를 운영하고 있는 최종욱 대표는 상명대학교 정보통신학부 교수다. 3년전 마크애니라는 벤처기업을 창립하고 지금은 워터마킹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 보안업계를 주름잡고 있다. 주력상품은 중요문서 및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디지털 문서 위변조 방지 솔루션, 전자 정부 보안 솔루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관리, 워터마킹 제품군 등.

최 대표가 자신의 종교를 불교로 선택한 것은 누이의 영향이 컸다. 경남 내원사, 충남 보덕사 주지를 거친 자광스님이 바로 둘째 누이. 막내누이도 수행의 길을 걷다가 입적했다.

"1973년 영천 은해사 백흥암에서 둘째 누님 자광스님과 현재 대구 부인사에 계신 성타스님, 울산 운문사에 계시는 스님 세분이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때 우연히 함께 21일간 하루 3천배 기도를 하게된 것이 불교와 절절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바쁜 일상에 지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닿는다는 최종욱 대표. 군대에서 읽은 <불교성전>을 가슴에 새기며 IT업계를 뛰고 있다.

김근태 디지토 닷컴 대표

인스턴트 메신저와 커뮤니티, 무선 단문 메시지 서비스 등 다양한 기업-개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디지토닷컴. 1996년 디지토닷컴을 창립해 이끌고 있는 김근태 대표이사가 맺은 불교와의 인연은 독특하다. 일본으로 징용당해 탄광에서 압사한 할아버지의 유품이 일본 사찰을 통해 한국 사찰로 온 후 절에 다니게 된 것. 지금은 시간에 쫓겨 불서읽기로 목마름을 달래고 있다.

"PC통신이 주류를 이루던 당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통해 교리를 배우고 참선으로 마음을 다스리니 여유로운 마음이 생겼지요. 불서를 가까이 두고 부처님 말씀을 새기면 마음 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지난 여름 직원이 선물해준 '반야심경에서 찾아낸 108가지 성공비법'은 감명깊게 읽은 책 중의 하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모두가 과정이기에, 내 안 부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배워 나갈 수 있기에 불교에 심취한다"는 김 대표.

조상문 네오텔레콤 사장

"자비심의 중요한 일면은 다른 이들에게 의식주를 나눠주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자비행위만으로는 온전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진정한 자비심은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가 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라는 책의 한 구절이다. 하지만 3평짜리 다락방에서 창업한 회사를 한국 최고의 통신장비 전문 벤처로 만든 네오텔레콤 조상문 사장이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어머니가 안동 제비원 연미사에서 부처님 전에 100일 기도를 정성껏 올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운명 이상의 무엇'이라 믿고 있는 조 사장. 어쩌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경영철학을 가지게 된 것이 필연일 수밖에 없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도솔천사에 다니는 조 사장은 최근들어 바쁜 업무로 시간을 내어 절을 자주 찾아가지 못 하지만 '남 모르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신념아래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고 있다.

네오텔레콤은 1995년 설립되어 정보통

조재환 웹데이터뱅크 이사

지난 4월 18일 조계종 종정 추대식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불교계에 알려진 웹데이터 뱅크는 CDN(Content Deliver Network)이라는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난 4월 18일 조계종 종정 추대식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불교계에 알려진 웹데이터 뱅크는 CDN(Content Deliver Network)이라는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도 육바라밀 정신이 자신이 가진 경영철학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정도다.

어린시절 처음으로 어머니 손을 잡고 절을 찾을 때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걸어 들어가면서 받은 사찰의 첫 느낌을 잊지 못한다는 조 이사는 평소 부모를 포함

임건우 건우ETP 대표

온라인 컴퓨터A/S 서비스가 뜨고 있다. 컴퓨터 내에 A/S용 칩을 넣어 판매하고 그 컴퓨터에 이상이 있을시엔 본사에 연결된 네트워크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A/S한다. 건우ETP에서 제공하는 '코마스존'은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원격으로 컴퓨터 고장을 처리해 주는 최첨단 정보통신 서비스이다. 위성 인터넷방송, 게임CD타이틀, PC주변기기, 전용선, 각종 통신장비 등 각종 장비를 공급하고, PC방 프랜차이저와 IT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우ETP 임건우 대표는 동국대학교 선학과에서 불법을 공부했고 불교계에서 9년간 언론생활도 했다.

임 대표의 불교사랑은 남다르다. 자신의 신행생활에 충실한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중에는 불교NGO단체들을 후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불교계 전체가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는 대승적인 생각이 그 바탕이다.

김대광 DANAH I&C 대표

DANAH I&C는 사찰 홈페이지 제작 관리 및 프로그램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불자 벤처회사이다. DANAH에서 주로 하는 일은 웹컨설팅과 사찰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보수, 프로그램개발과 멀티미디어 개발 등.

2001년 9월에 설립됐으며 모든 사원이 불자이고 불교학생회 활동을 한 법우(法友)들이다.

"해인사를 비롯한 30여개 사찰의 홈페이지를 제작 및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학적관리시스템을 개발했고 전국강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덕사 성보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수덕사 성보박물관의 유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큰 보람입니다."

DANAH I&C의 김대광 대표는 불교계의 방대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

강지연 · 김두식 · 이한길 기자

보안전문기업…KT마크등 실력 탄탄
21일간 3천배 기도 불교와 인연시작

조재환 웹데이터뱅크 이사

지난 4월 18일 조계종 종정 추대식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불교계에 알려진 웹데이터 뱅크는 CDN(Content Deliver Network)이라는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도 육바라밀 정신이 자신이 가진 경영철학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정도다.

어린시절 처음으로 어머니 손을 잡고 절을 찾을 때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걸어 들어가면서 받은 사찰의 첫 느낌을 잊지 못한다는 조 이사는 평소 부모를 포함해 전 가족이 서울 우이동 도선사에 나가는 독실한 불자다.

지금은 전국에 있는 사찰을 순례하며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화재를 카메라에 담고 있다.

종정추대식 인터넷 생중계로 알려져
어머니와 절에…일주문 느낌 잊지못해

日사찰서 조부유품 보내와 불교귀의
'내안의 부처 만나기' 경영철학 발원

임건우 건우ETP 대표

온라인 컴퓨터A/S 서비스가 뜨고 있다. 컴퓨터 내에 A/S용 칩을 넣어 판매하고 그 컴퓨터에 이상이 있을시엔 본사에 연결된 네트워크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A/S한다. 건우ETP에서 제공하는 '코마스존'은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원격으로 컴퓨터 고장을 처리해 주는 최첨단 정보통신 서비스이다. 위성 인터넷방송, 게임CD타이틀, PC주변기기, 전용선, 각종 통신장비 등 각종 장비를 공급하고, PC방 프랜차이저와 IT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우ETP 임건우 대표는 동국대학교 선학과에서 불법을 공부했고 불교계에서 9년간 언론생활도 했다.

임 대표의 불교사랑은 남다르다. 자신

인터넷 접속으로 PC 고장 원격처리
대학서 禪學 전공·불교 NGO 도울터

김대광 DANAH I&C 대표

DANAH I&C는 사찰 홈페이지 제작 관리 및 프로그램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불자 벤처회사이다. DANAH에서 주로 하는 일은 웹컨설팅과 사찰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보수, 프로그램개발과 멀티미디어 개발 등.

2001년 9월에 설립됐으며 모든 사원이 불자이고 불교학생회 활동을 한 법우(法友)들이다.

"해인사를 비롯한 30여개 사찰의 홈페이지를 제작 및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학적관리시스템을 개발했고 전국강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덕사 성보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수덕사 성보박물관의 유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큰 보람입니다."

DANAH I&C의 김대광 대표는 불교계의 방대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

해인사 등 30사찰 홈페이지 제작·관리
수덕사 성보박물관 유물 DB화 보람

강지연 · 김두식 · 이한길 기자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기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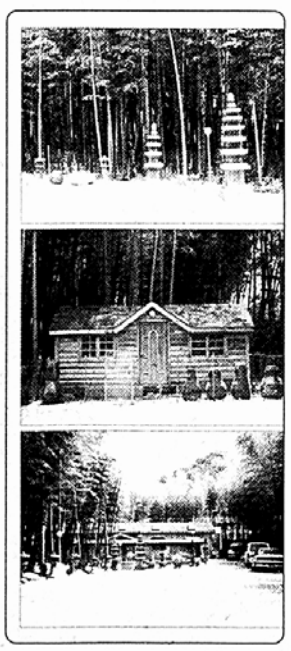
생인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사찰 안내

◇ 사찰, 양로원, 요양원, 사회복지사업 하실 분 최적지

◇ 체어맨 자동차 CF 뒷배경(대나무 왕대)
- 맥반석 지하수 물이 흐른다
- 탑(3개)
- 동불(1개)
- 장승(10개)

· 대지 : 1950평
· 건물 : 100평
· 수영장 : 50평
· 통나무집 : 2채
(평당 27만원)



◇ 소재지
전남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624-24
죽림원

◇ 연락처
011)9604-4730
062)652-4730 062)675-4730

모집 안내

■ 한국의 불교미술(탱화 · 단청 · 불상조각)의 맥을 이어온 것은 마곡사의 금어(화원)스님들이었습니다. 그 맥은

춘담 봉은 — 금호 약효 — 보응 문성 정연 호은 / 금용 일섭 지정 좌영 / 해봉 석정 진호 병진

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불사를 업으로 하고 있는 화원의 삼분의 이가 마곡사 계통의 화원들입니다.

■ 장안사에서는 금어원을 개설하여 불교미술을 배우고자하는 이들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스님들이나 재가불자님들께서는 아래의 전화나 주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전통적인 탱화나 단청불사 내지 불상을 조성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금어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어원 원장 주남 동수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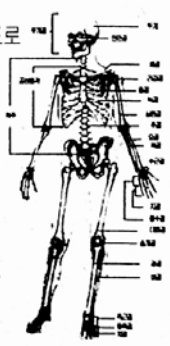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1
전화번호 031)908-1463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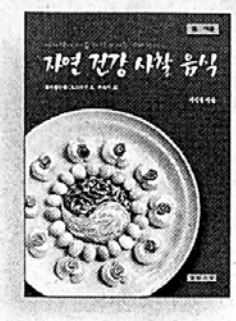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손쉬운 재료로 채식요리 358가지





자연 건강 사찰음식 이여영 지음

현대적 조리법 가미 사계절로 나눠
음식효능 동의보감 등서 뽑아 소개

불가에서는 음식을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여긴다. 이런 정신을 담은 사찰 음식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건강음식'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정작 집에서 사찰 음식을 즐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사찰 음식의 조리법이 생소하거나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사찰음식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여영 씨의 <자연 건강 사찰 음식>(열린서원)은 전통 사찰음식뿐 아니라 파인애플과 키위, 피망 등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아이들도 즐겨 먹는 재료를 이용한 채식 요리 358가지를 선보였다.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순수 채식 요리법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지은이의 말처럼 어육류와 오신채를 쓰지 않는 전통 사찰음식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조리법을 더한 요리들을 봄 · 여름과 가을 · 겨울 두 권의 책으로 묶었다. 냉이, 쑥, 민들레 등 봄나물부터 오이, 애호박, 가지 등의 여름 채소, 송이, 표고, 싸리버섯 등 가을 버섯과 연근, 무청, 시래기 등의 겨울 채소까지 사계절 재료를 이용한 요리를 소개하고 있다.

조리법은 네다섯 줄로 정리될 정도로 간단하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천식과 만성 기관지염에 좋은 쑥 주스와 옻을 내리고 부종을 없애주는 돗나물 연근냉채 등 음식의 효능을 <동의보감>과 <본초강목> 등에서 찾아 싣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법을 소개한다. 책 뒤에는 음식에 쓰이는 오미자 소스, 두부 참깨 소스 등 여러 소스와 국화기름, 녹차기름 등의 기름 만드는 법을 담았다.

궁중음식의 전통이 전해오던 외가의 영향으로 20대 중반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은이는 사찰음식만을 고수하는 불교학자 남편을 만나 순수 채식위주의 건강음식을 연구하게 됐다고 한다. 30여년간 자신이 개발한 1000여 가지 음식의 조리법을 노트에 담아 놓은 지은이는 이번 책에 담지 못한 것들도 책으로 펴내고 '사찰 음식 전문 학원'을 개원해 그 비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씨가 개발한 새송이 포와 표고버섯 포는 현재 특허출원 중이며, 앞으로 상품으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값 각 권 1만9천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내일 오실 부처님 선용 지음



<내일 오실 부처님>(선용 지음, 선암사)은 부처님 열반 후 56억 7천만 년 뒤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 미륵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미륵부처님의 전생과 어린시절 이야기, 미륵정토인 도솔천에 가시기까지의 이야기를 엮었다. 책 뒤에는 여러 사람에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미륵이 한 날 한 시에 여러 명으로 불어나 밭일을 해치우는 등, 민담 속에 나타나는 미륵 부처의 이야기 4편을 실었다. 값 6천원.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화동 지음 / 김형주 사진



법전 등 33 큰스님과의 산중한담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서화동 지음, 김형주 사진, 은행나무)는 우리시대 큰스님과의 산중 한담(山中閑談)이다. '한국경제신문' 종교담당 기자인 지은이가 '치열한 구도행과 실천적 삶을 통해 체득한 지혜를 듣기 위해' 불청객을 마다않고 곳곳을 찾아 들은 후 신문에 연재했던 법문들을 책으로 묶었다.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대마을에 선원을 세워 다중을 지도하고 있는 성수 스님에서부터 현 조계종 종정인 법전 스님, 출가 이후 하루 점심 한 끼만 먹고 정좌불와를 실천하고 있는 성륜사 조실 청화 스님,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에서 외국인 납자들을 지도하는 대봉 스님 등 서른 세 분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욕심과 집착을 털어낸 곳에 마음자리가 있다. 분별 말고 상(相)을 내지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하심(下心)해야 한다…' 등 큰스님의 가르침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들이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며 살아온 스님이기에 그 울림은 더욱 커진다.

자연스러운 순간을 담은 사진 또한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값 1만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극락은 있다	관 정	붓다의마음
3	달라이 라마의 행복록	류 시 화	김 영 사
4	회색고무신	윤 청 광	시 공 사
5	성철스님 시봉이야기1	원 택	김 영 사
6	티베트 명상법	툴쿠툰둡	두 레
7	근본불교	이 중 표	민 족 사
8	그곳엔 부처도 갈 수없다	대 우	현 암 사
9	보왕삼매론강의	김 현 준	효 림
10	마음을 다스리는 티베트 명상법	조셉아르파야	지혜의 나무

도서 안내: (02)737-0695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물리학 원리와 화엄경, 절장 禪話와 선문답을 아울러 깨닫지 못한 누구라도 절대 경지를 엿보게 하는 책.
大燕 지음 | 값 15,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한국의 사찰 현판 1 신대현 지음



44개 사찰 현판에 담긴 내용 소개

사찰 한구석에 걸린 현판은 비록 시선이 가더라도 모두 한문으로 쓰여 있고 또 너무 높이 걸려 있어 쉽게 읽을 수 없다. <한국의 사찰 현판>(신대현 지음, 혜안)은 속초 신흥사와 김제 금산사, 영주 부석사 등 전국 44개 사찰에 전하는 현판과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현판은 단순히 전각의 명칭만을 적은 편액과는 달리 대체로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중수 · 중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판의 구성은 맨 앞에 '사찰 또는 어떤 전각을 중건 또는 중수하면서 짓는 글'이라는 제목을 적고 그 다음으로 사찰의 위치 유래, 연혁, 사찰 또는 해당 전각을 수리하게 된 인연, 중수한 스님이나 시주자 이름 그리고 중수기를 작성한 인물과 이름 등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사찰의 중수 · 중건에 얽힌 이야기뿐 아니라 의승군의 주둔지였던 여천 홍국사의 '남장군 순절비'를 통해 임진왜란 시 이순신 장군과 함께 해전에서 왜군을 물리친 남유 장군의 일대기를 펼쳐 보이기도 하는 등 사찰의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와 연혁을 밝히고 있다. 값 1만2천원.

부처님 삶 이렇게 읽으세요

다큐멘터리 소설 붓다 유홍종



붓다의 대야망은 무엇이었을까
'존재와 무'의 의혹 경전통해 해결

우루벨라 숲에서 나온 한 남자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강 쪽으로 가고 있다. 그는 너덜거리는 누더기 승복을 걸치고 있고, 얼굴은 영양실조로 삐쭉 말랐으며, 가슴은 앙상하게 드러난 영락없는 상거지 꼴이다. 바람만 세게 불어도 금세 휘청 쓰러질 듯 하던 그 남자는 미처 강물 가까이 가기도 전에 제 풀에 겨웠는지 모래 위에 벌렁 누워버린다. 너무 굶주리고 지쳐서 더 이상 꼼짝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 때 몇 마리의 새들이 이마 위를 가로질러 숲으로 날아간다.

카필라 성의 부왕에 이어 왕권을 계승해야 할 왕세자가 무슨 이유로 그 막강한 권력과 영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참담한 고행 길로 들어섰으며 왜 네라자나 강가에 쓰러져 있는 것일까? 우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영혼의 비밀이 은밀히 숨어있었다.

바로 그 이야기이다. 붓다가 품었던 위대한 야망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 붓다는 니르바나의 열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도대체 그의 깨우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다. 이 책은 바로 그 점을 추적해서 쓴 다큐멘터리 소설이다.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중점은 둔 것은 '모든 경전은 붓다의 설법에서 나왔으며, 모든 설법은 붓다가 깨달은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 깨달음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책에 부제를 붙인다면 <초보자의 불교읽기>가 될 것이다. 이제 불교 초보자가 이 책을 읽고 조금이라도 붓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면 저자로서 그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부처님 생애 정각 스님 지음



학생회원들에 희망 주려 저술
내면의 감동과 교리 전달 꾀해

모든 종교에 있어 창시자의 삶의 과정을 묘사한 내용들은 각각의 경전 곳곳에서 발견된다. 또한 경전 외경(外經)들에서는 그것들이 총괄적으로 정리, 어느 정도의 신화적 허구성과 인위성을 포함한 채 하나의 도그마(Dogma)로서 존속해 있기도 하다. 하나의 종교 체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창시자의 생애를 한편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 이는 종교 생성의 필연적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도 좋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팔만대장경'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하신 부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뼈대 없는 골체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인격성과는 결별된 공허한 이론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붓소행찬> 등에 담겨진 팔상록, 즉 부처님 생애와 교훈들은 인간적 모습의 불타상을 통해 인간의 도달 가능성으로서 불교 자체를 깊이 있고 예술성 있게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 불교에 대한 경외감과 창시자 붓다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3년 전, 필자는 송광사 강원에 머물며 중 · 고등부 학생회 지도법사를 맡았다. 학생들과 어울리며 그들 가슴에 불교적 감수성을 심어 주고자 나름대로 노력했던 당시 불교입문자들이 쉽게 다가설 만한 책이 그리 눈에 띄지 않았으며,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책 조차도 1종의 일본 번역본 및 2종의 편저뿐이었다.

나는 학생회 회원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부처님 생애>를 썼다. 인도의 Kallash Pustakalya 출판사에서 간행된 <Life of Buddha>를 저본 삼아 그 책의 빈약함과 기술된 내용의 여러 오류를 수정하면서도 짧은 분량 속에 내면의 감동과 교리의 전달을 동시에 꾀하고자 했다.

天物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02)447-9114

부처님 말씀 · 깨침의 소리
불교성전
5년간의 준비끝에 새롭게 출간된 불교성전!
오랫동안 불교를 믿거나 공부하고도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불자나 초심자도 『불교성전』을 펼치는 순간 환희와 신심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도 무한 경쟁시대—! 佛法을 바로 알아야 불교를 지킵니다.

중 요 차 례

⊙ 제 1 부 경전의 말씀
제 1 장 서 품
제 2 장 교리강령품
제 3 장 불 타 품
제 4 장 신 앙 품
제 5 장 업 연 품
제 6 장 자 치 품
제 7 장 대 치 품
제 8 장 포 교 품
제 9 장 구 경 품
⊙ 제 2 부 간추린불교
제 1 편 부 처 님
제 2 편 가 르 침
제 3 편 수 도
제 4 편 교 단
⊙ 제 3 부 독송경 · 발원문
천수경 · 예불문 · 반야심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원각경보안보살장
화엄경보현행원품
부모은중경
법성게 · 무상계
기도발원문
천도법어 · 찬불가

4×6판 최고급 호화금장 양장제본
70g 고급 미색 모조 600페이지 값 18,000원
전국 유명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법보시 및 단체주문시 특별인쇄 공급합니다.
▣ 계좌번호: 농협 053-01-102503 예금주: 김정길
弘法院 (02)739-8745~6

성 명 서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홍보에 따른 국가사적지 배제와 관련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32일간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동굴박람회 개최는 많은 시민들이 아는 바와 같이 삼척의 역사 문화와 관광삼척 등을 널리 알려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모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사의 팔상전과 대웅전은 지방유형문화재 제77호 및 제76호로 지정됐으며 신흥사의 설선당과 심검당은 지방문화재 자료 제108호로 각각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고찰인 영은사와 신흥사마저도 처음부터 홍보물에 이름만 일부 거명되거나 아예 누락된 채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고 있는 등 홍보취지에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천년고찰인 삼척시미로면 천은사는 우리나라 3대 역사서로 잘 알려진 <제왕운기>를 저술한 '이승휴사적지'로 강원도에서 몇개 밖에 없는 지방유적지 제60호와 국가사적지 421호로 지정된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오는 동굴박람회에 참여하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에게 관람기회를 박탈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동굴박람회는 실직고도인 삼척의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고 빼어난 자연환경과 동굴도시로서의 관광 삼척 이미지를 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삼척과 우리를 있게 한 문화재라 할 수 있는 이승휴사적지를 대외홍보지 홍보물에는 인근 지역의 산 지명인 쉰음산으로만 표시하고 있으며 영은사 신흥사도 같은 상황인 채 무려 10여가지 홍보물에 약 10만장씩 모두 100여만장을 제작해 전국 및 세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경로로 홍보 팸플릿의 디자인과 기획하는 과정에서 국가사적지 421호로 지정되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국민의 테마여행지중 '가 볼만한 곳' 10곳 중 하나로 지정 · 고시된 삼척지역의 유일한 전통사적지 천은사가 실수로 누락돼 인쇄됐다기 보다는 김일동시장이 불교계를 배척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질러진 횡포라고 단정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002 삼척세계동굴박람회의 본래목적을 훼손시키고 전 국민들에게 마땅히 알려 박람회개최 기간동안 이곳을 찾는 많은 관공객들이 우리의 역사가 창조된 <제왕운기>의 저술지이고 이승휴의 유허지를 구경할 권리를 원초적으로 박탈당함에 따라 모든 홍보물을 다시 제작 배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국가사적지 421호를 답사하고 역사문화를 다시 일깨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척시의 책임자인 김일동 시장이 만약 우리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첫째. 동굴박람회가 윤리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남근깎기대회 같은 것이나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귀중한 문화자산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는 듯한 의문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도민들과 함께 그 사유를 끝까지 규명할 것입니다.
둘째. 작금의 치적등을 간접적으로 적극홍보하면서 향토문화의 특성을 소홀히한 모든 편향된 시각의 홍보물은 즉각 회수할 것이며, 이런 결과를 초래한 관계공직자에 대하여는 문책이 따라야할 것입니다.
셋째. 이 땅에 이미 토착화된 불교문화를 무시한 듯한 폐쇄적인 처사에 유감을 표명하며, 투철한 역사의식과 포용성을 가지지 못한 행위는 파사현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동굴박람회가 강원도의 중요시책인 향토문화 르네상스운동과 같이 민족 및 향토문화와 연계하여 지방문화의 재창출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참여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전 강원불교도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2년 5월 11일

●강원불교 연합회장 조계종 제3교구 설악산 신흥사 주지 마근
●한국불교 태 고 종 강원교구 석 왕 사 주 지 편 백 운
●원주불교 연합회장 조 계 종 구 룡 사 주 지 이 원 행
●춘천불교 연합회장 조 계 종 청 평 사 주 지 이 청 화
●영월불교 연합회장 조 계 종 법 흥 사 주 지 김 도 완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현해
●한국불교 천 태 종 삼 운 사 주 지 김 월 도
●강릉불교 연합회장 조계종 낙 가 사 주 지 이 청 우
●삼척불교 연합회장 조계종 천 은 사 주 지 문 일 봉
●동해불교 연합회장 조계종 삼 화 사 주 지 원 명

알 립 니 다

저는 2001년 10월 16일에 이곳 성읍리 1386-9 법성사라는 사찰을 전주지스님에게 일금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이곳 성읍리 1386-1로 이사를 왔습니다.
16년전에 이절을 전주지스님에게 팔고 간 스님이 자기것이라며 저에게이곳을 비워 달라며 최고장을 보내고 당신몸이 불구라고 깔보면 큰코다친다고 협박을 하고 몇몇 신도를 선동하여 저에게 출입금지 가처분을 해오고 현재까지 절의 모든행사를 못하게 법당을 접거하고 행패와 욕설을 하는 등 현재까지 아무런 행사를 하지 곳하고 법적대응으로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와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2002년 4월 10일에는 전전주지소유라며(가옥대장상에 멸실되어 없음)공고를 부치고 법당고 요사채를 폐쇄하고 4월 11일에는 절입구를 돌로 담을 쌓아 막아버렸습니다. 없어진 건물이(가옥대장)당신이름으로 도어 있다고 하여 16년젼에 양도증서를 써주고 일금 1,500만원 받고 떠난 사람이 이제와서 5, 6명을 선동하여 기존 신도회장을 해임하고 임으로 새로운 교도회 임원이라 구성하여 임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저에게 갖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절은 재단법인 대한 일붕선교종에 등록(토지)이 되어있고 건물은 미등기입니다.

법당은 현재 기와지붕으로 약 30-40평으로 되어있고 요사채는 슬라브지붕으로 약 35평됩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법당은(가옥대장) 13평이며 슬레트 지붕으로 되어있고 현재는 밀실되고(15년전)없고 새로지은 기와지붕 40평(법당)입니다.
16년전에 팔아먹고 간 사람이 자기것이라며 법적 교도회(임원)금전,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으며 이문제로 현재 법원에 재판중이며 검찰에 조사중입니다.

교도회원임원이라는 6명은 틈만 나면 절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만 경찰이 출동하여도 이문제가 재판 중이므로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가 없다고 몇번이나 되풀이가 되고 이쓰며 4월 23일에 (재단법인대한불교일붕선교종)종단에서 나와 법당을 개방하였으나 4월 23일 저녁에 다시 폐쇄가 되고 이날 저는 임원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등과 목을 맞아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재단 법인 일붕선교종이나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이나 2개로 분열되어있는 상태에서 저는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단법인일붕선교종에서 2001년 11월 1일 자로 주지 임명장을 받았는데 이 절을 16년전에 팔관 스님은 2001년 12월 7일자로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에서 발행한 주지임명장을 들고와 당신이 주지라고 나가라고 하길래 제가 사가지고 온 돈만 주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니 돈은 못주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나그네가 주인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으며 종단싸움에 왜 제가 희생양이 도어야 합니까? 또한 신도는 신도로써 부처님 앞에 참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도지 법당문을 잠그고 절 입구를 막는(새로 구성된 교도회 → 현주지 인정 치 않음) 무슨 신도입니까?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살길이 막막합니다. 어린 세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삶의 회의를 느끼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 5월 1일자로 16년전에 팔고간(고승립) 명의로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제주도 검찰청 2002년 503호 검사실담당 사건번호 제 6400호, 제주법원 사건번호 2002카단 15]

성 명 서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수유리소재)종정 무찰 김태현, 총무원장 동봉 정대룡, 대한불교 일붕 선교종(신영동소재)총무원장 장연종 위 두종단 싸움에 희생양이 된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소재 법성사 피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본인은 재단이사인 이영우(정관)씨가 이사직과 재산 소유권을 2002년 3월 31일까지 안 넘겨 주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놓고 아직 안 넘겨 줌으로 재단에 재산 소유권을 넘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 사회적 명예훼손 등을 요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 이사 한사람도 동의 하지 않으면 사찰 처분이 안된다는 약속은 이영우(정관)씨가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모든 임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2001년 11월1일자로 사암등록과 주지발행(수유리소재 총무원장 동봉 정대룡)을 해주고 1개월 뒤(2001년 12월 7일)자로 또다른 주지 임명장을 (신영동 발행)받은 쪽에서 법당, 요사채, 사무실과 절입구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본인은 왜 두 종단싸움에 희생양이 되어야하고 어느쪽이 정당한 종단인지 알 수가 없으니(신영동소재, 수유리소재) 두 종단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16년전 주지(원효종)고승립씨는 이영우(정관)스님에게 추천서와 양도증서를 써주고 떠난 사람이 지금와서 당신(고승립)사찰이라고 본인에게 사찰에서 나가라고 멱멱 신도를 선동하여(교도회임원을 구성)절에 모든 행사를 방해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영동 소재(총무원장봉암장연종) 수유리 소재(총무원장 동봉정대룡) 두 종단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여 법성사가 사찰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주고 스님은 스님의 본분으로 신도는 신도의 본분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증빙서류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2. 사암 등록증 3. 주지 임명장 4.추천서 5. 양도증서

추 천 서

금반 본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소재
법성사 주지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후임 주지로 이영우(정관)스님을 최적임자로
선정하고 추천하는 한편 사찰 재산 일체를 위임하나이다.

서기 1986년 12월

추천인 고승립 제주 종무원장
대한불교 원효종 귀하

양 도 증 서

금반 본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소재 법성사
주지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사찰 재산 일체를 양도하고
(대웅전, 종각, 요사 2동)및 이동수 전 악 일백삼십평(130평)을
이영우(정관)스님에게일금 일천오백만원을 받고 양도함.

양도자 고승립
양수인 이영우(정관)
서기 1986년 12월 16일

효사 육임강의록

출 시

육임 좋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동안 공부할만한 교재가 없었습니다.
육임 전문가용을 여러권 쓰고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해 오는 동안 쉽고 빠른 입문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이번에 체계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효 사-

◆값 300,000원
◆입 금 : 한빛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 문
◆전 화 : 02-993-8680
◆부산지사 : 051)851-2349

강의록 순서
기본편
입문편
활용편
전문편
형이상편
운명판단편
세밀정단편
길흉상담편
국수래정편
30년 월장편

■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전문가용)
좌정용 : 1,300,000원
휴대용 : 1,500,000원
증보판 : 350,000원

제2차 육임수강생모집

3개월 12주 완성

◆ 강의시작 : 6월 7일 오후 7시부터 ◆ 강의시간 : 3시간
◆ 교 재 : 효사 육임 강의록
◆ 수 강 비 : 1,500,000원(교재 효사육임강의록 포함)
◆ 마 감 : 6월 5일까지 선착순 ◆ 정 원 : 30분
◆ 입 금 : 한 빛 813-041583-13-101 ◆ 전 화 : 02-996-3335

한국육임학회 육 임 학 당 효 사 숙

■ 육임비디오 수강 1,200,000원(교재 효사육임강의록 포함)
– 3개월 12주 강의 내용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으므로 강의록 교재와 같이 읽고 보시면 공부가 완성됩니다. –

육임신수비결 250,000원 육임세밀정단법 100,000원
육임형이상법 150,000원 육임운명판단법 130,000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배우자 구함
자축인공수정소를 운영하고 있는 41세 미혼남성입니다 평생을 불심으로 함께 할 미혼여성을 원함
018)415-0086

배우자 구함
현재 포교원을 운영중인 포교원장으로 있으며 평생을 불심으로 함께 할 38~45세 사이의 진실한 여성분 원함
011)9893-3421

女 행자.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충남공주
041)841-7904
017)261-7905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1)462-7374
018)523-7374

배우자를 구함
한국과 일본에서 포교원을 운영중인 포교원장이며, 평생을 포교사업을 함께할 45-52세 불심이 있는 여성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011)814-6677(운경)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금성사
051)895-4416
051)895-4558

불교사업
천궁, 천상, 화장세계로 불자님을 모십니다
존재하지 않은 독특한 아이템
깨끗한 불심 강한 불자님만 전화주세요
033)747-4616~7
윤범식 합장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주지스님을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직할 포교당으로 포교에 원력이 있으신 젊은 스님을 모십니다.(부산 화엄사 각성큰스님께 풍부하러가는 관계로)
◉ 위 치 : 경북 구미
◉ 특 징 : 불교대학을 운영하며 어린이 포교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좋겠습니다.(전권을 이임하며 조건 없음)
◉ 연락처 : 054)974-8073, 8074 011)9351-6330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각종 행사 문안 작성
설법 · 법문 · 발원문
권선문 · 축사 · 인사말
출판제작(법요집)
글 밭 농 원
전화 02)312-6636
팩스 02)393-6606

법당 및 공양주 보살 운전기사 관리보살 모십니다
031)533-4405
011)261-440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02)353-3004
02)359-7766

행자구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41)566-6301
041)566-0722

녹 차 판 매
※ 지리산 화개 야생수제차
※ 사찰 보시 가격 공급
차만들기 교실
■ 차만들기 실습 견학
■ 차를 만들어 갈 수 있음
Tel : 055)883-9321
영목다전(지리산 하동 쌍계사 근처)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 행자(예비스님)모집 - 조계종
●행자전문도량 - 행자원 (시내 또는 산중)있음
●앨리트 스님양성 목표 (40세 이하, 고졸이상)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납골당
●최신의 시설로 영구보존
●설, 추석 재사천도 및 기일 축원 해 드림

▸문 의
대구 053)474-8228
www.TVbuddha.co.kr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
02)2234-3310
관 음 사

아이를 보면서 생활하실 보살님 구합니다
▷천안 보현사
월 급여 상담 후 결정
041)554-8486

49재 천도재 시다림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무보시 상주한 사찰을 찾습니다)
사주 명리학도 연구합니다
053)751-1176
016)857-4500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 작업착수 등기 송달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독거꼽추인분들께
부전 비구니 스님과 신심이 있는 꼽추인 보살님을 모십니다. 신체상 변화를 보신 후 부탑, 불사사 등에 동참하실 분 모십니다
043)423-182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성북구 정릉 4동 보림사
02)9[illegible]

◇붓다쇼핑닷컴◇
인터넷 불교용품 전문쇼핑몰
마하(大) 만다라 액자 및 족자
유명작가 진품 달마도 쇼핑몰
금강경백자등 도예 광고방송
불교음반 불교예술 불교정보
홈페이지 제작, 관리 및 홍보
www.BuddhaShopping.com
연락처 0505-882-3456
붓 다 넷 코 리 아

사무보살 모십니다
▷ 파주 약천사
031)942-125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042)841-608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20분거리 원주 새말 IC에서 10분거리
● 건평 : 약 10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 큰방 5개, 산신각(5평)
납골당 100개 향나무 시설 완비
● 특징 : 산세좋고, 기도처로 최적 사용가능 부지 약 1000평
● 가액 : 1억 5천 (전세)
오래계실스님을 원합니다
011)771-5597
033)345-5597

약 사 암
원인모르게 병고에 시달리는분
가정에 우환이 많은 분들
상담바람
02)796-851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 당 : 23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166평
● 가 액 : 3억 7천

● 위치 : 논산
● 법 당 : 20평
● 요 사 : 34평
● 부 지 : 187평
● 가 액 : 1억 2천

● 위치 : 충주
● 법 당 : 15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700평
● 가 액 : 1억 9천

※ 전국사찰, 포교당대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안내
● 위치 : 광릉내(서울근교)
● 대지 : 250평
● 건평 : 70평
● 가액 : 3억5천
● 특징 : 경관수려
02)525-894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2층 건물 37평, 1층 요사채
2층 임법당
● 가액 6천 5백만원(융자있음)
※ 지하수, 뒷편공원, 교통편리
비구니 스님 연락부탁 거의 새집
061)762-263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전철역 부근
● 평수 : 35평(실평 27평)
● 보증금 : 5백만원 월 백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합 3천만원
● 시설물 : 석가불 관음불 지장보살 탱화
016)710-8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20분거리 원주 새말 IC에서 10분거리
● 건평 : 약 10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 50평, 큰방 8개, 산신각 5평, 삼존불, 지장불
납골당 100구 향나무 시설 완비
● 특징 : 산세좋고, 기도처로 최적 사용가능 부지 약 1000평
● 전세 : 1억 5천, 오래 계실 스님 원함
011)771-5597
033)345-5597

장수건강
돌침대 볼 大 할인
잠자리 바꿔 보세요 - 건강이보입니다
좋은 잠자리가 보약입니다.
(사계절용, 월 전기료 8,000 ~ 12,000원선)

▲상급보료
02)424-9427
장수건강온돌(리빙스톤)

권 대창불교건축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781-4989
H P 016)768-4324
011)246-2210

권 대 창 목 재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장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암자 별장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대구 포항길 우회 도로에서 900m 영천시에서 가까움
● 대지 : 110평, 건평, 68평 2층
● 가액 : 1억 6천
011)529-3996
야간 054)337-399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진주 20분거리)
● 임야 : 5,000평, 종교부지 8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주지실(황토방 30평)
● 가액 : 3억 2천만원
● 특징 : 경치수려, 기도도량 적합
011)804-8561

사찰 터 안내
● 주위 경관 수려하며 절터로서 최상급 임
● 경북 영주시 소재(시내에서 10분 거리)
● 전 : 약 730평 (실평수 1천평 내외) 현재 1차공사로 터 조성과 전기+지하수관정, 시공한 상태 임
● 가액 5300만원(절충가능)
011)9770-1581

사찰 안내
● 위치 : 화성시 팔탄(도로근접)
● 법당 : 23평
● 산신당 5평, 요사체 70평
● 부지 : 240평
● 가액 : 3억 3천 절충가능
-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
011)785-5670

사찰 급 안내
● 위치 : 노원구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30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5대
● 가액 : 1억 7천
011)9756-4845

암자안내
● 위치 : 월세 1년 250만원
● 임법당 신축
● 경북 구미 대구 김천 왜간, 약목면 소재지
017)813-9126
주인직접, 인수도 가능함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경기도 일산 소재 (주엽근교)
● 법당 : 100평 ● 요사 : 방 6개
● 7층 건물 중 3층
● 보증금 2,000 월 15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위치 : 수원시내
● 대지 : 90평
● 법당 : 40평
● 요사 : 70평
● 양도가 : 3억 3천
● 산세좋은 도심 사찰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영월근교)
● 임법당 : 방 3개 동각을 인접해 경치 좋음
● 가액 : 3천 2백만원(절충가능)

사찰 (터) 안내
● 2080평 준농림지 중국관정 대법사 께서 인정하신 명당터
● 가액 : 평당 3만원
033)378-5713
011)806-4867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경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터어 아주 좋음
● 가액 : 3000만원(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지리산자락
● 부지 : 1350평(준농림지중) 300평 종교용지
● 건물 : 토굴 15평 창고 10평(등기필)
● 특징 : 교통편리(진주에서 약 20분거리)
● 가액 : 7천 5백만원
011)541-4495
054)874-4495
054)762-1623

암자 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유치면 (택시 10분거리)
● 대지 : 143평 ● 법당 : 12평
요사채 : 10평
● 특징 : 계곡이 앞에 흐르고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의 산새가 아름다운 곳.
암자까지 차량진입 가능
토굴로도 적합함
● 가액 : 2천 5백만원
061)863-9936

탈 종 공 고
●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만수 3동 839-11
● 사찰명 : 인천반야사 안산 성광사
● 주 지 : 임보광 부량심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 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법하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육모정 근처 ● 대지 : 1200평 중 종교부지 : 300평
● 전 : 700평 [하천부지 : 300평, 주택지 : 283평 사용가능]
● 대웅전 : 20평 ● 산신각 : 4평 ● 독성각 : 2평
● 요사채 2동 방 4개 조립식 건물 ● 회의실 : 13평 1동
● 현시세 신축건물 매매가격 3억만원(절충가능)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스님 및 법사님 환영
063)625-9992 011)9642-8833 011)9642-1202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임진강 앞이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가액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사찰 안내
● 절입구 도량내에 소나무가 울창하고 산수경관이 수려한 기도도량 임
● 위치 : 부산 약 30분 올산 약 15분 양산시 웅산읍 서창리 대운산 탑자골
● 면적 약 600평
● 극락전 지장전 용왕전 삼성각 요사채 2동
● 가액 : 3억 5천
055)386-7463
016)355-4264

사찰 터 안내
● 위치 :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IC에서 5분거리
● 지목 : 산
● 특징 : 자연경관수려 종교부지로 적합함. 호수가 내려다보임 덕산온천 인접
● 평수 : 23000여평 평단가 : 12000원
041)667-7177/7277
011)409-6511

사찰부지(납골당)안내
●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국립공원 대둔사인근)
● 7만 5천평
● 수목울창(30년생 참나무등)
● 대전에서 25분(차량 진입가)
● 평당 1만원
017)405-1554
042)525-6123(밤10시이후)

탈 종 공 고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 사찰명 : 상원사 ● 주 지 : 이도법
● 실명 : 이효덕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 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유진 빌라 6동 306호 14평 3층
개인적인 학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써 나만의 공간이되어 걸맞 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마련할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100만원
011)9770-1581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에서 30분거리 (경북고령)
● 평수 : 대지 476평 전답 1,156평
● 건물 : 법당 37평 요사채(1) 21.6평 요사채(2) 148평
● 금액 : 답사(상담) 후 결정
● 특징 : 요사채(2)의 경우 방 20개이상, 욕실완비(수양, 요양시설활용가능)
016)504-3394
054)954-1650(김영회)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만덕동 3층건물 지하철역 3분거리, 교통편리
● 평수 : 대지 53평, 건평 150평, 공터 25평
● 구조 : 방 3개, 거실 · 주방 大, 인법당, 후불탱화, 신잔탱화, 산신탱화 A급
● 가액 : 1억 6천만원
051)331-9937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백두대간
● 상태 블럭조 17평 집 1동(재래식) 1991평(실사용평수 4000평) 불사할 수 있도록 터 잘 되있음 전망좋고 좋은터
● 가액 : 5천 5백만원(시세보다 쌈)
011)9542-2537

암자 안내
● 월세 1년 250만원
● 임법당 신축
● 경북 구미 대구 김천 왜간, 약목면 소재
017)813-9126
주인직접, 인수도 가능함

토굴 구하실분
● 대지 200평
● 법당 14평
● 요사 14평
● 삼성각 5평
● 가액 : 6500만원
011)9302-5632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7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한마음 넓게 써 세세생생 자유인 돼라

여러분께서 차원이 높게 정신계를 밟아 가신다는 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만물 만생이 다 둘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배울 점이 없었고, 또 내가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배울 점이 없었을 겁니다.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머무름이 없이 일체 만법을 행하는 도리를 정신차려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더더욱 감사하군요.

심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형선고에다가 무기 집행유예를 받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마지막 계단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공부를 하는데 망상이나 졸음, 이런 걸로 인해서 공부를 못 한다고 합니다. 둘로 보는 까닭에 못 하는 것이지 둘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망상이라고 보겠으며, 졸음이 와서 공부를 못 한다고 하겠습니까? 일하느라고 못 한다, 졸려서 못 한다, 바빠서 못 한다, 망상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문제들에 여러분이 매이신다면 영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마는 나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조 스님의 '불성인 주인공이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으로 인해서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주인공'이라는 것은 불이 들어오게끔 전체가 작용되도록 한마음으로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돌아가는 것을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를 포함해서 주인공이라고 하고, 그대로 한마음으로 딱 주장을 세운 것이 바로 근본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둘러치나 메치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모든 일체를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주인공으로 인해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겁니다. 또 거기다 말을 한마디 더 붙이자면 '주인공으로 인해서 자유자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새겨 보신다면 모든 행이, 일체가 다 머무르는 바 없이 머무르는 겁니다.

아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 길이 깊은 정글이라고 합시다. 지금 깊은 정글을 지나가는데 거기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또 스치기만 하면 말아서 피를 빠는 풀들이나 나무들이 다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정글을 지나가야 대로(大路)가 나오는데 정글을 가는 길에 무슨 잡담이 필요하고, 정신을 어디다가 팔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나아가면서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냥 타파하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망상이다 할지라도 공부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볼 때에 잠이 온다 하더라도 잠자는 게 잠자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요, 생시도 아니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여한 생활 자체가 그대로 진리요, 참선이요,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 법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법이 다르고 부처님의 법이 다르다고 생각지는 마세요. 우리들이 즉 부처이자 중생이니까요. 그러니 3천 년 전에만 부처님이 계셨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한 부처님은 항상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떠한 망상이든 어떠한 애고든, 어떠한 병고든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 내 생명이 지금 위태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몸뚱이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끄달려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전 몸체와 화면 같은 외형을 어떻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바로 심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형성시켜서 이날까지 끌고 온 그 장본인 불성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육신이 없어도 아니 되고, 육신을 나라고 해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비유한다면, 속의 기능이 없어도 안 되고 화면이 나오는 몸체가 없어도 텔레비전의 역할을 다 못 합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먼저고 나중이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공부 하는 데는 절대로 끄달려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끄달린다는 말이 거기 들어갈까? 지금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물질이 없어도 아니 되고 물질만 있어도 아니 됩니다. 생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물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도 연결을 짓고 돌아가는 데는, 한마음으로서 공심으로 돌아가려는 데는 바로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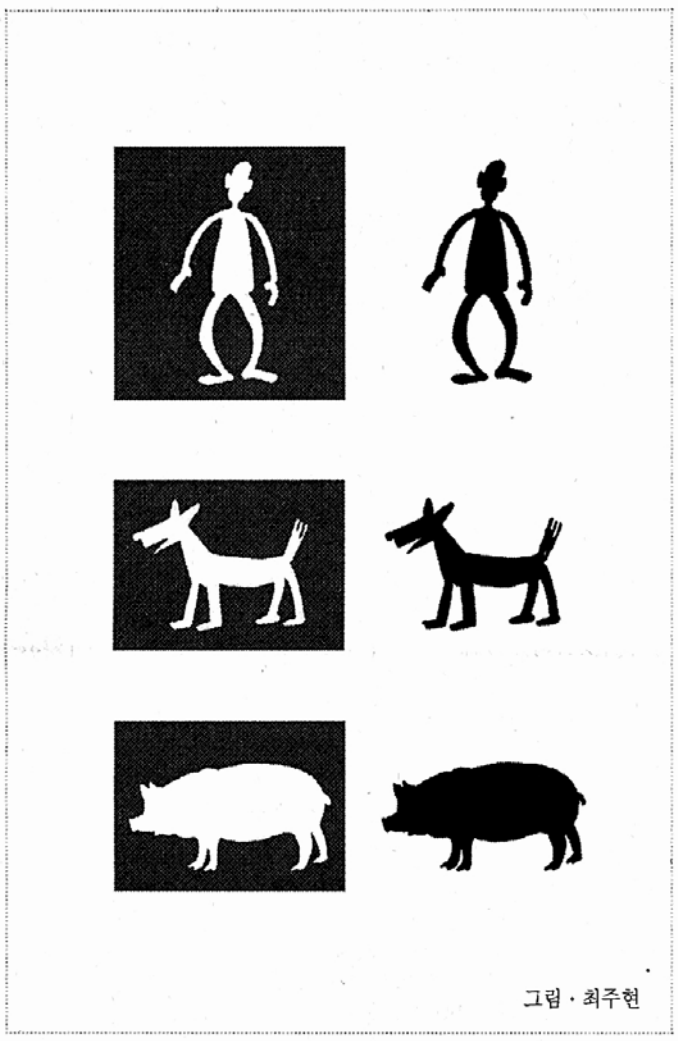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 마음의 그 무한한 레이저 광선, 마음의 레이저 광선은 무한이지만 물질적인 레이저 광선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이저 광선이 지금 세계적으로 안 쓰이는 데가 없죠. 하다 못해 라디오까지도 말이 아닙니다. 수십 억의 중생들이 내 몸속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한눈 팔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신경을 쓰고 모질음을 쓰면서 '아이고, 이걸 끊어뜨리지 않고 해야 하는데, 공부를 어떡하면 잘할까?' 이런 걱정 근심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래 생활이 종교이고 참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주인공 자리에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열쇠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살면서도 자기를 못 믿어요. 다른 이를을 믿고 형상을 믿고 허공을 믿으면서도 왜 자기는 못 믿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끌고 가는 자기를 자기가 왜 못 믿습니까? 배가 고프면 밥 먹게 하는 놈, 듣게 하는 놈, 보게 하는 놈, 말하게 하는 놈, 일을 하게 하는 놈, 하기 싫게 하는 놈, 싸움을 하게 하는 놈, 성이 나게 하는 놈, 이것들이 전부 한 놈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하기를, '아버지가 될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자식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사위가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했던 겁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말도 뜻도 행도 바뀌면서 돌아가는데 딴 놈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 일체 만법도 각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한 놈이 그렇게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벌어진 것을 용도에 따라서 들이고 내는 데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니까. 그 한 놈이 누구입니까? 그 한 놈이 바로 우주를 싸고 여여하게 돌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 얘기했죠? 일체 만물은 연결돼서 바로 공생(共生)으로서, 공용(共用)으로서, 공식화(共食化)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가설이 돼 있는 것이라고요. 각자 마음마다 가설이 돼 있다구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하면 둘이 되죠? 그러나 부처님 법이 따로 없이 우리들의 법이 부처님 법이라고 놓을 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예가 되면 세세생생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옥이나 천당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 돼지같이 살면 돼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뱀같이 살면 뱀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개같이 살면 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 공부를 증득해서 넘어갈 수 있다면 삼천대천세계를 한 손가락에 꿰고서 굴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계단을 걸어가는 도중에, 정글을 지나는 도중에, 공부하는 과정을 정글이라고 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러 가는 길을 한 계단 한 계단 걷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단이 그렇게 많아서 그 길을 똑바로 걷지 못 하고 온통 끄달리면서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피하고, 사자가 온다고 피하고, 어떤 풀이 몸을 감으면 또 안 감기려고 피하고,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떤 게 닥쳐도 피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도 아니 되고 뒤로 물러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일체만물 서로 공생 · 공용 · 공식화
인욕 · 보시는 함 · 머무름 없이 해야

그건 왜 그럴까요? 둘이 아닌 까닭을 알면 한 찰나에 내가 풀이 될 수 있어서 어떠한 물체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피를 자기가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장난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풀도, 무정물도 식물도 다 마음이 있는 겁니다. 생시에 내가 '마음이 체가 없어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데 뭘 그래!'하고 놨을 때에 바로 꿈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꿈과 생시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닥치든지 또는 구렁이가 닥치든지 사자가 닥치든지 궁색하게 피하지 말고, 가정에서 어떠한 애고가 닥치든 병고가 닥쳐도 둘로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 속에 들은 의식들이 다 딴 데 있는 겁니까? 내 한 물체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증거입니다. 바다에는 도장을 찍어도 찍은 사이가 없고, 찍을 사이가 없건만도 찍은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몽땅 '당신이 옳소.'하고 찍는 거와 같죠. 왜냐? '옳소.'하는 거는 둘로 봐서 옳소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몽땅 한데 합쳐 한자리를 파악한 것이 바로 해인입니다. 한 가족 안에 아들 딸들이 전부 아버지를 찍지 누굴 찍습니까? 우주 전체 삼라만상을 한 가족으로 본다면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둘로 보지 않고 한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모습은 다르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자비가 줄줄줄 그냥 흐르고 있으니, 그대로 합일이니까 도장이죠. 허허허. 그러니까 너와 나를 가른다면, 잘못하고 잘하는 걸 가른다면 합일이 될 수 없죠. 잘한다고 한다면 항상 못하는 게 거기 끼어 들고, 못한다고 한다면 잘하는 게 끼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골이 안 나요.

그러니 공부하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내막을 파헤쳐 본다면 수억 겁 광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수화풍도 우리에게 당장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기주머니에서 사는 것은 물주머니에서 사는 거와 같습니다. 물에서 사는 생물들 모두가 그냥 물주머니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 물로 인해서 공기가 되니까, 우리도 이 물주머니에서 사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뭐든지 거기에서 이탈한다면 다른 병고가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는 수십 억 마리의 마음도 내 한마음에 다 따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하나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전에 누가 꿈을 꿨다고 가서 물어보니까 "아, 잘 먹겠다." 이러기에, 다른 친구가 꿈을 안 꾸고도 그런 꿈을 꿨다고 꿈애길 하니까 "너는 매를 진탕 맞겠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로 매를 진탕 맞고는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매를 맞게 됐습니까?"하고 가서 반문을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꾸민 것도 꿈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꿈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둘로 보지 않고, 귀신이 닥친다, 애고가 닥친다, 유전성이 닥친다 하더라도 '허허!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는가.'하고 한생각에 돌려놓으세요. 둘이 아니라면 모든 게 그냥 하나로 돼 버려요, 흔적도 없이. 불에 어떤 것을 넣든 타 버리고 물이 증발되듯이 말입니다.

어떠한 게 닥치면 관습에 의해서 '이런 거는 안 되고,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여지껏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이건 못하고 하고가 항상 따르게 마련이죠. 진짜로 믿고 들어가는데 하고 못하고가 어딨습니까? 내 생명이 그냥 이 자리에서 앗아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허허!" 할 뿐이죠. 내가 둘로 본다면 온 것이 있고 갈 것이 있지만 둘로 보지 않는다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갈 것도 없죠.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미묘한 법으로써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졸지 말고 정진해라, 철저히 망상을 끊으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마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망상을 끊기 이전에 사람이 생각을 내지 못하면 목석이 되지 않나? 아니, 생각을 자꾸자꾸 내야 그게 발전을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을 망상이라고 방편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의심이 났단 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하는 거지, 그러고 그 자리에서 자꾸 나오는 거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자리에다 그냥 내버려두지, 그걸 망상이다 뭐다 하고 끊으려고 애를 쓰니 그게 칼로 물 베기지 어떻게 끊어집니까. 무슨 물체입니까, 그게? 끊어지게.

어떠한 물체라면 칼로 끊으면 끊어질 수 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칼로 물 베기나 똑같습니다. 그걸 끊으라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졸음이 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냥 편안하게 자게 내버려두지,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아, 자다가 깰 때도 있겠지 내내 잡니까? 내내 자도 할 수 없는 거고 내내 깨어 있어도 할 수 없는 거지, 그거를 성화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정글을 넘어섭니까? 자든지 깨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바쁘게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히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형상이 돼야만이 그 자리를 과감하게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질문 좀 받아 볼까요?

▲질문1: 우선 새해 첫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살 정신은 모름지기 모든 중생이 성불한 다음에야 마지막으로 자신도 성불하겠다는 발원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의 성불을 기약하시며 몸을 나투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수억 겁의 습에 찌들어 평소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성불하기란 요원하고 자신의 성품을 보는 일조차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중생들은 자연히 제불보살의 가피를 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견성성불을 바라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비는 것도 타력신앙이라 하여 배척할 일 인지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것도 타력이지요. 왜냐하면, 문수가 병문안을 왔을 때 유마힐 거사가 "중생들의 병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겠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회사를 하더라도 재료와 모든 거를 준비해 놓고 물건을 다 만들어서 시중에 내놔야 딴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 28면으로 계속

내 중생들 제도돼야 성불로 완성

망상 · 애고 · 병고에 끄달려선 안돼

☞ 27면에서 계속

있는 거죠?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 몸뚱이 속의 중생들을 먼저 제도시켜야, 아시겠습니까? 내 중생들을 먼저 제도시켜야 화(化)해서 바꿔져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나면서 응신(應身)이 돼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몸 속에 있는 내 중생들이 다 제도가 돼야 마지막으로 자기를 성불로 완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완성하려면 내 중생부터 다 제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둘로 보고 망상이다 뭐다 하고, 또는 어떤 애고가 오면 온통 빌고 야단법석을 딴 데다가 하니까, 그게 무슨 격이냐 하면 땅에 가다가 엎드러져 놓고는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땅에서 엎드러졌으면 땅을 짚고 일어나야 일어나지지 어떻게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보살에게 빌어도, 아무리 과거의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하더라도 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깨닫는 거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먹어야 되는 법입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만이 똥 눌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다섯 가지 어떤 것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니, 내 마음 찾기인데,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기인데 누가 대신 밥을 먹어 줍니까?

▲질문2: 알겠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머무름이 없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육조 혜능 선사께서는 이 한 구절을 듣고 홀연히 지견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닦고 배울 것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닦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머무르는 마음이 아닌지요?

▲스님: 그러면 머무른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 노릇을 합니까? 또 남편 노릇을 해야지 생각하고 남편 노릇을 합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생각하고 합니까, 모든 일체 만법을요? 그리고 병고가 오더라도 '병고가 간다' 이러고선 옵니까? '내가 병을 앓겠다' 하고 앓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주인공이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청정하다는 뜻은 더럽고 깨끗한 것을 한데 합쳐서 돌아가고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을 듣고서 지견이 열렸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지견이 열립니다. 머무르는 바가 없이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지, 아니, 머무르는 바가 있게 생활합니까?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내가 집을 짓겠다.' 한다면 그것도 머무름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짓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집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머무르는 바가 없이 머물렀다는 얘기죠. 일상 생활을 전체 머무르는 바 없이 하고들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갖추어 가지고 있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인공의, 그 중심에 의해서 들이고 내는 데 자유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찌들고 뭐가

> 생명이 있기 때문에
> 마음이 있는 것이고
> 마음이 있기 때문에
> 물질이 있는 것

어떻게 되고, 할 양으로 애를 쓰고, 할 양으로 애를 쓸 필요가 없이 하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전부들 성불하십시오. 하하하.

▲질문3: 불도를 닦는 데 있어 육바라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소견이겠습니다마는 가만히 따져 보면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등이 모두 무엇인가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그렇게 상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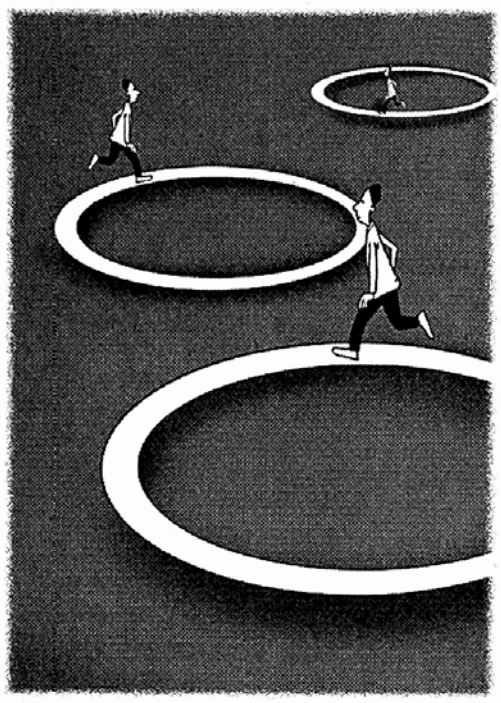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망상을 끊는 게 아니라 공부 재료로

도구로 어떻게 세간의 도리를 넘어 상에 걸림이 없는 불도에 들 수 있는 것 인지요?

▲스님: 마음에서 모든 게 빚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지혜가 풍부해서 모가 나지 않고 둥글게 모든 것을 무주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 때에 보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보시가 아니죠.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름이나 나려고 하고 권세나 가지려고 하고, 또 자기가 해 나가는 일들이 좀더 순탄하게 나가기를 바라는 욕심에서 하는 거는 보시가 아닙니다. 유(有) · 무(無)를 타파하고 조건 없는 자비로써 보시를 할 때에 그게 무주상 보시입니다.

그런데 무주상을 행하는 거는 어떤 놈입니까. 보시, 지계, 인욕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인공에서 지혜도 나오고, 무주상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또 인욕도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욕을 행하고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함이 없이, 머무르는 바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끔 마음의 다스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4: 마음공부와 어쩌면 조금 각도가 틀리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욕구 분출이 늘어나고,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2월 말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목표로서 '신한국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 분야마다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 불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 나가야 하는지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스님: 어떠한 분야든지 불법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다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아주 작게 본다면, 스님이 그만큼 아신다면 경제 문제나 모든 일을 하시지 못 하십니까? 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 이거는 모두 각자가 하기 나름입니다. 생존경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면 저기선 저렇게 일어나고, 여기서 지배를 받는다면 저기선 지배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지구가 집이라면 몇 사람이나 그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생존할 수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성장이 되거나 낙오가 되고, 또 성쇠가 되는 까닭에 지구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끼 한 마리를 기르면 그 이듬해에 금방 열 마리 스무 마리가 되고 수가 없이 늘어납니다. 만약에 연쇄적으로 잡아먹지 않는다면 마냥 불어나죠. 먹고살기도 어렵거니와 모든 물자도 빈곤해지는 결과가 될는지 모르죠. 자연 법칙으로 '너희가 마음을 넓게 쓰면 살아날 것이고, 넓지 못하다면 죽을 것이다.' 라는 양단간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죠.

만약에 선생님이 저기 지나가는 사람 따귀를 한 대 때렸다면 말입니다, 맞은 사람이 그냥 푹 쓰러져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덤비고 거기에서 못 이기면 내일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혼란 속에서 경쟁 속에서 돌아가는 거지요. 굶주리고 먹고 죽고 하는 것이 개미들 살림살이나 우리들 살림살이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좀 덩치가 크다 뿐이지, 살림살이의 용도가 좀 틀리다 뿐이죠. 아, 왕개미, 검은 개미, 붉은 개미가 싸움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냥 토굴을 다 뺏고 먹을 거 다 압수하고 그러니까 산산이 흩어져서 모두 날뛰는데, 흙에 묻혀 죽고 다리가 잘려서 죽고 병신이 되고 온통 이러는 걸 봤습니다. 사람과 뭐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선 굶어 죽는다, 또는 비가 안 와서 죽는다 이러는 것도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일리가 없다면 부처님 법이 어딨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음을 넓게 써서 세세생생에 자유인이 되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천세계가 있고, 중천세계가 있고, 하천세계가 있습니다. 벌레들이 사는 세계가 있고, 땅 위로 다니는 세계가 있고, 날아다니는 세계가 있고 또는 그 모두를 종합해서 자유스럽게 사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의 정신세계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하고 가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를 발견하시라 이거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궁금증이 풀어지셨습니까? (대중 웃음) 그래서 모르더라도 이런 말을 들어 두신다면 언젠가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생각이 문득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한 것은 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월 3일 법제형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합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무영문화재(죽염제조장) 제 23호 효산스님의 기술지도로 제조되는 삼보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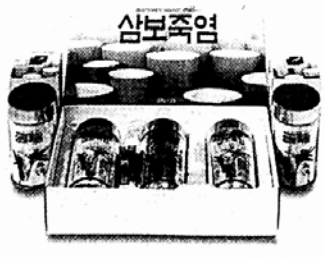
삼보죽염

장인정신의 혼이 깃든 정성으로 -

선가의 비방비전으로 황토가마에서 아홉번을 법제하는 것만이 전통죽염이라 말할 수 있으며, 환경과 식생활의 혼란에서 오는 현대인의 건강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품목 \ 구분	규 격	소비자가	증 정	비 고
9회죽염	200g×3 (Box)	105,000	생활죽염 1포, 미용죽염 1포	일주일이내 배송 현금, 신용카드 결제 택배비자사부담
생활죽염	500g×10 (Box)	65,000	휴대용(20g), 원석자죽염	
미용죽염	250g×15 (Box)	52,500	휴대용(20g), 원석자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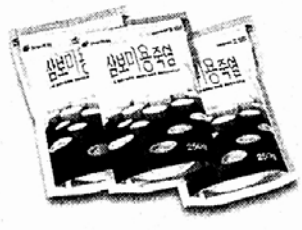
※ 위장병 : 잇몸질환에 효과 → 중앙일보 1월 21일(소개)
※ 죽염치약 원료(죽염) 공급 업체 : 수십차례 메스컴 보도
※ 취급점 모집, 딜러모집 상담
※ 1회 항균죽염 발명특허 획득 (생활, 미용죽염)



삼보죽염 200g×3개들이



삼보생활죽염 500g(한번 구운 항균죽염)



미용죽염 250g(한번구운항균미용죽염)

(주) 태성식품 · 삼보죽염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50-16 동화빌딩 406호 홈페이지 : www.skhm.co.kr
전화 : 02)522-7275 FAX 02)585-7275 080-523-8193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 (주)한국자연과학

가시오가피 처음부터....
잘알고 먹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
그 소중함을 위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주)한국자연과학이 늘 함께 합니다.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
입니다.

전화상담 및 무료자료신청
TEL:(02)2272-4900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가시오가피
100% 국내산 토종 가시오가피를 사용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지"함박재 농장"
- KBS, MBC 뉴스 보도 -

가짜가 많아
오해도 많은 가시오가피
이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을 달려온
(주)한국자연과학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가시오가피는
환경부 지정 야생보호식물
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전법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향 림 사
조 실 천 운
주 지 혜 향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51-3
전화 062)375-7600~1
■ 광주불교대학/대학원
전화 062)375-7603, 7633

대한불교 조계종
무 각 사
주 지 광 민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
전화 062)383-0108

대한불교 조계종
신 광 사
주 지 경 주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1동 193
전화 062)261-1529

대한불교 조계종
증 심 사
주 지 일 철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전화 062)226-0107

대한불교 조계종
원 효 사
주 지 현 지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전화 062)266-0326

대한불교 조계종
천 룡 사
주 지 벽 상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240
전화 062)234-1338, 0108

대한불교 조계종
흥 룡 사
주 지 상 운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3-1
전화 062)651-5083

대한불교 조계종
금 선 사
주 지 일 명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산4-1
전화 062)942-3260

대한불교 조계종
법 림 사
주 지 무 진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
전화 062)234-2207

대한불교 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선 각
총무 법 정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4가 54-1
전화 062)223-7666

대한불교 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연화유치원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1동 448-35
전화 062)227-7295

대한불교 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현 정
총무 선 법
반야유치원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47-5
전화 062)652-4763

대한불교 조계종
다 보 사
주 지 지 암
신도일동
■ 전남 나주시 경현동 629
전화 061)334-4201

대한불교 조계종
마 곡 사
무안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정 평
신도일동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전리 산51
전화 061)452-0871

한국불교 태고종
법 연 정 사
(범종불사에 많은 신도님 동참바람)
주 지 법 성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827
전화 062)222-4357

한국불교 태고종
세 심 정 사
주 지 지 암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58
전화 062)222-9442

한국불교 태고종
법 륜 사
주 지 월 인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4-5
전화 062)375-7444

한국불교 태고종
내 영 사
주 지 명 각
신도일동
■ 전남 나주시 삼영동 582-1
전화 061)336-6330, 334-0048

한국불교 태고종
태 평 사
주 지 금 명
신도일동
■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37-1
전화 061)332-8270

대한불교 조계종
홍 선 사
주 지 정 환
신도일동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135
전화 061)743-0408

대한불교 조계종
죽 림 사
주 지 지 향
신도일동
■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1
전화 061)337-3620

한국불교 태고종
장 원 사
주 지 금 용
신도일동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전화 061)863-2687

문사수법회 정진원
정 토 사
회주 한 탑
주 지 혜 광
신도일동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2구 492-1
전화 061)381-0108

동 곡 사
주 지 혜 림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88-1
전화 062)232-6995

생활인의 불교도량
광 륵 사
자신을 등불 삼아
진리를 등불 삼아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392
전화 062)222-7801

광주불교전통의식대학
학 장 혜 공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
전화 062)362-8604

대일불상조선소
(불상, 석불, 동불, 목불, 대리석, 순금, 인조석등, 조각탱화, 조각일체)
- 범종 불사 일체 문의 -
대 표 심준식(우형)
심민우(자)
■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2동 57-91 4/1
전화 062)652-2384
(부)011-642-2384 (자)011-604-2384

한국불교여성회
- 광주 지회 -
회 장 윤혜월성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484-4
(능인불교회관내)
전화 062)673-3001

광주불교능인회
- 불교식 장례는 불자들 손으로 -
사단법인 광주불교능인회
광주불교능인회 새마을금고
광주불교능인회 장의부
대 표 김두원 임직원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48-4
전화 062)226-5161~3
팩스 062)234-8485

운불련광주지역회
회원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280-2
(동림공업사2층)
전화 062)514-6996

보건복지부 장기이식 등록기관
사)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
지역본부장 일 철
후원회장 김초희
운영회장 오자섭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5-1(2층)
전화 062)234-6602
팩스 062)225-9958

승복 두루마기 전문
화 신 승 복
대 표 이진우
직원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23-8
(광주공원다리통로 시내쪽 50m)
전화 062)223-8910

부 다 기 획
직원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5-1(자비신행회 2층)
전화 062)225-8825
팩스 062)225-8826
E-mail : buddhacom@hanmail.net

나주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성오
부회장 지암, 혜인
총 무 명각
재 무 종현
연합회 대중스님 일동
■ 전남 나주시 대호동 825
전화 061)334-2880

대원사 티벳 박물관
관 장 현장스님
■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3구831
홈페이지 www.tibetan-museum.org
전화 061)852-3038, 1755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 법화종
관봉 **약사암**

일 여
이광영
신도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44
전화 053)852-0803 / 팩스 053)852-9453

대한불교 조계종
분 황 사

주지 종 수
대중일동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2
전화 054)742-9922 / 팩스 054)742-9937
홈페이지 www.bunhwangsa.or.kr
E-Mail : wonhyo3@hitel.net

대한불교 제9교구신도회
조계종 **대구광역시신도회**

회 장 장영관

전화 053)253-2886 / 252-9485

대한불교 **운 문 사**
조계종 **운문사승가대학**

학 장 명 성
주 지 혜 은
학 감 홍 륜
대중일동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전화 054)372-8800(대표)
홈페이지 www.unmoonsa.or.kr

대한불교 조계종
월 인 사

회 주 혜 국
주 지 혜 관
신도회장 김상주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605-6
전화 053)767-3971 / 팩스 053)767-5791
휴대폰 011-9565-1098

대한불교 조계종
선산 **원각사**

주 지 석대혜
신도회장 이반야행

원각사 봉사단 / 원각사 유적답사단
원각사 불교학교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9
전화 054)481-2363 / 팩스 054)482-0092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경북불교대학

바른배움 / 바른깨침 / 바른포교

학 장 돈 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전화 053)792-1353 1181
팩스 053)791-4951

대한불교 조계종
불국사 대구포교당 **금강삼매원**

(호위사계 금강삼매경 독송회)
천일기도·입 재 2001. 11. 29
·회 향 2004. 8. 25

회원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10-3 (달성 네거리)
전화 053)561-4714

대한불교 조계종
원 만 사

원만사 유치원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전화 053)257-1914

대한불교 **능 인 선 원**
조계종 **행원불교대학**

학 장 혜 장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677-13번지
전화 053)753-6875~6
팩스 053)753-6554

대한불교 조계종
극 락 사

주 지 원 일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11
전화 054)972-1275
휴대폰 016-818-7051

한국불교 태고종
덕 안 사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3
전화 053)768-2002

대한불교 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 지 선 지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
전화 053)941-3503
주지실 053)953-4481

대한불교 **선 학 원**
조계종 **서 봉 사**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전화 053)471-4812
팩스 053)471-4813

대한불교 조계종
금 용 사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198-10
전화 053)628-5404

정혜결사도량 / 오백나한 기도도량
제10교구 은해사
대한불교 조계종
팔공산 **거조암**

주 지 돈명
대중일동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전화 054)335-1369 / 팩스 054)335-2609

보 은 사

주 지 법 홍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4동 1201-3
전화 053)953-6704
941-9164(팩스겸용)
홈페이지 www.boeunsa.or.kr

지장선원·불화연구소

탱화·불상·개금·개체·단청

소 장 지 공(보명)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541-1
사무실 053)744-0150 / 연구소 053)767-0641
휴대폰 011-809-0151

서 울 김 밥

맛 / 정성 / 신선 / 청결 / 경력
/ 좋은재료
예약주문 전문점
새벽도시락 소량주문 환영

■ 대구 수성구 지산 동아백화점 앞 대구은행 뒤
전화 053)784-8200

혼수·고전작품 개량한복 전문점
권지영 우리옷

대 표 권봉자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23-18
전화 053)427-1536
휴대폰 011-527-1536

동남승복사

가사 / 누비 / 두루막 / 승복일체

대 표 이용호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14
전화·점포 053)254-3147
자택 053)471-7162
휴대폰 016)855-3147

삼영출판사

대 표 이재근

■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37번지
전화 053)425-4097 / 423-4578
공장 053)784-2237 / 팩스 053)421-3980

태공산업

태 공
공 묘 합장

■ 휴대폰 011)503-6743

용지목욕탕

대 표 최만영

■ 전화 053)783-5828

(주)화동섬유

리히스 건강지압양말
무릎, 팔꿈치 지압 보호대

대 표 김태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전화 053)582-1244
팩스 053)581-1259

合同에너지産業(株)
〈專門建設免許業體(設備工事)〉

代表理事 宋寅虎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종합유통단지내
(산업용재관31동2층2호)
전화 053)604-0382~3 / 팩스 053)604-0393
휴대폰 011-817-4253

현대자동차 부품대리점
동남자동차부품

대 표 박희천

■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966번지
전화 053)983-6001 / 휴대폰 011-512-6019

祈願纖維
승복 법복의 대명사 "수레바퀴"

代 表 李基泰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39-1
(봉용빌딩3층302호)
전화 053)764-4114 / 팩스 053)755-9889
휴대폰 011-9850-4400

오아시스

썬팅/시트카바/원격시동/건물썬팅
썬팅필름도매

대 표 예병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65-96번지
전화 053)768-8558 / 053)767-9310
휴대폰 011-527-1678

동성한약방

원 장 최춘길

■ 전화 053)252-6411

태창지관

대 표 허창호

전화 053)582-4501
휴대폰 011-526-4501

문무전력(주)

대 표 김상철

■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동 360-6
전화 053)964-6586
휴대폰 011-527-2800

보석의 집 보배

(결혼예물 전문점)

대 표 심 훈

전화 053)755-7680
휴대폰 019-502-7680

델타석유

보일러 실내등유 할인판매

대 표 박성일(보경)

전화 053)767-5122 / 743-5008
휴대폰 016-531-5006

해동승복

승복·법복 판매 전시 전국총판

대 표 최봉문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399-1
전화 053)741-8131 / 팩스 053)741-8132
휴대폰 011-549-8130

봉축동화

아기 부처님과 도둑

윤제학(본지 취재 2부장 · 동화작가)

'히아—, 세상은 참 밝은 곳이구나.'

내가 처음으로 만난 세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웬걸, 한참이 지나자 세상은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세상은 아주아주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그럼, 세상은 깜깜한 곳인가?'

이런 일을 자꾸자꾸 겪으면서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반 쯤 밝고 반 쯤은 어두운 곳이구나.'

내가 처음으로 세상 구경을 한 때는 지난 여름입니다. 큰물이 났을 때였어요. '우르릉 쾅쾅' 하면서 하늘에는 불벼락이 치고, 장대같은 비가 쏟아지면서 온 땅이 물결로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짝마다 쏟아지는 물줄기는 마치 사자가 머리털을 치켜올린 것 같았어요. 소리는 또 얼마나 무서웠던지. 물 속에서 바위가 부딪치면서 '꾸응—꽁' 하고 소리를 지를 때는 금방이라도 큰 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인가 봐요. 그 무시무시했던 물 덕분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니까요. 사실 전 그 때까지 땅 속에서만 살았답니다. 백 년 아니 천 년도 더 넘었을지도 몰라요. 이미 오래 전에 줄기는 썩어서 사라져 버렸고, 뿌리인 저만 땅 속에 남아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 지난 여름 큰 물을 만나 산 기슭이 무너지면서 세상 구경을 하게 된 거랍니다.

비가 그친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초록색을 불러 모아놓은 듯한 나뭇잎, 그 위에 올라앉아 구슬처럼 반짝이던 물방울.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풍이 들고, 잎이 지고,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사계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세상은 한 순간도 그냥 있질 않고 변해간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세상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한 시도 가만 있지 못하고, '어디 재미난 일 없을까' 하고 또록또록 눈을 깜박이는 아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기 부처님이 무얼하다 이제야 오셨을꼬"
현문스님은 나를 업고 절로…

내가 현문 스님을 만난 건 지난 봄입니다. 진달래가 온 산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놈 참 잘 생겼다."

스님은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얼굴도 진달래 꽃잎 마냥 발그랗게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스님은 산책을 하실 때마다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뭐가 그리 궁금하신지 이리보고 저리보다가 쓰다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는 갑자기 '이렇게 예쁜 아기 부처님이 어디서 무얼 하시다가 이제야 오셨을꼬', 하시면서 저를 덜렁 업고는 절로 내려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운수암'이라는 조그만 산 속 절 마당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들 저를 좋아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어머, 어쩜 이렇게 아기 부처님과 꼭 닮았을까" 하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님의 염불 소리도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간간이 애써 참는 듯한 울음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아이의 49제를 지낸 것이라고 합니다.

세 살이나 네 살 쯤 되었을까? 사진으로 본 아이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게 왜 슬픈 일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 아이의 사진을 안고 어깨를 떨썩이는 엄마의 모습은 참 슬펐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안 일인데요,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49일 동안 염라대왕이라는 분 앞에서 숙제 검사 같은 걸 받는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착한 일을 했고, 저 사람은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는지를 따져 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49제 때는, 숙제 검사를 마친 사람이 이제는 슬픈 마음은 훌훌 털어 버리고 하늘나라로 잘 가라고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들려 준다고 합니다.

바로 그 날 저는 아주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목탁 소리도 스님의 염불 소리도 사그라들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는 문밖으로 나가시다가는 다시 돌아와서 저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문득 생각이 난 듯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조그마한 신발이었습니다. 바닥에 흙도 묻지 않은 새 신발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신발도 한 번 신어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것 같았습니다.

그 동안 저는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아랫 동네에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아주 멀리서도 저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기도 하는 걸요. 요즘 아이들 말로 인기 '짱'이랍니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래요
잠자려는데 시커먼 사람이
법당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부처님을 트럭에 옮겨 싣고
나를 부처님과 함께 묶었어요

갑자기 절 마당이 분주해집니다. 길다란 막대기를 세워 줄을 매고는 연등을 걸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일까? 귀를 쫑긋 세웠더니 금새 궁금증이 풀립니다. 내일이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잖아요 글쎄.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도 연등을 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잖아요, 저 혼자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요.

부처님 맞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색색깔 연등이 마당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얼굴도 보름달 같아 보입니다. 스님도 절 마당을 두루 살피시고는 저에게로 오셔서 "아기 부처님도 기분 좋으시죠" 하고 말을 건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스님도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셨나 봅니다. 나도 '어서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내일을 빨리 만나는 데는 잠을 자는 것이 최고잖아요.

바로 그 때, 절 마당 앞에 웬 트럭이 멈추어 서더니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살금살금 법당 쪽으로 걸어갑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시커먼 사람이 법당 안에 계시던 부처님을 안고 나오는 게 아닙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부처님은 보통 부처님이 아니고 나라에서도 보물로 삼은 부처님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마음 속으로 발만 동동 구를 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커먼 사람은 부처님을 트럭 위에 실어 놓고는 이번에는 제게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까. 콩닥콩닥 뛰는 가슴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돕니다. 시커먼 사람은 나를 들어올리더니 '끙—' 하고는 어깨 위로 나를 올려놓습니다. 그 때 나는 간신히 예전에 선물로 받았던 신발을 챙겼습니다. 그것마저 잃어 버리면 아이의 엄마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요.

부처님과 나는 트럭 위에서 밧줄로 꽁꽁 묶이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시커먼 사람은 뭔가 아쉽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법당으로 다시 들어 갑니다. 뭔가 더 훔치려는 게 분명합니다.

그 틈을 타서 나는 얼른 신발을 신어 봅니다. 운수암을 떠나기 전에 그 아이를 대신해서 한 번이라도 땅을 밟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발을 신자마자 팔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재빨리 밧줄을 풀고 부처님부터 절 마당 귀퉁이의 꽃밭 속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단숨에 법당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역시나 시커먼 사람은 법당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귀한 것들을 죄다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선물받은 신발을 신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예요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손 닿는 나무 용 · 새가 움직여요

그 때, 다급한 나머지 두 발로 법당 마루를 굴렀더니, 갑자기 내 몸이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이렇게 신기할 수가. 나는 공중으로 날아다니며 법당 안의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무로 조각한 용이나 새들이, 손이 닿자마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용은 멋졌습니다. 법당 안을 한 바퀴 휙 돌기만 했는데도 시커먼 사람은 기겁을 하며 줄행랑을 놓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그런데 그만 그 시커먼 사람은 법당 문지방을 넘다가 발을 헛디뎌서 꽈당 하고 자빠지면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이 고소하긴 했지만 왠지 봄쌍해 보입니다.

서둘러 법당 안을 치우고 나니 동이 터 오기 시작합니다. 어딘가에서 부처님은 지금 이곳으로 오시고 계시겠지요.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끗한 마당을 밟고 오시면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마당을 다 쓸고 나서 시커먼 사람에게 다가가 보고는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기절했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까지 드렁드렁 골면서 잠을 자고 있지 뭡니까. 잠자는 그의 손에 살며시 빗자루를 쥐어 주고는 나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놀랄 테니까요.

나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법당의 친구들을 깨워…

"부처님이 어디까지 오셨나?"

언제나 새벽 같이 일어나시는 스님은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러 법당으로 향합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마당을 깨끗이 쓸었지?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며 법당으로 다가서던 스님은 갑자기 비명을 지릅니다. 시커먼 사람에 걸려 넘어진 것이지요.

"아이쿠, 이게 누구야?"

잠에서 깨어난 시커먼 사람은 어쩔 줄 몰라하며 스님께 꾸벅 절을 올립니다.

"아니 넌, 저 아랫마을 사는 형진이 아니냐. 오라, 네가 마당을 쓴 모양이로구나. 그런데 웬 일이냐.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말썽 부리는 것밖에 모르는 녀석이. 하기야 말썽쟁이라고 맨날 말썽만 부리라는 법도 없지. 그래, 애썼다. 너 때문에 부처님이 아주 기뻐하시겠구나."

그제서야 시커먼 사람의 얼굴에도 웃음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림 · 문병성

우스이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 3일만 배우면 됩니다 –
– 탁월한 우주 생명에너지 이용법입니다 –
– 건강 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생명에너지입니다 –

일본의 정토진종의 구도자 우스이 미카오씨(1865~1926년)가 교오토의 산속에서 21일간의 처절한 단식명상 끝에 번개를 치듯이 올려 오는 우주생명에너지와 감응하고 그 이용법을 체계세워 레이키라고 이름지은이래 이미 레이키는 전세계 50개국 이상에 보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미국을 통해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니 본래의 내용이 빠지고 에너지의 질에 차이가 생긴 갈래들도 도처에서 생겨 났습니다.
저(박혁준)는 많은 갈래의 레이키를 고루고루 외국에서 배웠지만 특히 일본에서 소수의 인물에게만 전해지는 우스이씨 본래의 어튜먼트(능력전수절차) 기법과 에너지를 전수받고 더욱 개량한 끝에 3일이라는 최단기간에 우스이 레이키 제3단계 까지를 전수하는 일을 1998년 부터 우리나라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3일 교육제도는 일본, 미국의 어떤 레이키 교육기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단계까지 3일, 교육비 70만원)
교육내용 : 우스이 레이키 발영법, 12지료점 치료법,
급만성 질환에 대한 원격지료법, 중식톰 치료법,
악톨 음식톰등에 대한 에너지주입법, 생활의 여러방면에 걸쳐서 레이키를 활용하는 법, 박희준 식 레이키 특별침나(본성 자성 톰성) 활성화법 등.
▶ 3일간의 교육이 끝난 1개월후에는 1일간의 무료 추가 교육이 실시됩니다.
완전레이키요법, 차크라활성 호흡법, 간단한 재령법등을 이때 배웁니다.
2.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일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분이 다음 단계로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입니다. 9종류의 氣를 요법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 끝난 1개월 후에는 카루나 레이키 재령법 등를 배웁니다.

※ 현대불교신문 독자는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10%씩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일괄등록 103만원

현대 생활 레이키연구회
대표 박희준 (그랜드 마스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화 : 02)720-5682, 720-5719, 팩스 : 02)720-5720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쿤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방, 에너지이동,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필사)

* 오라진동쿠션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안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필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필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알아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톰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한 카다로그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마인드테크 : (02) 888-2142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춘추복 재질:면직물 50%
1.적삼, 바지, 쪼끼 ₩130,000
적삼형 / 풍방형
2.동 방 ₩110,000
3.두루막 ₩120,000

하복 재질:면직물 50%
1.적삼, 바지, 쪼끼 ₩130,000
적삼형 / 풍방형
2.동 방 ₩110,000
3.두루막 ₩120,000

※ 순면(무늬 있는 먹물) ₩130,000
하복 구입없고 세탁이 용이한 세질 ₩1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조끼 · 몸빼 ₩50,000
셔츠 ₩30,000
라운드형 / 차이나형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기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조계종
심 원 사
주 지 김도후
사부대중일동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 1리 72-1
전화 033)455-3468

보현정사
주 지 법 장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545-23
전화 062)652-4730

수 덕 사
주 지 혜 명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98-9
전화 062)263-0550

한국불교 태고종
용 화 정 사
주 지 혜 광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555
전화 062)228-7474

대한불교 조계종
광 덕 사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전화 053)763-0068
팩스 053)767-2266(겸)

대한불교 법상종
종회의원 사회부장
천 문 사
주 지 진 성
신도회 일동
■ 서울 노원구 상계 1동 1000-7
전화 02)936-9736~7

대한불교 대승종
전북종무국장 염창사
주 지 원 공
대중일동
신도일동
■ 전북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214-5
(창북초등학교 뒤)
전화 063)584-6571

대 한 불 교
장 안 사
주 지 황병진
신도 일동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1
전화 031)901-1954

대한불교 조계종
법 계 사
주 지 무 관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212
전화 053)768-2251 / 팩스 053)768-1251

덕대산 극락사
(지장기도 도량)
주 지 김법륜
신도일동 합장
■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전화 055)352-7224
핸드폰 011-584-5515

장복산 삼 밀 사
주 지 이동하
신도일동 합장
■ 진해시 대백동 산75번지
전화 [주지실]055)544-5962
[종무소]055)543-2931

대한불교 조계종
용 궁 사
주 지 정 무
신도회장 이연등화
보련회 일동
월간초심 후원회 일동 합장
■ 밀양시 가곡동 692 번지
주지실 055)354-4467
종무소 055)354-4464 fax 055)354-4415

대한불교 조계종
대법사(구표충사)
조 실 김지혜 큰스님
주 지 이원공
·신도일동 합장
■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1128-1번지
주지실 : 055)356-1015
055)356-0322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해 광 사
주 지 명 암
사부대중일동
■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3번지 12통 3반
전화 033)521-8508/8502

한국대승불교 여래종
안양 약사사
주 지 윤연화 법사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8동 1280-1
전화 031)449-1853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상 주 사
(관음기도 도량)
주 지 정 덕
신도회장 박복수
■ 전북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544
전화 063)453-7800 / 453-4554

무자손 천년 향화지지
진묵대사 방생도량 어머님 묘소
성 모 암
■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388
전화 063)544-0416 / 544-0408

한국불교 태고종
일 광 사
주 지 황승천
신도회장 유방열
대불청 전북지부장 정인택 (혜산)
■ 전북 정읍시 수성동 410
전화 063)535-3380

한국불교 태고종
용 문 사
주 지 장성오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108-2
전화 063)243-3318 / 243-3319

대한불교 선화종 총본산
황 방 사
조 실 의 천
총무원장 정 일
주 지 일 광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만성리 산84
전화 063)214-0788 / 214-0108

한국불교 태고종
혜 봉 사
(지장기도 도량)
회 주 남 파
주 지 유 정
■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리 23-1
전화 063)546-5125 / 546-5129

관 응 사
주지 진 성
■ 전북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산 11-6
전화 063)546-0048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선 각 사
회 주 선 각
선각다문화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32번지
전화 063)282-2229

왕금산 현불사
취정선원
성불회 반야회
주 지 향해적멸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 224-2
전화 033)671-6279

대한불교 조계종
장 안 사
주 지 동 륜
■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338
전화 033)644-2955

대한불교 조계종
백 운 암
신도일동
■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산129
전화 054)748-3530

금 강 사
(소금강산)
대중일동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2리 1-10번지
전화 033)661-4271

등 명 락 가 사
주 지 이청우
신도회장 곽기웅
가섬회장 이준기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산 17
전화 033)644-5337

백 운 사
주 지 김법안
신도회장 전병은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유등리 434번지
전화 033)661-6222

현 대 불 교 사
불교용품, 불교서적,
유기, 탱화, 단청,개금, 범종,
불상조성, 4.8행사용품
현대불교신문 전북지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48-19
전화 063)255-2274
휴대폰 011-9644-4579

(주)광야종합건설
필름의 명가...
현대인테리어 방염무늬목필름
HyunDae Interior Film
서대석
호텔,백화점,병원,유흥주점
게임업,상가,아파트등
인테리어 방염 필름
서방사거리 국민은행 맞은편
■ 광주광역시 북구 무산동 559-70
전화 062)511-7896 팩스 062)511-0414
휴대폰 011-601-7840

최고의 동기와 ——
추녀, 연암이 있는 동기와 ——
금당 동기와
대 표 이승진
임직원 일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43-6
전화 031)266-8066
휴대폰 011-326-5007

천연향기 제조의 명가
(주)동국 제향
천연의 향기는 심신을 맑게합니다
주요제품 · 기능성 한방향(참향)
· 도자기향(선방용), 박하향
· 자동분사식 공기 청향제
■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862-10
전화 062)251-6277
홈페이지 www.dkaroma.co.kr

승강기 주차기 보수 전문업체
(주)성경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전재성
직원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88-10 임동B/D 3층
전화 062)528-0461~3
팩스 062)528-0460
핸드폰 011-601-8416

관음사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조합원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4가 54-1
전화 062)224-1883, 1921
팩스 062)226-3757

2002학년도 후기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 모집과정 : 석사과정 ◆

1. 모집학과 및 전공
 ▷원불교학과 : 원불교학 전공
 ▷불교학과 : 불교학, 종교학 전공
 ▷동양학과 : 기공학 전공, 동양철학(명리학)전공, 요가학 전공
 ▷서예학과 : 서예학 전공
2. 모집인원 : 00명
3. 응시자격
 학사학위 소지자 및 2002년 8월 졸업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전형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형(면접)일시	전형(면접)장소
본교(전북 익산) : 교학팀 군포분원 : 교학팀	2002. 06 .03 (월) - 14(금) 09:00 - 17:00	2002.06.21 (금) 14:00	동양학대학원장실 (전북익산)

◦전형료 : 50,000원 ◦우편접수는 2002년 6월 14일(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6. 합격자발표 : 2002. 06. 28(금)
 본교 홈페이지 게시(http://www.wonkwang.ac.kr), 개별통지
7. 제출서류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여권용 사진 2매 부착) 1부
 ▷출신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8. 특 전
 ▷ 본 대학원의 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금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소지자는 박사과정에 응시할 수 있음.
 ▷ 재학 중 병역연기 혜택이 부여됨.
9. 수업장소
 ▷ 원불교학과, 불교학과 : 동양학대학원 강의실 (전북 익산)
 ▷ 동양학과, 서예학과 : 군포분원 강의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모집과정 : 전문과정 ◆

(석사과정에 준하되 학위와 관계없음)

1. 모집학과 및 전공 : 석사과정과 동일
2. 모집인원 : 00명
3. 응시자격 : 대학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5. 기타 나머지는 석사과정과 동일

◉기 타

 ▷ 지원자는 2002년 06월 21일(금) 13 : 50분까지 등교 (전북 익산 동양학대학원)하여 면접고사에 임해야 한다.
 (면접고사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교학팀으로 문의바람.

- 동양학대학원 익산 교학팀 :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 063)850-5342,3 FAX)850-7321
 E-mail : won5342@wonkwang.ac.kr
- 군포분원 교학팀 : 435-040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3-4 유공프라자 6층
 ☎ 031)394-2968, 2982 FAX 031)394-1766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1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여름반)
2. 교육장소	동산 불교회관
3. 개강일시	2002년 6월 12일(수요일) 오후 7시
4. 고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 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반 야 회**

2002학년도 후기 행정대학원
원 생 모 집 안 내 (행정대학원야간)

1.모 집 과 정	· 석사학위과정 · 최고관리자과정
2.모 집 학 과	가. 행 정 학 과 : 행정학 전공 나. 복지행정학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전공 다. 정 책 학 과 : 정책학 전공 라. 종무행정학과 : 종무행정 전공 마. 지방정부경영학과 : 지방경영, 지방의회, 지방재정전공 바. 경찰행정학과 : 경찰행정학전공
3.모 집 인 원	각 학과 ○○ 명
4.지 원 자 격	가. 4년제 정규 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 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최고관리자과정은 학력 제한 없음
5.수 업 연 한	가. 2년과정(4 학기졸업) 나. 비 논문으로도 석사취득 가능
6.전 형 방 법	서류전형 및 면접
7.원서교부및접수	가. 기 간 : 2002. 5. 20(월) ~ 29(수) 14:00 - 21:20 (토, 일요일은 제외) 나. 장 소 : 대학원 교학과
8.전형일시및장소	가. 일 시 : 2002. 6. 1(토) 10:00 ~ 나. 장 소 : 고사당일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
9.합격자 발표	2002. 6. 7(목)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19 : 00 이후)
10.제 출 서 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탈모 상반신 사진 [3×4㎝] 3매 부착) 1통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여학생은 초본제외) 각 1통 마.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11.전 형 료	가. 모집요강 및 원서대 : 3,000원 나. 전형료 : 50,000원
12.기 타	가. 지원학과는 대학의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바람 ◆ 전화 : 02)760-4271, FAX : 02)760-4273, 인터넷홈페이지 : www.hansung.ac.kr
※특 전	가. 공무원, 교직원, 군/경 및 전공 관련기관의 근무자는 **수업료의 30%를 감면** 함. 나. 재학중 성적우수자는 장학금을 지급 함.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참사람 열린교육' **동국대학교** www.dongguk.edu 2002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불교대학원 [야간]
(02)2260-3097~8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모집학과 및 전공
- 불교학과 : 불교학, 선학
- 불교사학과 : 불교사
- 불교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 장례문화학과 : 장례문화

원서교부 및 접수
2002. 5. 29(수)~6. 7(금) 10:00~17:00

전형일시 및 장소
2002. 6. 13(목) 13:00, 불교대학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지도자과정◆
- 수강과목 :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전공별로 선택하여 수강
- 지원자격 : · 조계종 대덕 법계 종수 스님
 · 각 종단의 간부
 · 각 신행단체의 대표와 간부
 ·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전형방법 · 원서교부 · 접수기간 :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 전형일시 : 2002. 6.14(금) 14:00

문화예술대학원 [야간/신입생·편입생]
(02)2260-3606~7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모집학과 및 전공
- 문예창작학과 : 문예창작
- 공연영상예술학과 : 공연예술 · 영화영상예술
- 불교예술문화학과 : 불교미술 · 한국음악 · 문화재
- 예술경영학과 : 공연예술경영 · 조형예술경영

원서교부 및 접수
2002. 5.27(월)~6.10(월) 10:00~17:00

전형일시 및 장소
2002. 6.15(토) 10:00, 문화예술대학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문화예술지도자과정◆
- 모집분야 : 문예창작 · 공연예술, 영화영상예술 · 불교미술, 한국음악 · 문화재, 공연예술경영 · 조형예술경영
- 지원자격 : · 정부 각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 각 사암 주지급 스님
 · 언론 · 문화 · 예술 및 연예인과 유관기관의 임직원
 · 사회지도급 인사와 기업체 임원
 · 유아학원 원장
 ·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일시 · 방법, 원서교부 · 접수일시 :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불교문화대학원 [경주 · 야간]
(054)770-2394~5

모집과정 지도자과정(불교,문화예술,장례문화지도자)
(석사과정은 2002.11월중에 2003학년도 전기 모집예정임)

지원자격
- 불교계 각 종단 지도자급 임원
- 국악인, 불교미술, 문화예술 및 장례문화관련 종사자
- 각 신행단체의 대표와 간부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자
- 기타 공무원, 기업체, 사회단체의 지도급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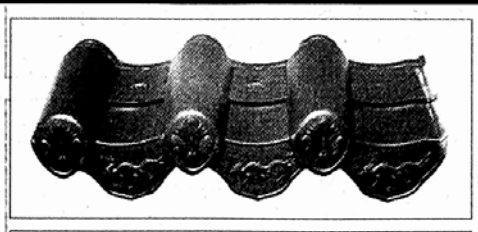
원서교부 및 접수
2002. 6.3(월)~6.13(목) 09:00~17:00

전형일시 및 장소
2002. 6.15(토) 14:00, 불교문화대학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특전]
- 각 사암 중진급 스님 및 불교단체 임원,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포교사, 국악인, 불교미술종사자, 예술단체 및 장례문화 관련업체 임직원은 전형에서 우대 (※장례문화학과 금년 신설)
- 해외연수 국내외 석지순례의 기회를 제공함
- 조계종 및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재적스님, 공무원, 교직원 등은 소정의 학비 감면
- 본교 의료원(암 · 한방병원) 의료혜택 부여
- 불교지도자과정 1년이상 수료자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고시 지원자격을 부여함

기와지붕시공전문





본 제품은 여와 부와의 합일성으로 시공의 간편함과 능률의 향상을 높이고 규격의 노출이 크므로 하중의 부담을 극소화 하는 개량형 전통 한식기와 입니다.
특성은 풍설 폭우 한파의 약천후에 균열이나 동파없이 견딜 수 있는 반영구적 (80년정도)인 제품이며 미려한 곡선의 연속으로 잔잔한 물결의 율동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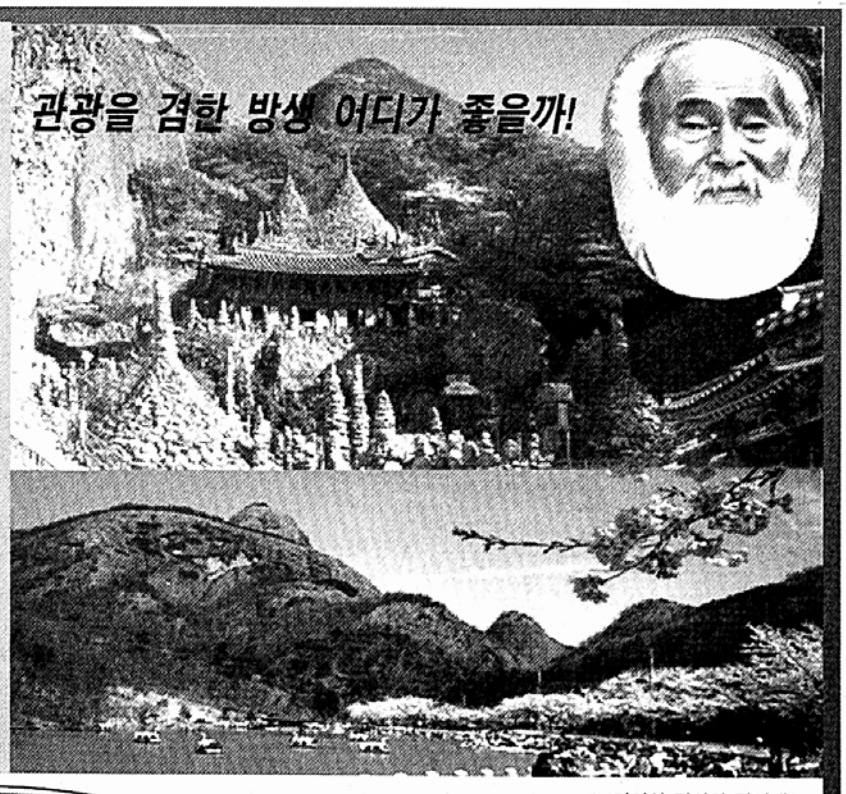
한옥기와 | 청기와 | 오지기와 | 한식기와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가장좋은 제품으로 가장 저렴하게

덕신기와는 불교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오랜 경륜과 경험, 그리고 책임있는 신형기술로 각종 기와를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자세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스님을 비롯한 불자여러분의 많은 상담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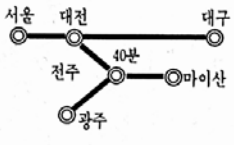
덕신기와 TEL 02)930-7811, 063)856-8562
H.P 011)302-7812 FAX 02)930-7812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한일월드컵 전야제 깜짝 이벤트

목어로 세계평화 발원



◇중생을 제도하고 게으른 수행자를 경책하며, 협동심과 신의를 상징하는 목어가 월드컵 전야제에서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타악기로 사용된다. 박찬수씨는 잉어가 용이 되는 '어변성용'을 상징화해 목어의 몸은 물고기로, 머리는 용으로 제작했다.

한 · 일 월드컵 전야제에 세계 평화를 발원하는 타악기로 목어가 사용되는 깜짝 이벤트가 연출된다. 박찬수 (목아박물관장 · 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장 108호)씨가 조각한 이 목어들은 춘향목을 통째로 다듬어

축구공 여의주 문 용·드리블하는 잉어 등
박찬수씨 대형3개 포함 모두 35개 조각

잉어형상을 만들고 속을 파내 소리가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잉어는 잠을 자지 않고 '어변성용'(漁變成龍 · 물고기가 변해 용이 된다)한다해 우리 민족이 민화로 잉어그림을 그려 집안에 걸어두고 안녕과 구복을 기원했다는 믿음에서 이번 행사의 상징으로 채택됐다.

이번 전야제 무대에 오르는 목어는 길이 320㎝짜리 1개와 300㎝짜리 2개 등 대형목어 3개와 220㎝짜리 32개를 포함해 총 35개가 제작됐다. 대형목어 3개는 '천지인(天地人)'을 상징하며, 32개는 월드컵 본선 진출국의 숫자를 의미한다. 형상도 모두 제각각이다. 우선 대형목어는 잉어가 용이 되는 모습을 조각했다. 또 32개의 목어는 잉어가 축구공을 엉덩이로 차는 것을 비롯해 잉어의 혀로 축구공을 받는 모습, 잉어가 축구공을 몰고가는 형상 등 잉어 32 마리가 축구 하는 모습을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해 재미있게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목어의 입에는 여의주가 물려 있지만 이번엔 월드컵을 상징하는 축구공을 물렸다.

현재 일본순회 전시회로 동경에 머물고 있는 박찬수 관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야제때이번에 제작된 목어에 무용수들이 나무 막대기로 두드려 커다란 소리를 만들어 낸다"며 "월드컵이 끝나면 대형목어는 우리나라와 일본, FIFA에, 32개의 목어는 출전국의 국기와 각 나라별 특징을 재디자인해 하나씩 출전국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jkm@buddhapa.com

동자승·美어린이들 '리틀 월드컵'

경기후 축구공 燈만들기등 불교체험

14일 오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설치된 길이 14m의 축구장.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미국 어린이들과 흰색 티셔츠에 조끼 승복을 입은 동자승들이 축구공을 좇으며 이리저리 뒹굴었다. 공보다 신발이 더 멀리 날아가기도 하고, 자기편 골문을 향해 멋진(?) 드리블을 하는 모습으로 관중들에게 한아름 웃음을 선사했다.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고 월드컵 성공기원을 위해 조계사가 마련한 '리틀 월드컵'.

이날 경기에 참가한 미국 어린이들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서울 홍은동 예수그리스도교회 어린이들로, 가족들까지 함께 참석해 화합과 축제분위기를 연출했다.

3:0으로 미국팀이 이긴후 양국 아이들은 서로 악수를 나눴으며, 동자승들은 미국 어린이들에게 "성불하세요"라고 말하며 우정을 나눴다.

동자승팀의 도향스님(6, 김재민)은 "뛰는 게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고 말했고, 미국팀 윌리엄스(6)는 "이겨서 기분이 좋다"며 웃어보였다.



◇조계사 동자승들과 미국 어린이들이 열심히 공을 좇고 있다.

미국팀 어린이들은 경기가 끝난 후 동자승들과 함께 어울려 축구공 등을 만들며 불교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봉축연합대법회

부산시 봉축위

부산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오)는 12일 부산역 광장에서 불기 2546년 봉축 연합대법회를 봉행했다.

식전행사로 열린 시민문화축제와 영산재, 육법공양에 이어 열린 연합대법회에는 안상영 부산시장,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 5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대회장 일헌정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범어사 학인스님들의 법고, 종성, 예불, 상임부대회장 정각스님의 발원문, 수석부대회장 도원스님의 대회사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성오스님은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사부대중 모두가 정진하자"고 법문했다. 3부 제등행렬에서는 3천여 불자들이 밝혀 든 연등이 부산진시장, 부산불교방송국, 서면 로타리 구간의 거리를 수놓았다.

부산=천미희 기자

태고종 종화대종사 열반
7일 옥천사서 다비식

태고종 승정 옥운당 종화대종사 영결식이 7일 강릉 옥천사에서 태고종 강원교구종무원장으로 엄수됐다.

오전 10시 명종을 시작으로 봉행된 영결식에는 5백여 명이 동참, 사바세계를 떠나는 종화대종사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다.

삼귀의례, 반야심경, 추도묵념, 행장보고, 육성근청, 영결사, 법어, 조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 영결식에서 백운 강원종무원장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대종사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종도 모두는 부종수교의 일념으로 화합을 하고 단결을 이뤄나가는데 정진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지난 5일 세수 81세 법랍 60세로 열반에 든 종화 대종사는 1942년 경북 고운사로 출가한 이후 대교과를 졸업하고 법어사 등 선원에서 안거를 했으며 중앙종회의원, 강원교구종회의장, 강원교구종무원장등을 역임했다. 이경숙 기자

회당대종사 탄생100돌 기념사업선포식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0일 총본산 총인원에서 '회당대종사 탄생 주년 기념사업 선포식'을 봉행했다.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식에서 효암 통리원장은 "참여 · 화합 · 회향의 기념사업정신은 회당대사의 가르침이자 창종정신을 승화하는 것"이라며 "사부대중 모두가 동참 기념사업을 원만히 성취하자"고 말했다.

한편 선포식에 앞서 식전행사에서는 회당대종사 다큐멘터리 영상물 상과 타악퍼포먼스 공연, 국악관현악단 공연 등이 진행됐다. 한명우 기

월산대종사 부도탑건립 개토제



불국사 조실을 지냈던 성림당 월산 대종사의 부도탑과 비문 건립을 위 개토제가 6일 경주 불국사 경내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법주사 조실 정 스님과 조계종 호계원장 월서스님, 월성스님 등 금오문중의 원로 스님과 성타, 종상, 장주 스님 등 월산 스님의 직계제자를 비롯 재가신도 및 식 경주시장 등 500여이 동참했다. 이날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10기 후에는 생전의 큰스님 모습 그대로 장엄한 위엄을 갖춘 부도탑과 비문의 공을 이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도탑과 비문의 전체 설계는 동국대 홍교수가 담당했으며 고은 시인이 비문을 썼다. 김재경 기

부산 두곳서 대형합창제 열려



부산불교합창단 연합회가 13일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2002부산합 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제4회 부산불교합창제를 가진데 이어 15일 는 삼광사가 제1회 봉축음악제를 개최했다.

부산불교합창제에서는 통도사부산포교원, 한마음선원을 비롯 17개 사의 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의 공연과 정율스님의 독창으로 '육바라밀'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한편 삼광사 지관전 불교문화회관에서 열린 봉축음악에는 부산불교연합합창단 등이 참가해 '이 세상에 단 한분' '묘법연화' 등의 찬불가를 공연했다. 부산=천미희 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만물이 서로 의지·공존 연기사상 사회복지 상호부조 윤리와 상통"

불교복지연구원 세미나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원장 혜총) 주최로 10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불교사회복지사상과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2차 학술세미나에서 사회복지의 이론적 근거를 불교 사상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됐다. 이날 두송복지관 관장 지현스님은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괴로움의 현상을 자비, 복덕, 청정, 지혜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곧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택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기의 상의상관 사상은 사회복지의 사회연대 및 상호부조의 실천윤리와 상통한다"고 주장했다.

금정구종합복지관 관장 정여스님은 불교사회복지의 현실에 대한 반성과 대책을 촉구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나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쉬지 않으면
부처님 세계에 들 수 없다.

본 선원은 불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중생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일동



법 회 본래로 부터 밝혀져 있는 마음을 제대로 깨우쳐 부처님의 세계에 들고자 그 믿음을 공고이 하는 신행법회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법회시간□ 화요법회 매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넷째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법형제법회 매주수요일 오후 7시 / 어린이법회 매주토요일 오후 2시 / 학생법회 매주토요일 오후 4시 / 청년법회 매주화요일 오후 7시 / 초하루 보름 정진법회 음력 초하루보름 오전 10시 30분.

영 탑 불교의 전통적인 탑을 설치하여 조상님의 육신을 모시는게 아니라 영혼을 모심으로 조상님을 올바르게 모시는게 되고 직계 대대로 영원히 쓸 수 있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이바지하고, 공원형식이라 신성하고 친근감이 듭니다.

위 치 국도 25호선중에 진영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창원 I.C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육교에서 금산초등학교 정문을 지나 삼영타임 공장방면으로 300여 미터 들어오다보면 왼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자세한 참조는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약도를 참고하세요.)
URL:(http://tree.hanmaum.org/jungbu)
주소 [illegible]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반룡리 321-1
TEL 055) 345~9900/342~6639 · 0 Fax 055) 346~2179

부처님 오신날 화 제

108배 만일 결사 입제한 이동철씨 가족

"절하면서부터 욕심 사라졌어요"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108배 1만일 결사에 들어간 이동철 씨 부부.

"절 수행은 하심(下心)을 통해 가족과 직장에서의 화합을 이루는 좋은 방법입니다."

2002년 5월 19일 부처님 오신날에 시작, 1만일(27년 4개월) 동안 108배 정진 결사에 들어간 가족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경기도 수서에 사는 이동철(51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부장) 씨 가족.

지난 5년간 '절 수행' · 불교공부 계속
下心통해 가정 · 직장서 화합 이뤄

이동철 씨를 비롯 부인 김금숙(50) 씨, 승재(21), 용재(19) 군 등 이 거사 가족 4명은 부처님 오신날을 기점으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금강경과 천수경 독경, 108배 정진을 하고 있다.

이동철 씨 가족의 108배 정진수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거사 가족은 97년 법왕정사 주지 청견스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동안 꾸준히 절 수행을 해왔다. 또한 이 거사는 절 수행을 하면서도 능인선원, 정토회, 금강불교대학 등을 다니면서 불교 공부에도 매진해왔다.

절 수행의 깊은 뜻을 알게 된 이 거사는 이 때부터 절 수행 삼매에 빠지기 시작했다. 108배, 1080배, 3천배, 1만배를 하면서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자, 불만으로 가득했던 가족과 직장이 점점 화목을 이루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아내의 동참을 이끌어냈고, 아들들에게 영향을 주어 온 가족이 108배 정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거사는 얼마 전 자신의 가족이 동참하고 있는 양평 법왕정사의 '백만 불자 108배 1만일 결사' 추진위원장도 맡았다. 주위의 추천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절 수행을 불교계와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시켜 보겠다는 생각에서다. '하심'을 배우게 하는 절 수행이야말로 자신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이동철 거사는 "절을 하며 부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욕심과 집착을 벗고 불법의 맑은 물을 담는 일"이라며 절 수행의 의미를 밝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도와주세요

"병든 언니에게 신장 기증"

수술비 없어 애태워



◇김옥자(왼쪽) 씨와 동생 옥순 씨.

신장 기증으로 생명을 나누려는 자매가 수술비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칠순 넘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김옥자(25), 김옥순(23) 자매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공장에서 일하던 언니 옥자 씨가 올 2월에 몸이 붓는 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게 되자, 급기야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 두게 됐다.

다행히 동생 옥순 씨와 조직이 일치해 이식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22만원 사글세방에서 근근이 연명만하는 처지에 2천여 만원의 수술비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후원계좌 :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 문의 : (02)734-8050

김철우 기자

증인 "가방주는것 본적없다"
'뇌물수수' 검찰주장 뒤집어

김태복장군사건 5차공판

김태복 장군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김 장군이 김문규 진천건설 사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했다는 군검찰의 주장이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환송심 5차 공판에서 차원준 여단장 전속부관, 소상섭 법당 재무, 서영오 불교신도회 부회장 등 증인들은 한결같이 '96년 7월 7일 여단장 공관에서 김문규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군검찰의 주장이 정황상 맞지 않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차원준 전속부관은 "96년 7월 7일 오후 3시 17분에서 6시 17분 사이 김문규 씨가 공관에 방문한 적이 없으며, 방문했다면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문규 씨가 김태복 장군에게 가방을 건넨 것을 본적이 없다"고 증언해 1심과 2심에서 가방을 갖고 왔다가 빈손으로 나갔다는 증언을 뒤집었다. 차 전속부관은, 1심과 2심의 증언은 군검찰의 협박과 다름없는 강박감을 느낀 상황에서 유도질문에 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소상섭 법당 재무도 "구금장을 보여주며 조사를 진행했다"며 차 전속부관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서영오 불교신도회 부회장은 "96년 7월 7일은 불교TV 촬영팀의 법당 취재가 있어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며 "김문규 씨는 점심 회식이 끝나고 부대 방향이 아닌 금촌 방향으로 곧바로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재판부(재판장 남재준 대장)는 이날 증인 증거조사를 마치고 심리공판을 최후진술을 들었다. 선고공판은 1주일 후 열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 금강정사 등
'희망의 등' 나누기 동참

불교여성개발원과 분당 금강정사, 수원포교당이 본지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공동주최하는 '희망의 등 나누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12일 연등축제 때 '이웃과 함께 하는 부처님 오신날'을 주제로 부스를 설치하고 '희망의 등'을 접수받았다.

경기 분당 금강정사(주지 지홍)는 최근 '자비의 저금통'이란 이름아래 캠페인에 동참했다.

수원포교당은 19일 부처님 오신날부터 '이웃을 위한 등하나 더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1일 100원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 보시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재경 기자

호국불교역사관 건립추진

1500평 규모 금산사, 승군실 · 역사실 · 수련관 등 예정

미륵신앙 근본도량인 김제 금산사가 나라 지키기에 앞장 선 쳐영대사와 1천여 승병을 기리는 호국불교역사관의 건립을 추진한다.

금산사(주지 평상)는 연면적 1천5백평 규모의 호국불교역사관을 건립키로 하고 문화관광부에 국비 5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 50억원, 자체 경비 6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금산사는 올 하반기부터 호국불교실과 승군실, 역사실, 체험관, 신앙실, 수련관, 세미나실 등을 갖춘 역사관 건립에 착수키로 했다.

금산사 김형문 재무과장은 "애국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사부대중들의 발원에 의해 이 일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춘천불교방송 10월 전파발사

10일 개소식, 7월까지 각종 장비 보강

강원지역에서도 라디오 포교시대가 열린다.

춘천불교방송국 개소식이 10일 춘천 SK 생명빌딩 10층 사무실에서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스님과 신흥사 주지 마곤 스님(설립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월정사 주지 현해, 등명낙가사 주지 청우 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소식을 가진 춘천불교방송국은 주파수 100.1㎒로 오는 10월 첫 전파발사 등 시험방송을 앞두고 이달부터 24억3천만원을 들여 7월까지 방송장비와 방송인력 보강에 착수한다. 이어 9월 서울 불교방송국에 신입 직원들을 연수시켜 방송 실전에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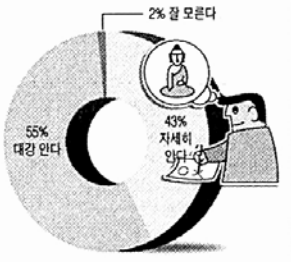
가청권은 춘천 화천 양구 홍천과 원주권 일부지역 등 영서지역까지며, 불자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불교교리와 교양 프로그램 및 불교계 뉴스 등을 방송할 예정이다.

초대 춘천불교방송국 사장은 신흥사 주지 마곤 스님이 맡고 방송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신흥사와 낙산사가 주축이 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일 기자

불자의 생각

부처님 일대기



불자들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 동참한 131명의 불자들 가운데 72명(55%)은 '대강 안다', 57(43%)명은 '자세히 안다', 2명(2%)은 '잘 모른다'고 응답해 대다수 불자들이 부처님 생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히 안다" 43%

부처님의 일대기중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32명(24%)이 출가, 27명(21%)이 성불, 19명(15%)이 사문유관, 16명(12%)이 수하항마, 14명(11%)이 각각 초전법륜과 열반, 3명(2%)이 탄생, 6명(5%)이 기타라고 응답했다. 임연태 기자

북한 경수로 현장 금호사 개원
남한 불자근로자 신행 도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경수로 건설 공사현장인 함경북도 신포시 금호지구에 남한 불자 근로자들을 위한 법당인 금호사(琴湖寺)가 부처님 오신날인 19일 개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8일 울산항에서 법당 개원을 지원하기 위한 불상과 좌대, 불단, 현판과 주련 등을 선적, 11일 금호사 현지에 도착해 봉안 설치했다고 밝혔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이환래 사무국장은 "현재로는 불자들이 자체적으로 신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 조계종 정식 사찰 등록을 추진해 스님을 파견하는 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80대 비구니스님
장학금 7천만원

80대 비구니 스님이 평생 아껴 모은 정재를 장학금으로 내놨다.

8일 경주캠퍼스에 따르면, 경남 통영 신광사 주지 선도 스님이 7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방문해 현금 7천만 원을 장학금(5천만원)과 학교발전기금(2천만원)으로 기부했다.

경주캠퍼스 측은 "조그만 사찰의 주지로 계시면서 틈틈이 모은 돈을 전부 내놓으신 것으로 안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벌이고 있는 '학교 주변 땅 한 평 사기 운동'에 스님의 기부가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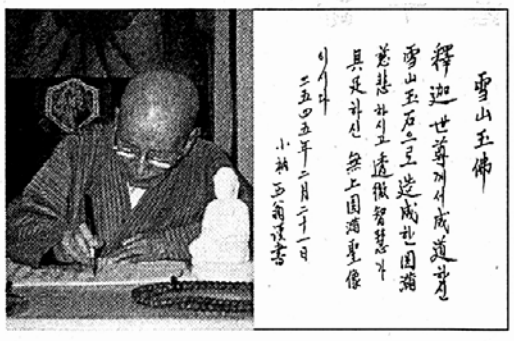
선도 스님은 평소에도 불우 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권형진 기자

玉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 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서울(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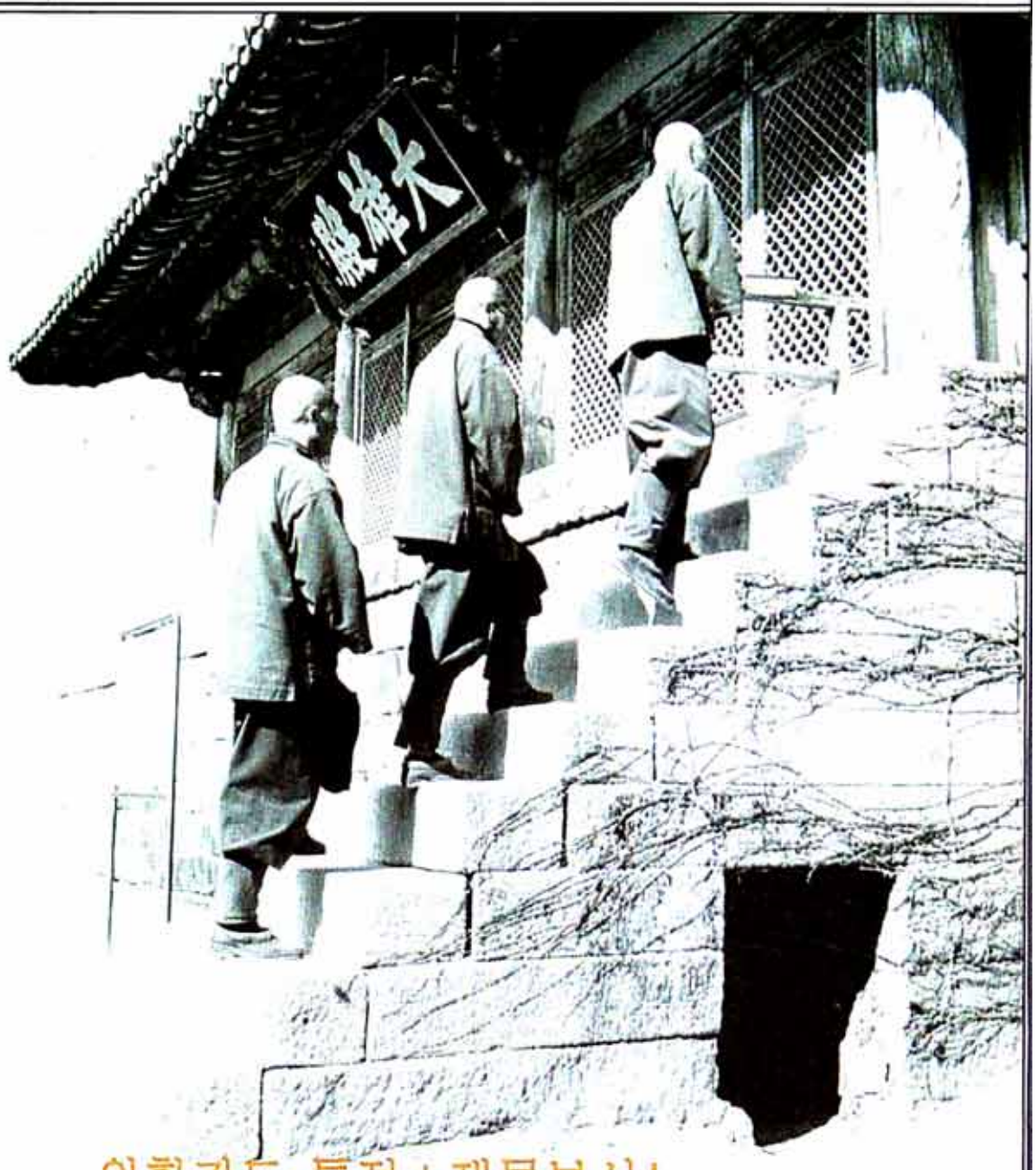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현대불교와 외환카드가 제휴한 불자용카드

부다피아 외환카드 발급 개시

【누구에게나 발행되는 상업적 목적의 카드가 아닙니다.
오직 불자님들께만 발행되는 불교복지 카드입니다.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보시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불법홍포의 방편으로 전달 됩니다.】



외환카드 특전+재물보시!

부다피아외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다피아 외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은행이나 카드사지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외환카드로 3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부다피아 외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쩍새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외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보시행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부다피아 외환카드

콘도 할인예약 전국 주요 콘도 및 호텔 최고 88% 할인예약
외식 할인 아웃백 스테이크 무료 식사 쿠폰 제공 / 까르네 스테이션 20% 할인 (1일 1회 4인 1테이블에 한함) / 유명 바 및 레스토랑 10% 할인
레저서비스 할인 스키, 스킨스쿠버, 래프팅 등 각종 레포츠 20% 할인
여행 할인 항공권 3% 할인 / 렌터카 할인
주유 할인 에 Bank에서 주유시 리터 당 30원 적립
포인트 적립 물품 구매액의 0.3~1% 적립
무이자 할부 전국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쇼핑서비스 면세점 10~15% 할인서비스
병원서비스 동국대병원 할인서비스
기타서비스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인터넷 쇼핑 마하몰 5% 할인



외환카드 www.yescard.com
현대불교신문사 www.buddhapia.com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725-1132/737-888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3